

제17호

충남문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얘기할 때는 반만년이라는 말을 흔하게 인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역사와 문화가 오래됐음을 나타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사실은 반만년 그 이전에 존속한 선사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룬 것을 따지면 더욱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 민족은 일찍이 고도의 문화를 이루었고 역사 이래로 국가의 형태를 갖추면서 다른 민족이나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익혀온 민족이기에 그 문화의 폭과 깊이는 가히 짐작키 어려울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동이족(東夷族)으로서 중국의 은(殷)나라 왕조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삼국시대에는 국가 성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미개한 일본 고대국가의 성립에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지요.

동남아를 일컬어 우리 민족의 문화를 능가하는 민족은 없으며 세계의 모든 문화를 수용하며 받아들이 걸러내고 다듬어가면서 순수한 한민족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온 민족입니다. 이토록 대단한 역사의 흐름 속에 주도적 역할을 해낸 곳이 곧 충남 땅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옛부터 동북아의 문화를 아우르고 이끌어 왔으며 지금은 젊은 이들에 의해 한류열풍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한 우수성 즉 DNA의 특이성이 갖는 의미인 듯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문화 전국시대를 이루는데 충남이 주도적 역할을 할 때라 생각됨은 충남이 선비의 고장이고 성리학의 중심이며 대륙문물 유입의 발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충남은 동북아의 지리적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포가 이끌어내는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도내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열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책무가 무거워짐을 느낄 때 내포 시대의 아름다운 문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준 호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

2013. 12.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남문화 제17호 발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책자 발간에 힘써주신 이준호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가족 여러분께도 지면을 통하여 반가운 인사 및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남도 역시 정신문화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도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충남은 고대 백제문화의 본고장이며 내포문화와 기호문화를 꽃피운 문화의 고장으로서 강한 문화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유학연구 요람인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를 빼놓고는 국가경쟁력도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사회 여건과 중앙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변화를 반영한 충남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충청도와 시군의 문화예술 정책수립과 문화행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정책변화에 따라 앞으로 유능한 문화인 육성과 향토 색 짙은 창작예술 발굴과 문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남 문화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이준우
충청남도의회 의장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를 담아놓은 『제17호 충남문화』의 발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이룩해낸 물질적·정신적 모든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양하고 풍성한 양질의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발굴과 뜻 있는 문예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15개 문화원’과 ‘충남문화원연합회’의 활동은 실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문화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준호’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시며,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문화융성’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찬란했던 고대 백제의 문화유산이 보유하고 있으며 5천년의 한민족 역사만큼이나 깊고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살아남아 숨 쉬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을 펼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충남문화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도내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문화자료 수집과 발굴, 각종 문예행사와 문화참여·교육사업 등의 다양한 노력이 ‘충남문화의 힘’을 강화하여 ‘행복충남’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풍성한 충남문화가 발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충남문화의 융성과 문화원의 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일곱 번째 『충남문화』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를 소개하고 도민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와 ‘15개 도내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Contents



001

권두언

이준호(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

002

축간사

안희정(충청남도지사)

003

축간사

이준우(충청남도의회 의장)

006

기고

나태주(시인, 공주문화원장) / 오미형(당진문화원) / 김상희(예산문화원)

016

충남의 인물

영원한 청년! 월남(月南) 이상재 선생 / 忠·孝·禮·義·文을 고루 갖춘 맹사성(孟思誠) / 담헌(潭軒) 홍대용(洪大容) / 임시정부를 이끈 독립운동가 석오 이동녕(李東寧) /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文讓穆) 선생

030

충남의 민속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의당집터다지기 / 안섬 풍어제 / 12간 돌다리 밟기 유래

038

충남의 전설

효성이 지극한 강릉정을 알아본 호랑이 이야기 / 증산성 / 여우로 변한 처녀

046

충남의 문화재

자암 김구선생 관련 유물 / 불멸의 애국충절 “강옥상”

050

충남의 향토문화 축제

금강여울축제 / 전국 제일의 에듀테인먼트 축제! 홍성내포문화축제!

054

충남의 문화사업

073

문화원 단신

075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077

도내문화원 활동상황 (가나다순)

078

공주문화원

081

금산문화원

084

논산문화원

088

당진문화원

091

대천문화원

094

부여문화원

097

서산문화원

100

서천문화원

103

예산문화원

105

온양문화원

109

천안시동남구문화원

110

천안시서북구문화원

111

청양문화원

113

태안문화원

118

홍성문화원

123

각 문화원 홈페이지 소개 및 문화원 현황



Contents



001

권두언

이준호(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

002

축간사

안희정(충청남도지사)

003

축간사

이준우(충청남도의회 의장)

006

기고

나태주(시인, 공주문화원장) / 오미형(당진문화원) / 김상희(예산문화원)

016

충남의 인물

영원한 청년! 월남(月南) 이상재 선생 / 忠·孝·禮·義·文을 고루 갖춘 맹사성(孟思誠) / 담헌(潭軒) 홍대용(洪大容) / 임시정부를 이끈 독립운동가 석오 이동녕(李東寧) /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文讓穆) 선생

030

충남의 민속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의당집터다지기 / 안섬 풍어제 / 12간 돌다리 밟기 유래

038

충남의 전설

효성이 지극한 강릉정을 알아본 호랑이 이야기 / 증산성 / 여우로 변한 처녀

046

충남의 문화재

자암 김구선생 관련 유물 / 불멸의 애국충절 "강옥상"

050

충남의 향토문화 축제

금강여울축제 / 전국 제일의 에듀테인먼트 축제! 홍성내포문화축제!

054

충남의 문화사업

073

문화원 단신

075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077

도내문화원 활동상황 (가나다순)

078

공주문화원

081

금산문화원

084

논산문화원

088

당진문화원

091

대천문화원

094

부여문화원

097

서산문화원

100

서천문화원

103

예산문화원

105

온양문화원

109

천안시동남구문화원

110

천안시서북구문화원

111

청양문화원

113

태안문화원

118

홍성문화원

123

각 문화원 홈페이지 소개 및 문화원 현황



1달러의 감사와 행복

나태주

시인, 공주문화원장

캐나다는 첫인상이 매우 평화롭고 순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사람보다는 산이 더 많았고 계곡과 개울과 호수, 그보다는 나무들이 더 많았다. 가도 가도 산이고 계곡이고 개울이고 호수와 나무였다. 캐나다는 그렇게 산의 나라였고 계곡과 호수의 나라였고 더 많이는 나무의 나라였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 많은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만났다. 햇빛 비쳐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는 루이스 호수, 에메랄드 호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호수들. 만년설을 보았고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폭포를 보았고 설상차를 타고 빙하지역을 찾기도 했고 빙하지역에만 산다는 나무숲을 보았다.

그런 가운데 여행 둘째날 저녁 무렵, 무심히 찾은 계곡에서 만난 연어들을 잊을 수 없다. 마침 그들은 알을 낳으러 모천을 찾은 어른연어들이었다. 호텔방에 짐을 풀었을 때 연어가 올라왔으니 보러가도 좋다는 전갈을 받고 찾은 나지막하고 조부장한 개울이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법석을 떨고 있었다. 와!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었다.

정말로 연어였다. 처음 본 연어는 생각 밖으로 몸통이 크고 우람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다. 멍투성이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정말로 연어들의 입은 아래턱이 커다랗게 불거져 있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아래턱이 변형이 되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한사코 자기 고향으로 찾아와 알을 낳는다는 연어. 그리고서는 힘이 부쳐 죽는다는 연어.



정말로, 정말로 연어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성질 급한 한국의 관광객 몇 사람이 텀벙신을 신은 채 개울물로 들어가 연어를 들어 올렸을 때 연어들은 사람들의 손바닥 위에서 힘없이 몸을 부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이 핑 돌 것만 같았다.

저 물고기들이 정말로 내가 가끔씩 음식점 같은데 뷔페식당에서 먹었던 그 연어회의 원형이란 말인가! 성스럽다고나 그럴까. 가슴 벅차다고나 그럴까. 인간인 나 스스로가 많이 부끄럽다고나 그럴까. 차라리 연어를 만나지 말고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순한 사람들이다. 착하고 평화롭고 마음씨 고운 사람들이다. 캐나다는 그렇게 커다란 나무, 곱게 물든 붉은 색 단풍나무 아래 조용히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나라다. 더러는 곱게 늙은 노인이 웃는 눈으로 적대감 없이 이방인을 바라보아주는 나라다. 참 아름다운 나라, 깨끗한 나라다. 세상에 태어나 한번이라도 이렇게 캐나다를 보았다는 건 행운의 일이다.

그런 가운데 특히 나를 울린 일은 또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다. 아마도 그것은 밴쿠버의 호텔에서였을 것이다. 그 호텔에서 우리는 이틀을 연달아 묵도록 되어 있었다. 첫날을 묵고 다음날 아침, 호텔 방을 나설 때 우리는 1달러짜리 미화 두 장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나왔다. 그런데 저녁에 다시 돌아와 보니 돈이 놓여 있던 책상 위에 한 장의 메모지가 놓여 있는 것이었다.

무얼까? 그것은 방을 치우는 일을 하는 여자 분이 써놓은 쪽지인데 내용은 자기에게 팁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아, 1달러의 팁을 받고 감사의 편지를 쓰다니! 감동이었다. 행복한 마음도 들었다. 1달러의 감사와 행복. 그것은 이국에서 맛본 특별한 느낌의 시간이었다. '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시설관리인.(Thank you so much for the tip's from House Keeping)' 캐나다는 그렇게 나에게 겸손한 나라, 깨끗한 나라, 순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감사하고 행복한 나라로 기억되었다.

용산사

간절함이 만드는 경건함, 그들 속에 함께 있었다

오미형
당진문화원

지난 4월 23일~26일, 3박 4일 동안 <2013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사무직원 선진문화탐방>으로 대만을 다녀왔다. 작년에 자유여행으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일정상 가보지 못한 다른 곳들을 가게 되어 기대가 되었다. 새로운 것을 직접 보고 느껴봐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출발하기 한참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들떠 있었다. 탐방으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대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이었다.

일정 중에 용산사(龍山寺)만큼 그들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용산사에 들어서는 순간 경건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장난스럽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용산사는 타이베이에 있는 수많은 사원들 중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1740년에 건립되었지만, 그동안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몇 차례 파괴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1957년에 재건되었다.

본당은 관세음보살을, 뒤편에는 도교의 여러 신(神)들을 모신다. 대만의 불교는 불교에 도교가 융합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정통 불교만 접한 내게는 생소하고 신기할 뿐이었다. 대만은 중국에서

파생된 여러 형태의 신을 모신다고 한다. 그중에 관우장군을 모신 사원이 가장 많다. 관우는 처음에는 전쟁의 신으로, 그 이후에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과 신의로 인해 장사의 신으로, 그리고 제물의 신으로까지 추대되었다. 용산사 역시 뒤편의 전당 왼편에 관우신을 모시고 있다.

타이베이에서 용산사가 특히 인기 있는 이유는 앞쪽에 모신 관세음보살상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당시에 용산사 경내는 폭격을 피하는 대피장소로 이용되었는데, 어느 날 평소에는 없던 모기떼가 나타나 대피해있던 주민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이곳을 총통부로 착각한 미국 폭격기가 용산사에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놀랍게도 관세음보살상은 손끝하나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피해자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산사를 영험한 관세음보살상이 보살펴주는 곳이라 생각해 더욱더 자주 찾았다.

용산사는 오른쪽 용문으로 들어가 왼쪽 호랑이문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 오른쪽 입구로 들어가 용산사 안으로 들어섰을 때 소원을 비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고 자욱한 연기와 함께 향 냄새가 느껴졌다. 입구 오른쪽에는 신에게 바치는 음식과 향, 초 등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 나는 한 묶음에 10NT(한화 400원가량)인 향을 구매하였다. 사실 작년 여행 때 용산사에 대해 조금 공부했던 것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차례대로 향을 꽂고 소원을 빌었는데,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니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었다. 나와 함께 향을 구매하여 다녔던 태안문화원 직원에게 미안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순서가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간에 간절한 마음이면 다 통할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

현지인들은 양손을 기도하는 듯 모아서 향을 조심스럽게 잡고, 향을 잡은 손이 이마에서 가슴높이까지 온다는 느낌으로 절을 한다. 그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향에 불을 붙이고 전체 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향 하나를 꽂았다. 향은 한 번에 다 꽂는 것이 아니라 향 하나에 소원 하나씩 향로에 차례대로 꽂는 것이라고 들었다. 남은 향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본당에 있는 관세음보살상 앞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고 향을 또 꽂았다. 키가 작은 나는 향로가 너무 높고 깊어 향을 쓰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꽂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향이 조금이라도 쓰러지게 되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소하고 유치한 걱정에 까치발을 하고 향을 꽂게 되었다.

오른편으로 내려와 뒤편으로 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신은 화타신선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신이다.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빌고, 옆에 공부와 일을 도와주는 신인 문창제군께 다시 소원을 빌고 향로에 향초를 꽂았다. 중간에 다른 신이 있지만 자세히는 몰라서 현지인들이 하는 걸 보며 살짝 인사를 드리고 지나갔다. 그 옆에 아이들이 앞에 서있는 신이 있는데, 이는 아이를 돌봐주는 신으로 아이를 원하는 분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간절히 올린다고 한다. 나는 미혼이므로 역시나 눈치껏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왼쪽 옆으로 바로 관우장군 계신 곳에서 인사를 드리고 바로 옆에 월하노인을 모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하노인은 붉은 실 한 쪽을 남자 발에 묶고, 나머지를 여자의 발에 묶어서 부부가 될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중매의 신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었다. 월하노인 모신 곳 안쪽으로 보면 상자가 보인다. 상자에는 작은 비닐주머니에 들어있는 붉은 실이 보인다. 우리가 잘 모르는 눈치로 보이니 현지 어르신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손동작으로 알려주셨다. 말은 안통해도 뜻은 통하니, 이것을 하나 가지고 향로에 몇 바퀴 돌려 지니면 된다고 한다. 그대로 행하고 남은 향을 쫓고 소원을 빌었다. 붉은 실을 지갑에 지니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인연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솔로인 여직원들은 조용히 하나씩 가지고 왔다. 하지만 월하노인께서 일이 많으신 것 같으니 조금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원편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점을 보았다. 기다란 대나무 번호표를 뽑아 그 안에 적혀있는 숫자를 외우고 반원 나무 조각 두개를 들고 소원을 빈 다음 바닥에 던져 한 개는 반원의 볼록한 부분이, 한개는 평평한 부분이 보이는 다른 모양으로 나온다면 외운 번호에 맞는 점괘 쪽지를 찾는다. 쪽지함 옆에 영어로 해석본이 나와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바닥에 던진 반원 나무 조각이 두 개다 볼록한 부분이거나, 평평한 부분이 나왔다면 다시 처음 번호표를 뽑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왜 반대로 생각한 것인지 아직도 속상하기도 하고 옆에 현지인한테 물어 보지 못한 걸 후회하지만, 자꾸 다른 방향을 보는 반원 조각에 내 정성이 부족하다며 자책하고 나왔다.

낮선 도교의 신들은 약간 무서운 모습을 갖고 있다. 신이 생각하기에 인간들이 알보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남았나 보다. 각 신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아쉽다. 물론 이 글에도 참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심스럽다. 하지만 대만 사람들의 종교생활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대만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든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다.

대만인들은 특별한 날에만 용산사를 찾는다기보다 출, 퇴근할 때 잠시 들러 절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을 나누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밀착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신앙을 가지고 참배를 하는 모습이 신기하지만, 그들 각자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경건함은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내가 아무런 편견 없이 숙연하게 그들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용산사에서 기도하던 분들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면 욕심인 걸까. 용산사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이라도 그들과 소통한 시간, 그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시간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고 있다.



달콤, 바나나맛 대만 탐방기

김상희
예산문화원

꿀꺽.. 카아아아~

캐리어 짐을 정리하다가 타이베이 숙소에서 가까운 마트에서 사온 바나나맥주를 발견하고 곧장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두어시간쯤 흘렀나? 맥주가 마시기 적당하게 시원해져 있었다. 한 두 모금 들이키고 있자니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들었던 연합회장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다.

“여러분들의 순간, 순간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그 오늘들이 모여 내일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금은 ‘지금’ 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즐겁게 만들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 바라며, 우리가 함께한 3박 4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바나나맥주의 맛이 생경하지만 달콤한 것처럼 이번 여정도 처음에는 낯선 이국에서 오랜만에 함께 한 직원들과의 만남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 모두가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생각하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다. 한 캔을 마저 비우며 2013년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선진문화탐방으로 방문한 대만에서의 추억에 젖어본다.

인천공항에서 2시간을 날아 도착한 타이베이공항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공항을 나오자 곧 덥고 습한 바람이 대만에 온 것을 실감나게 했다. 서둘러 2층 버스에 몸을 실었다. 드디어 충남의 앞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원 사무직원 23인의 3박 4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두둥~♪

첫째 날, 중국대륙에서 공산당과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모신 충렬사, 5천년 중국 역사의 귀중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원, 서문정 거리, 용산사를 거쳐 화시지에 관광야시장을 둘러보고, 보생문화제를 참관하는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



충렬사는 덕산에 있는 충의사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곳이었는데 처음 보는 위병교대식이 인상 깊었고, 역사적으로 중국과 많은 교류를 통해 고건축 형태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황금색 지붕과 빨간색 기둥 등 화려한 양식이 눈에 띄었다.

다음으로 간 국립고궁박물관은 중국 본토에서도 관람하러 올 만큼 고대 중국유물들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세계 4대 박물관 중의 하나라고 한다. 우리가 갔을 때도 관람객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유물 하나를 보기위해 줄을 서서 몇 분씩 기다리기도 했다. 거대한 대륙의 기상과 다르게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공예술과 청동기, 도자기, 서화, 문방구, 왕조의 궁정유물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중국문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1930년대 전쟁 속에서 75만 건의 고대유물을 옮겨와 잘 보존했다는 것이었다. 장제석이 이끈 국민당이 이 많은 유물들을 중국에서 옮겨왔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본 안목이 놀라웠다.

박물관에서 대만의 과거 역사를 알았다면 다음으로 간 서문정 거리는 대만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서울의 명동과 같은 변화한 거리라고 설명해준 가이드의 말처럼 음식점과 여러 상점들이 즐비해 쇼핑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 거리에서 유명하다는 망고빙수 맛이 일품이었다. 잘 익은 망고와 시원한 빙수를 함께 먹는 것인데, 이제 막 우기에 접어든 대만의 덥고 습한 날씨에 제격이었다.

거리를 활보하며 느낀 것은 이국적인 향취보다 낯익은 우리의 모습, 바로 '한류'였다.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과 한국브랜드상품을 찾아볼 수 있었고 K-POP으로 불리는 가요 또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어 뉴스로만 보고 듣던 한류를 몸소 체험했다. 사진도 찍으며 한류의 거리, 서문정의 정취를 만끽하고 용산사로 향했다.

용산사는 타이베이 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라고 한다. 청나라 때 세워져 소실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뒤 다시 지어져 현재에 이른다한다. 외관이 어두워 지난 세월보다 훨씬 더 고풍스럽고 옛스러운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돌기둥에 조각된 용과 역사적 인물들의 춤추는 모습, 지붕을 화려하게 장식한 용의 모습 등이 우리의 사찰 건축양식과 달랐다.

이튿날, 국립야류해상공원을 갔다가 아미족 민속쇼를 관람하고 101층 타워 전망대로 향했다. 일



정 중에, 아니 전체 탐방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야류해상공원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남짓 갔을까, 타이완 북쪽해안의 야류라는 지역에 도착했다. 90분간 관람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모이기로 하고 공원에 들어섰다. 여러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여 걷다가 그 끝에 다다르자, 갑자기 탁 트인 바다의 모습과 기이하고 버섯처럼 재미있게 생긴 모양의 바위들이 펼쳐졌다. 공원에 들어가기 전, 홍보영상에서 이 바위들이 자연의 힘과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했다. 거대한 바위들이 계란바위, 미녀바위, 여왕바위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갖가지 모양을 하고 제각기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도저히 자연의 힘이라고 믿겨지지 않게 정교하고 절묘하게 생긴 바위들이 여기저기 서있었다. 그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만져보다 그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여왕바위라고 이름이 붙은 곳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5미터 가량 서 있기도 했었다.

한국의 장마철처럼 덥고 습한 날씨여서 움직이기도 힘이 들었지만 9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정말 쉬지 않고 바위들을 옮겨가며 그 모습에 감탄하고 또 오래 기억하기 위해 사진기 셔터를 눌러댔던 기억이 새롭다.

셋째 날, 지금 떠올려도 대만에서의 마지막 밤이라고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전해진다. 그러기에 더욱 알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호텔에서 조식과 준비를 마치고 버스에 올라탔다. 태노각 국립공원 관광을 위해 화련으로 가는 열차를 타야했다. 타국에서 열차를 타기는 처음이라 기대했는데 대만에서 열차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왔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좌석을 앞뒤로 돌리는 것도 우리와 같아서 일행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타이베이에서 도착지까지는 3시간 소요되어서 왕복 6시간을 열차에서 소비하는 것이 허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이라 바꿀 수 없다면 즐기라 생각했다. 함께 한 직원들과 그 동안 못 다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중간에 마트에 들러 각자 샀던 음식들을 먹으며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화련에 도착해 있었다. 그 곳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태노각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구불구불 산길을 올라가 태노각 국립공원에서 제일 처음 장춘사에 도착했다. 이런 험한 산세 속에, 그것도 바위로 된 산비탈에 사당과 정자가 세워져 있었다. 멀리서 보아도 어떻게 저 높은 곳에 지었을까.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이곳은 거대한 산맥으로 가로막혀있었는데 길을 뚫기 위해 원주민들을 동원하였고, 당시 장비가 부족하여 망치와 정 등 원시장비로만 이용하여 단기간 안에 길을 만들다 보니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대만 정부에서는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사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장춘사' 라고 한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편하게 앉아 온 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쳤다고 생각하니 자연경관에 감탄만 하기 힘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도로 주변에서 정과 망치의 흔적을 찾아보며 고통스럽게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잠시 숙연해지기도. 그래도 오래전 관광지가 잘 조성되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연 깊숙이 자리한 대리석과 석회암으로 이뤄진 협곡의 장관을 보게 된 것이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산 속에 뚫린 작은 터널 너머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산세와 폭포의 물줄기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던 장춘사 일대를 지나 보행자용 길을 따라 걸으며 태노각협곡의 하이라이트, 연자구로 이동했다. 연자구에 도착하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 우비를 입고 이동하는데 비와 함께 협곡 사이로 물안개가 펼쳐져 모습이 더욱 장관을 연출했다. 오랜 세월동안 폭풍우와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 침식작용에 의해 절벽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굴 안에 제비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 많아서 연자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한동안 폭 빠져 있다가 다시 화련역에서 열차를 타고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숙소에 도착하니 밤10시가 넘어있었다.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이 쓰러져 잠에 들고 일어나 보니 탐방의 마지막 날에 와있었다. 그동안 대만에 머물렀던 내 마음도 짐과 함께 꾸리고 아쉽지만 버스에 올랐다.

한국의 청와대와 같은 총통부 건물은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에 총독부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었는데, 현재는 대만 총통이 기거하며 집무를 보는 장소라고 한다. 아픈 과거의 역사이고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총독부 건물에서 현재의 대만정치와 행정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니 아이러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텐데 말이다.

탐방의 대미를 장식한 곳은 오늘날의 대만을 있게 한 장개석 총통이 사망한 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축한 대만 민주 기념관이었다. 1층은 자동차, 가족들의 사진, 문서, 집무실 등 장계석의 생애와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고, 2층에는 그의 동상을 여러 명의 근위병들이 부동자세로 지키고 있었다. 기념관을 돌아보며 가이드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중국과 대만의 근현대사를 처음 접하기도 했다. 이제 그는 높이 70m 동상으로 우리 곁에 있지만 지금도 대만 시내를 바라보며 논리, 민주, 과학으로써 중국과의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하이, 대만 음원차트 1위 ‘괴물 신인’의 저력”

방에 들어와 컴퓨터를 보는데 인터넷 기사 제목이 눈에 띈다. 지금도 서문정 거리에는 우리나라 가요가 울려 퍼지고 날씨는 비가 오락가락하며 찌는 듯 무더울 것이고 총렬사의 병사들은 정해진 시각에 위병교대식을 할 것이며, 아침과 저녁 출퇴근길에는 오토바이 행렬이 도로 위에 길게 늘어선 있을 것이다.

탐방을 다녀오고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만에서의 3박 4일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사진을 보며 다시 그 때로 돌아가기를 여러 번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만면에 미소가 지어진다. 이렇게 소중한게 느껴지는 것은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고충을 겪는 문화원 직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누군가 대만에 대해 물어본다면, 4일 동안 동료직원들과 함께 한 추억, 그곳의 유적지와 거리들, 느끼하지만 맛있게 먹었던 음식과 열대 과일들 그리고 달콤하고 청량한 이 바나나맥주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다.

영원한 청년! 월남(月南) 이상재 선생

본관은 한산(韓山), 호는 월남(月南), 1850.10.26~1927.3.29)이며 본명은 계호(季皓)이다.



충남 서천군에서 출생한 영원한 청년 월남(月南) 이상재 선생은 종교가·정치가로 일찍이 기독교에 입교하여 신앙운동을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우고자 노력했다. 고종 18년(1881)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와 고종 25년(1888) 전권대신 박정양을 수행하여 주미공사 서기로 부임했다. 미국에 다녀온 뒤, 신문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광무 2년(1898)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1927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단일 전선을 결성하여 일본과 투쟁할 것을 목표로 신간회를 조직할 때, 창립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저서로 논문집 「청년이여」, 「청년위국가지기초」 등이 있다.

이상재 선생은 일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물신장려운동과 절제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셨고 강직한 성품과 신념, 그리고 민족을 하나로 아우르는 따뜻한 동포애를 통해 당시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길을 밝게 열어 주는 등불이 되어 독립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세계열강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려고 각축을 벌이던 구한말 독립협회 활동과 YMCA운동을 통해서 민족을 계몽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선 우리민족의 선각자이자 스승이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연보

- 1850년 10월 26일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중지리에서 아버지 희택과 어머니 밀양박씨의 맏아들로 출생. 목은 이색의 16대손
- 1887년 1등 서기관으로 워싱턴D.C에서 근무했으나 청나라의 압력으로 이듬해 사신들과 함께 귀국
- 1896년 7월 2일 서재필, 윤치호 등과 독립협회 창립하고 독립신문과 독립관을 각각 건립
- 1898년 2월 23일 자주독립수호의 구국운동선언 상소를 독립협회를 대표하여 작성, 정부(고종)에 현의 6조 제출하자 고종이 수락 후 중추원을 개정하여 관제 발표
- 동년 3월 10일 대중계몽집회인 만민공동회 개최, 만민공동회 의장으로 활동
-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인해 그의 아들(승인)과 함께 구금되어 두 달 동안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감옥에 갇힘
- 1903년 옥고를 치르는 동안 기독교서적과 성경을 읽게 되었으며 54세에 기독교 신자가 됨
-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자 일본 규탄하는 민중시위 주도함
- 1910년 제1회 전국 기독교학생회 하령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학생운동을 일으킴
- 1913년 YMCA 총무로 취임. "105인사건"으로 YMCA를 일제에 예속시키려는 계획 저지
- 1914년 조선중앙 YMCA를 비롯 10개 YMCA를 규합하여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 조직
- 1918년 일제의 무단정치 하에서 비밀리에 기독교,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과 만나며 3·1 독립운동을 배후에서 도움
- 1920년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 회장.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고문으로 추대
- 1924년 연합 소년척후단(지금의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초대총재로 추대, 물산장려운동, 절제운동, 지방전도운동, 창문사운동 등을 진두지휘. 9월 조선일보사 사장으로 취임
- 1927년 2월 15일 민족적 단결을 목표로 하는 민족단일전선 신간회의 회장으로 추대
- 1927년 3월 29일 78세를 일기로 별세
- 1927년 4월 7일 한국 최초의 사회장으로 모심



충청남도 기념물 제84호

이상재 선생 생가지. 조선 후기 사회 운동가인 월남(月南) 이상재 선생의 생가가 있던 자리이다.

서천군 한산면 중지리 263번지에 위치한 선생의 생가는 안채와 사랑채가 있는 초가집으로 앞면 4칸·옆면 2칸 규모이며 대문은 솟을대문을 두었다.

안채는 1800년경에, 사랑채는 1926년경에 지었다고 하나 원래 건물은 1955년 훼손돼 유실되었다. 이에 1972년,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복원돼 1990년 충청남도기념물 제84호로 지정되었으며 2007~2011년 총 30억3천만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9천740㎡, 건물면적241㎡ 규모로 생가 5채와 유물전시관 전시시설이 개축됐고 주변에 쉼터 등 편의시설 4채가 조성됐다.

이상재 선생 생가지는 중부지방의 전통적 농가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전면 지붕의 길이가 후면보다 길게 만들어졌고,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 짓는 내외담이 없이 안채가 흰색 개방된 구조가 특징적이다.

생가지의 의미

이상재 선생 생가지는 선생이 이희택씨와 밀양박씨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유아시절부터 청년시절을 보내며 살았던 곳이다.

15세 때 부인 강릉유씨와 결혼한 후 함께 신혼을 보냈으며, 선생이 18세 때 집을 떠난 후에도 부인 강릉유씨는 이 곳에서 승륜·승인·승간·승준 등 아이들을 낳으며 이상재 선생의 뒷바라지를 했었다. 특히 이 곳은 선생이 조선이란 나라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개화자강의 기개와 일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키워왔던 소중한 곳이기에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유물 전시관

민족의식 고취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그리고 언론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온 몸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이상재 선생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유물 전시관에는 서적 132점, 임명장 6점 등 이상재 선생이 생전에 사용하셨던 총244점의 유물이 보존되어 전시되고 있다.



자료제공 : 서천문화원

忠·孝·禮·義·文을 고루 갖춘 맹사성(孟思誠)

〈1360(고려 공민왕 9년) ~ 1438(세종 20년)〉



맹사성 영정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명재상·청백리(淸白吏)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관은 신창(新昌)이고 신창 맹씨 증시조인 이부전서(典書) 의(義)의 증손이고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낸 두문동 72현 유(裕)의 손자이다. 신창 맹씨 온양 입향조로서 고려 말에 수문전제학(修文殿提學)을 지낸 희도(希道)와 어머니 흥양(興陽) 조(趙)씨의 만아들이며 최영(崔瑩)의 손녀 사위이다. 자는 자명(自明) 호는 고불(古佛)이다.

그는 개경(개성)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아버지 희도가 과거 공부를 하던 중 어머니가 태양을 삼키는 태몽을 꾸고 잉태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인근에 살던 고려 말의 명장 최영(崔瑩)이 낮잠을 자다가 용이 배나무를 타고 승천하려고 하는 꿈을 꾸다 깨어 마침 그 배나무에 올라가 있던 다섯 살의 사성을 봤고, 그가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겨 할아버지 유(裕)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인연이 시작되어 최영의 손녀 사위가 되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그가 10세 때 극진히 간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뜨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촌(陽村) 권근(權近)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에 진력하여 생진과(生進科)를 통과하고 27세 되던 1386년(우왕 12)에 문과 전시에 장원급제하였다. 그는 춘추관 검열을 시작으로 사인·우헌납 등의 벼슬을 역임하다가 할아버지 유(裕)가 두문동에서 순절하자 아버지 희도와 함께 서천 한산으로 내려와 은거하였다.

그 후 정국이 안정되자 현실을 인정하고 왕의 부름과 아버지의 권유로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예조의랑·좌부대언·이조참의 등을 거쳐 1407년(태종 7)에 예문관제학으로 세자 양녕대군의 스승이 되었고 진표사(進表使) 양녕대군의 시종관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다음해(1408) 한성부윤 겸 세자우부빈객이 되고 이어서 대사헌에 올랐으나 태종의 부마인 조대립(趙大臨)의 음모를 물어 심문한 죄로 서천 한산으로 유배되었다. 1416년(태종 16) 이조참판으로 복직하여 예조판서가 되었으며 1417년 생원시의 시관(試官)과 왕이 친림한 문과 북시의 독권관(讀卷官)이 되었다. 이어 호조판서가 되었다가 부친의 간병을 위해 잠시 충청도 관찰사로 제수되었다. 이후 공조·이조판서·예문관제학·의정부찬성사를 역임했다. 1425년(세종 7) 좌군도총제부판사(左軍都總制府判事)로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문신으로는 처음으로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가 되었으며 1427년에 우의정에 올랐다. 1429년(세종 11) 그가 70세가 되자 왕이 궤장(几杖)을 하사했다. 이듬해에 《태종실록(太宗實錄)》을 감수했고 1431년(세종 13) 마침내 좌의정에 올라 춘추관영사(春秋館領事)를 겸임하면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를 찬진(撰進)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1435년(세종 17)에 고령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에 관한 의미 있는 일화가 많이 전한다. 검은 소를 타고 다녔고 피리를 즐겨 불었으며 그가 불던 옥저(옥적)가 지금도 전해진다. 온양을 오갈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한 수령이 놀라 관인(官印)을 못에 빠뜨렸다는 인침연(印沈淵) 일화, 공당 문답 일화, 그가 살던 집에 빗물이 새었다는 얘기 등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태종실록을 편찬한 뒤 세종이 보고 싶어 하자 '실록은 모두 당세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므로 임금께서 만약 한 번 읽어 보신다면 사관이 두려워서 그 직분을 다할 수 없으니 어찌 실록을 장래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왕이 그 말에 따랐다는 일은 그의 올곧은 품성을 말해준다. 그는 문화 예술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법전인 《육전수찬(六典修撰)》, 지리서인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역사서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에 함께 하였다. 또한 태종 때부터 이미 관습도감 제조를 맡았으며 세종 때까지 음악을 정비하고 악공을 교육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또한 교과서에도 실린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를 포함하여 여러 시편이 전해진다.

그가 조선의 대표적인 청백리임은 잘 알려져 있고 효자로도 유명하다. 10세에 모친상을 당하여 7일간 물과 장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전해질 만큼 3년 동안 눈물로 애통해하였다. 무덤 앞에 있던 잣나무가 산돼지로 인해 죽게 되자 이를 보고 3일 동안 통곡하니 호랑이가 와서 그 산돼지를 물어 죽였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해서도 한결같이 하였다고 한다. 이미 1399년(정종 1)에 생정(生旌-생정려)이 내려졌으며 그의 효행 사실은 아버지 희도의 효행과 함께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수록되어 전해진다.

1438년(세종 20)에 79세로 그가 세상을 뜨자 왕(세종)이 슬퍼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거애(擧哀)

하고, 조회를 정지시키고 관(官)에서 장사를 치러주게 했다. 그의 묘는 경기도 광주시 직동에 있고, 경기도 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다. 온양으로 운구하던 중 명정(銘旌)이 바람에 날아간 곳이 사패지(賜牌之地)로 정해졌다고 하며 그가 타고 다니던 검은 소도 그가 죽자 스스로 굶어 죽어 그의 묘 아래에 무덤을 만들고 '흑기총(黑麒冢)'이라 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니, '충신접예왈문(忠臣接禮曰文)' 청백수절왈정(清白修節曰貞)'이라 하였다. 국가지정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행단'과 중요민속자료 제225호 '전세맹고불 유물', 삼상당(구괴정), 효자비 등 그와 관련된 유물과 유적이 아산시 배방면 중리에 남아 있다.



구괴정

이 정각은 조선시대 명상이신 고불(古佛) 맹사성(孟思誠) 정승이 방촌 황희, 독수와, 권진 정승이 함께 느티나무 세그루씩 모두 아홉그루를 심어 구괴정이라 명명한 정각으로 일명 삼상당(三相堂)이라고도 한다.

자료제공 : 온양문화원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홍대용 화보



홍대용 초상

약력(略歷)

- 1731년 출생(出生)
- 1765년 서장관(書狀官)의 군관(軍官)으로 연행(燕行)
- 1767년 삼년간(三年間) 와병(臥病)
- 1774년 용관(龍官)으로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 세손익위사(世孫翼衛司) 시직(侍直)이 됨.
- 1777년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됨.
- 1778년 태인현감(泰仁縣監)이 됨.
- 1780년 영천군수(榮川郡守)가 됨.
- 1783년 영천군수(榮川郡守) 사임(辭任). 별세.

저서(著書) <담헌서(湛軒書)> <윤병(乙丙)연행록>

홍대용(洪大容) 선생의 호는 담헌(湛軒)입니다. 1731년 공신(靖社功臣)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담헌은 소년 시절부터 석실서원에 입문하여, 당대의 유학자 김원행(金元行)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학(修學)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유학자들과는 달리 그는 군국경제(軍國經濟)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관련한 학문에 열중하였습니다. 홍대용 선생은 벌써 실학(實學)이 실용의 학문임을 자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담헌은 35세 되던 해에 연행사(燕行使)의 서장관으로 임명된 작은아버지 억(億)의 수행관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져 연행(燕行)의 길에 올랐습니다.

60일 동안 북경에 머물면서 2가지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사귀게 된 항저우 출신의 중국학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친교를 맺은 중국학자들과는 먼 훗날까지도 교환하는 등 갈수록 친애함이 두터웠으며 발전하는 청의 문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북경에 머물고 있던 선교사들을 찾아가 서양문물을 구경하고 필담을 나눈 것입니다.

과학사상을 담은 《의산문답 醫山問答》 역시 북경 여행을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의무려산(醫巫閭山)에 숨어 사는 실옹(實翁)과 조선의 학자 허자(虛子) 사이에 대화체로 쓰인 이 글은 그가 북경 방문길에 들른 의무려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헌은 박학다재(博學多才)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실용

(實用), 실증(實證), 실사(實查)를 중시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첫째, 그가 실학자로서 남긴 새로운 큰 주장은 지전설(地轉說)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담헌이 최초로 주장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둘째, 중국과 조선 또는 서양까지를 상대화하여 어느 쪽이 화(華)이고, 어느 쪽이 이(夷)일 수 없다고 중국 중심적인 화이론(華夷論)을 부정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어느 쪽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과거의 인본적(人本的)인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똑같은 것으로 상대화하였습니다. 셋째, 그는 당시 사회의 계급과 신분적 차별에 반대하고, 교육의 기회는 균등히 부여되어야 하며, 재능과 학식에 따라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헌은 세손을 보필하는 세손익위사(世孫翼衛司)의 시직(侍直)으로 있으면서 세손의 경륜(經綸)과 학덕에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담헌이 영천군수로 있을 때에는 노령의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사임을 하고 상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중풍으로 타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업적은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천문연구원은 소행성의 고유명칭으로 헌정했던 홍대용 영문이름을 국제천문연맹 산하 소행성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행성 홍대용은 일반인이 관측할 수는 없지만 인류 역사와 함께 홍대용이란 이름을 가지고 저 우주전역에서 반짝일 것입니다.

자료제공 :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임시정부를 이끈 독립운동가

석오 이동녕(李東寧)



석오(石吾) 이동녕은 천안시 목천읍 동리에서 1869년 2월 17일에 태어났다. 석오 이동녕은 7세의 어린 이 답지 않게 총명하고 출중하다는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22세 되던 1892년에 응제진사시에 급제하였고 2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다. 석오 이동녕이 36세 되던 해부터는 열강의 침략정책이 점점 노골화되어갔다. 그중에도 특히 우리 국토를 병탄하려는 일본의 야심은 더욱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1904년에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은 일본의 그러한 음흉한 기도가 표면화된 것이라고 하겠다.

석오 이동녕은 기울어져가는 조국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조국이 없는 백성은 노예에 불과함을 절감하면서 분기하여 서울에 올라왔다. 그는 우선 상동청년회에 가입했다. 상동청년회는 상동교회의 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김진호, 양기탁, 이회영, 이시영, 김구, 이광 등이 결속한 국민계몽단체였다.

그 이듬해 일본의 이토오히로부미는 이완용을 회유하여 강제적인 을사늑약을 하니 외교권마저 빼앗긴 한국은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 왕조에 불과했다. 석

오 이동녕은 이에 분개하여 상동청년회원들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하고 대한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며 늑약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기마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해



산시키려 했지만 결사대는 버티면서 해산할 줄 몰랐다. 드디어 기마대들은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여 닥치는 대로 체포, 투옥하는 것이었다. 이때 석오 이동녕도 감옥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고 얼마 후에 석방되었다.

석오 이동녕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실효가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외국으로 망명의 길을 택하여 안창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또 투쟁에 의한 독립쟁취도 필요하지만 먼저 나라를 바로 잡고 이를 이끌어 나갈 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를 기르면서 자유로운 독립운동을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간도를 활동무대로 정한 뒤 이상설을 수반으로 하여 동지 여준, 황공달, 정순만, 박무림 등과 함께 용정에서 서전의숙을 세웠으니 이것이 북간도 최초의 한국인 학교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순탄한 교육사업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당시 북간도의 여러 교포들은 교육에 대한 가치인식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던 데다가 모두 가난한 빈농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석오 이동녕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때로는 동포들의 집집마다 방문하여 서전의숙의 설립 목적과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자제들을 취학시킬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 서전의숙은 완전 무상교육이었다. 책과 의식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학생수는 60명 안팎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석오 이동녕은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 사업을 이어갔다.

1907년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세계평화회의에 동지 이상설이 고종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이준과 함께 떠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전의숙의 경영비 잔액 전부를 가지고 가야 했으므로 학교는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석오 이동녕은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여준, 황공달과 함께 서울에 왔다. 서울에는 수많은 동지들과 일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 미국에서 돌아와 있던 안창호와 손을 잡고 이갑, 진덕기, 양기탁, 안태국, 이동휘, 조성환, 신채호, 노백진 등을 규합하여 신민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신민회의 활동상을 보면 평양에 대성학교,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고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평양 태극서관, 대구 태극서관, 경성 태극서관을 만들어 계몽, 지도하고 서적출판과 독립운동 연락기관으로 삼았다. 점차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여 유일무이한 민족지도기관으로 삼으려고 했으며 자금조달과 산업진흥을 도모하여 평양 마산동에 자기회사를 건립하는 등 실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1907년 통분의 정미칠조약이 체결되었다. 발표된 조약문을 읽은 석오 이동녕은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를 본 석오 이동녕은 다시 고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지들과 의논하여 외국으로 나가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1908년에 이시영, 주진수, 장유순 그리고 석오 이동녕 등의 일행이 먼저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물색

하기 위하여 간도를 살살이 살피고 돌아왔다. 1909년 그들은 간도답사보고를 근거로 하여 서울의 양기탁, 주진수, 김도희, 김구 등 신민회 간부진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활동기지 선택과 군관학교 설치를 의결하고 자금모집을 분담했다.

1910년 봄에 그들을 황무지의 개간에 착수하는 한편 그곳의 거주 교포들을 총망라하여 거류민의 자치관으로 경학사를 설치하고 부속기관인 신흥강습소를 두어 청소년교육을 담당하게 하니 이것이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었다. 석오 이동녕은 신흥강습소의 초대소장이 되어 불철주야 교육 사업에 분투했다.

105인 사건으로 동지들과 헤어진 석오 이동녕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동지 이상설을 찾아갔다. 이상설은 헤이그밀사 사건 이후 이곳에 와 있었다. 그를 만나서 앞으로의 진로와 독립운동에 대한 방법을 의논할 예정으로 이곳에 온 것이다.

그를 반갑게 맞은 이상설은 앉자마자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 시베리아 총독으로부터 한국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군관학교 설립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이었다. 다만 무기 공급만은 곤란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그것을 구입하도록 주선했다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석오 이동녕과 이상설은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감격해 했다. 즉시 그들은 사방에 흩어진 동지들을 불러 들였다. 북만주와 남만주, 상해와 본국에서 동지들이 모여들었다. 10만원 자금은 거부 이용익의 손자였던 이종호에게 교섭하기로 했다. 자금 교섭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느날 하바로프스크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받아든 그들은 대경실색했다. 그들이 극비밀리에 진행하던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이종호의 배신행위였던 것이다.

며칠 후에 이상설은 시베리아 총독으로부터 군관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 지사들의 신변조차 불안하리라는 연락을 받았다. 석오 이동녕과 이상설 등 독립운동 지사들은 미처 피신도 하기 전에 러시아국관현에게 감금되어 또다시 일은 좌절되고 그들은 쓰라린 실의의 나날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1912년 3월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길로 석오 이동녕은 한국교포들을 중심으로 권업회를 창설하고 해조신문을 발간하는 등 다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또 하나의 비운이 그를 맞았다. 동지 이상설이 극도의 상심 끝에 병을 얻어 순국한 것이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동지들도 각지로 흩어져 나갔고 마침내는 석오 이동녕도 떠나기로 했다.

러시아를 떠난 석오 이동녕은 상해로 왔다. 임시정부 수립의 기운이 성숙하고 있었던 그곳에는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어오고 있었다. 1919년 4월 11일 각 도대표 30여명이 프랑스 조계에 모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장 10개조를 결의, 선포했으며 17일에는 관제와 각료명단을 발표했다. 이때 의장은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그 외 외무총장, 법무총장, 재무총장, 군무총장, 교통총장 등을 선임하고 4월 18일에는 임시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이어 9월에는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국무총리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석오 이동녕은 내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음을 알고 총리서리만 임명하고 미국으로 떠나 버리니 석오 이동녕은 이승만의 독선과 고집에 실망하였다. 하지만 임정을 버리거나 항일 독립운동을 포기할 수 없어서 동지들과 함께 임정을 계속 이끌어 나갔다.

1937년 일본은 드디어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해안지방과 도시를 점령해 나가니 대한임시정부도 상해에서 강소성 진강으로 다시 사천성 중경으로 옮기며 항일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갔다. 이러던 중 석오 이동녕은 1940년 3월 13일 급성폐렴으로 조국의 독립을 못본 채 한을 품고 이역만리 중국 기강에서 서거하시니 이때 그의 나이 72세였다.

서거후 임시정부 국장으로 모셨고, 광복후 김구의 주선으로 유해를 봉환하여, 사회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하여 오늘에 이른다. 유언으로 민족진영의 대동단결과 광복운동의 일원화를 남기셨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

자료제공 : 천안시서북구문화원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文讓穆) 선생



우운 문양목 선생 존영

단군이 나실 때 탄생한 조선이요,
 기자가 건너온 후 장성한 조선이라.
 조선하 네 아무리 나를 버리려 한들
 빼꼼마다 감겨있는 깊은 정을 차마 어이.

위 시는 1911년 4월 26일 문양목 선생이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의 기관지인 신한민보에 발표한 애국시 조선혼(朝鮮魂)이다.

선생은 1869년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268번지에서 부친 문상도씨와 순흥 안씨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한학에 출중했던 선생은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중 1894년 동학 농민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의 부패함을 개탄하며 동학혁명군으로 적극 활약했다.

2차 농민전쟁 시기였던 1894년 11월 관군에 체포되어 처형 직전 친지의 도움으로 탈출하였다. 인천으로 피신한 선생은 부두노동자와 서당 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국내에서 활동에 제약이 컸던 선생은 국권회복의 길을 찾아 사탕수수근로자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활동하던 선생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동학접주 출신 백일교와 대동교육회의의 장경, 방사검 등과 1907년 3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대동보국회를 결성했다.

1907년 10월 선생은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 중앙회장 선임과 동시에 기관지 대동공보사의 사장 겸 발행인을 겸직했다. 대동보국회 회장으로 미국 내 5개의 지방회를 설립했고, 대동공보를 통

해 국권회복을 고취시키는 등 강력한 항일 운동을 펼쳤다.

1908년 3월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인 미국인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을사조약은 한국민을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이며 한국민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이라고 망언을 했다. 이에 문양목 선생의 대동보국회와 안창호 선생의 공립협회는 공동회를 개최하고 스티븐스 망언에 대책을 강구하면서 스티븐스에게 정정과 해명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생 등 4명의 결사대를 구성해 스티븐스를 처단기로 결의하고 격론과 구타를 감행했다. 1908년 3월 23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스티븐스는 워싱턴으로 탈출하기 위해 오클랜드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순간 전명운, 장인환 두 의사의 저격에 절명했다. 이후 선생은 저격에 가담했던 의사들의 재판 후원 및 경비조달, 변호사 교섭 등을 담당하면서 독립 재판으로 이끌어 냈다. 당시 스티븐스 사건은 국내에서 벌어지던 의병전쟁을 독립전쟁으로 이끌어내는 단초가 됐다.

1908년 7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인단체의 단결을 목적으로 애국동지회를 개최하면서 선생은 한인군사학교의 설립을 발의했다. 한인군사학교는 해외한인단체들의 통일기관을 조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1909년 박용만이 네브라스카에 소년병학교를 설립하자 <미재(美在) 소년병 학교>란 글을 써서 학생들의 입교를 권유하는 등 사관양성을 통한 항일 무장투쟁론을 적극 지지했다. 이 소년병 학교는 한국 최초의 독립군 사관학교였다.

1910년 2월 10일 문양목 선생이 활동하던 대동보국회는 미주한인의 최고 통일 기관이던 대한인국민회에 통합되어 선생은 초대총무로 헌장 제정 등의 초기 기틀을 마련하였다.

1911년에는 대한인국민회 제2대 중앙회장에 피선되어 기관지 공립신보의 발행인을 겸하면서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박용만의 <군인수지>, <국민 개명설> 등을 출판하였다. 또한 한인신문과 중국 신문에 일본의 야만 정책을 성토했다는 글을 투고하는 한편 군인 양성운동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할 것을 설파하였다. 1911년 6월에는 대한인국민회를 임시정부로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무금 제도를 실시했다. 국민의무금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근대식 국민 국가를 모방한 제도로 현재의 국세에 해당되는 조세 제도였다.

1918년 11월에는 대한인국민회 대표로 파리평화회의에 안창호 선생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3·1 운동 직후 선생은 맨타카지역에 국어학교를 개설하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인 2세들에게 국어와 역사를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940년 12월 25일 뇌졸중이 재발하여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으며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보훈처와 독립기념관에서는 2004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으며 2010년에는 선생의 생가지가 충남도문화재로 등록됐다.

자료제공 : 태안문화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의당집터다지기

이걸재
공주문화원 부원장



의당집터다지기는 공주시 의당면에서 전통의 목조 주택을 지을 때 행해진 민속입니다. 생성의 과정이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주춧돌을 놓아 기둥을 세우는 방법으로 건축하면서부터 시작된 민속이라 할 것입니다. 주택의 본체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속건물의 신축에도 주춧돌을 놓는 모든 건물에 행하였으니 집을 짓는 것과 집터다지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부터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15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실 중심

의 역사 기록에 이런 내역은 민속 중 아주 많은 것이며 명칭이 호야성인데 일을 하기 위해 힘을 쓰며 부르는 후렴 '에헤, 어허, 애해' 등의 소리가 민속의 중심이었음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1. 집터다지기의 보편성

우리 민족의 전통, 목조, 온돌 구조의 건축은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건축 양식으로 인해 집터다지기가 필수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다져지지 않은 터에 집을 지으면 집의 무게로 인하여 땅이 가라앉고 그 정도의 차이가 나면 집이 기울거나 무너지기 때문이며 온돌로 난방을 하는 건축양식으로 인하여 집을 지을 때는 모든 면적을 고루 잘 다져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집터다지기>는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집을 짓는 구조, 마을의 인적 자연적으로 인해 방법과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고장에서 집터를 다졌고 다지는 현장에서는 노래와 민속이 함께하였습니다. 더구나 전국 어디서나 집터다지기는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행하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모두 참가하여 무료 봉사했고 부귀빈천(富貴貧賤)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일생의 큰일이기에 집터다지기를 무료 봉사 하는 것을 함께 사는 기풍의 상징으로 삼았기에 무료 봉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즉 의무였던 것입니다.

2. 의당집터다지기의 특이성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던 민속인데 유독 의당면의 집터다지기만 무형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속의 지역적 특성이 잘 살아 있고 노래말의 의미나 노래의 구조가 보존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노랫말의 내용이 참으로 좋습니다.

일노래로서의 집터다지는 소리는 선소리가 대부분 즉흥적이며 민요를 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당집터다지는 소리는 땅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명기 부르는 소리>, 집터가 좋고 칭송하는 <집터 칭송하는 소리>, 일꾼들의 사기를 북돋우거나 행동을 지시하는 <일꾼 다루는 소리>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명기 부르는 소리>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치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운을 백두산, 묘향산, 삼각산, 계룡산을 이어 집터로 불러오는데 백두산에서는 단군, 묘향산에서는 고구려, 삼각산은 조선, 계룡산은 백제를 노래하여 백성에게 역사를 구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민속의 구성이 단조롭고 흥겹습니다.

집터다지기 민속은 쉽습니다. 그리고 흥겹습니다. <집터고르기>, <집터다지기 고사>, <아시 다지기>, <휴식의 노래마당>, <주춧다지기>, <뒤풀이 대동마당>으로 이어지는 공연은 보는 것

만으로 모두 이해가 되며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민속입니다.

셋째, 공주만의 독특한 민속이 숨어 있습니다.

고사를 노래로 지냅니다.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듯이 진행되는 지루한 고사마당은 풍장(農樂)을 치면서 노래로 고사를 지내 재미있게 진행되는 마당에 흥이 넘칩니다.

돌을 타는 재주를 부리는 마당이 있습니다. 일명 돌타기로 200Kg에 가까운 무거운 돌을 20-30명의 장정들이 계속 들었다 놓는 힘든 작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돌 타기>입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집터를 다지는 다짐돌 위에서 마치 널을 뛰듯 창공으로 날아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흥겹게 합니다. 이는 아직 공주 외의 곳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습니다.

넷째, 흥겨운 휴식의 마당 연출이 가능합니다.

집터다지기는 작업이 어려워 30~40분에 한 번씩 쉬면서 진행됩니다. 이 마당에서 공주 특유의 민요인 <공주 아리랑>, <공주 창부타령>, <공주 축원소리> 등을 자유롭게 함께 공연하여 흥과 옛스러움을 연출하기 아주 좋은 민속입니다.

3. 발전시켜야 할 무형문화재

사실 의당집터다지기는 1974년부터 1999년까지 한 번도 시연되지 못했습니다. 집터를 사람이 다지지 않고 포크레인을 사용해 터를 다지기 시작했고 시멘트 벽돌로 건축되면서 집터를 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1999년 재현되기 시작하여 세종시 기공식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귀빈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하면서 민속의 흥겨움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부각되면서 의당집터다지기를 재현하기 시작하여 2013년 3월 27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전국에 어디에나 있었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의식주에 해당하는 민속이기 때문에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설명이 필요 없이 흥겨운 민속이며 어디서 시행해도 한국적이라는 점이 의당집터다지기의 가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민속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한국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선정 육성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행해도 한국적 정취가 물씬 배어 있으며 흥겨운 민속, 재미와 정신을 함께 가꾸어 오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제공 : 공주문화원

안섬 풍어제

당진의 풍어굿

당진풍어굿은 조기잡이와 관계가 깊다. 70년대, 정부는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간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서해안의 해류가 바뀌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해방 전까지는 풍성하게 잡히던 조기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저 아래 칠산 어장에서 시작해서 연평도까지 올라오던 조기들은 당진해역의 옆구리를 지나게 되어, 당진지역의 성구미 포구, 내도리 포구, 그리고 한진포구의 파시는 성황을 이루곤 했다.

산업화 이전인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도 조기잡이를 위한 풍어굿은 그렇게 우리 삶의 한가락으로 계속되었으나,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아산만 유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행담도 부근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안섬 당굿의 내력과 의의

안섬당제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연평도 조기잡이가 400년 전 임경업 장군 때도 있었던 것을 볼 때 그 이전부터 안섬의 당산(堂山)에 당진을 지어 놓고 매년 정월 첫 진사(辰巳)날 일몰과 동시에 당제를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섬 마을제의 본래 명칭은 당굿으로, 풍어제는 1993년 이후에 붙은 말로 당굿의 목적에 기초하여 붙은 이름이다. 곧 당굿에서의 주된 기원의 하나가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는 것이기에 당굿이 풍어제로 치환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안섬의 당굿에는 굿의 목적을 담은 축문이 없다. 보살이라 칭해지는 무당이 경문과 치성을 통하여 이를 구연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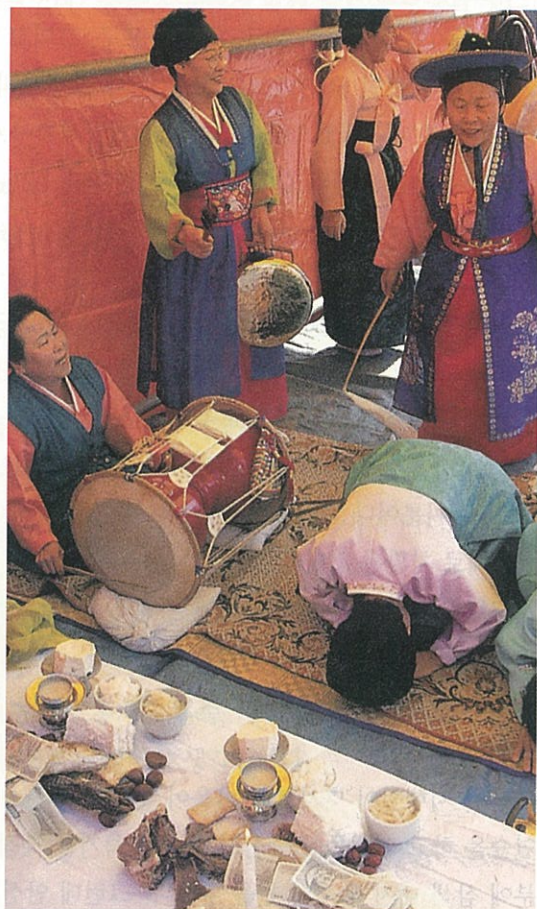
당굿의 진행

당굿 시행일이 다가오면 마을이 분주해진다. 마을의 남성은 풍물을 가지고 소리를 맞추는 등의 연습을 하고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봉죽기를 제작한다. 봉죽기는 긴 통대나무에 가지를 따고 윗부분에 삼색 내지 오색의 천을 달았다. 그런데 안섬 당굿에 사용하는 봉죽기에는 '서리화'가 덧붙었다. 서리화는 예전부터 안섬에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봉죽에 어사화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

고 이 봉죽기에는 주저리를 달았다.

그리고 당주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공동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당곳에 사용할 소를 고른다. 이 소는 한우로 잡털이 섞이지 않아야 하고 교미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한편 당곳 전날의 작업으로 장승목을 베는 작업이 수행된다. 베어낸 나무는 장승의 크기에 맞추어 토막을 내어 마을로 운반한다. 이렇게 운반해온 나무로 장승을 제작하는데 장승은 남녀 각 3쌍으로 6기이다. 남성은 머리에 탕건을 쓴 형태로 제작하고 여자는 쪽진 머리형으로 각을 한다. 남성의 경우에 장승의 오른쪽에 팔을 달아서 칼을 쥐어놓는데 이처럼 장승이 칼을 들고 있는 예는 전국적으로 희귀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제작된 장승은 당곳 전날 동·서·남쪽의 마을 입구 길가에 세운다.



안섬 풍어제

기의 제작이 끝나면 자신이 제작한 각각의 기를 자신의 집 앞마당에 세운다. 그리고 당곳 하루 전날 기를 가져다 당주집에 세운다. 이어 당일 점심 무렵 무당이 원만한 진행을 기원하는 간단한 치성을 드리고 풍장패는 치성과 동시에 풍물을 울리며 축제의 흥을 돋운다. 이 후 당주와 무당, 선주들이 뱃기를 들고 당신으로 향한다. 당주와 보살이 선두에 서고 그 주위에 풍물패가 풍장을 치며 따른다. 그리고 뱃기가 따르는데 뱃기는 각각의 서열이 있어서 반드시 그 순서를 지키며 행진한다. 일행은 당산 전면에 도착하여 입구에 잠시 멈추어 놓여진 상 앞에서 무당이 상 앞에서 부정풍이를 한다. 이 후 뱃기를 든 마을 사람들이 피워놓은 술불을 뛰어넘어 당(堂)의 마당으로 들어가 기를 나란히 세워놓는다.

당에 도착하면 바로 제의를 진행한다. 먼저 제물을 진설하고 당주가 술을 따른 후 각각의 당에 한 차례씩 재배하고 물러나오면 선주들이 차례로 들어가 재배한다. 선주들의 재배가 끝나면 무당이 굿을 한자리하고 소지를 올린다.

저녁식사 후 무당들에 의해 굿이 올려진다. 굿은 부정굿으로부터 시작하여 본당굿·대동굿·어망굿을 한다. 이어 마을 사람들이 소지를 올려준다. 굿의 마감은 오방굿이다. 동서남북 중앙 오방의 행불행에 관여하는 오방신을 대상으로 마을 사람들의 무사 안녕과 발복을 소망한다. 이렇게 지속된 당굿은 자정을 넘어 끝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녘이 되어야 끝난다.

당주는 이른 아침에 당에 올라가 굿 치른 음식을 골고루 나눈다. 이어서 무당이 뱃기에 공수를 내리는 과정이 펼쳐진다. 모든 기가 공수 받고 나면 당으로부터 해안가로 내려와 일렬로 늘어선다. 당주 등이 징을 치거나 ‘땡’ 하고 외치면 각각의 선주들이 자신의 기를 가지고 달려가 기를 세고 선주와 가족들은 배 안에서 고사를 지낸다. 이로써 본격적인 당곳의 전개가 갈무리된다.

자료제공 : 당진문화원

12간 돌다리 밟기 유래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9호



‘한내 12간 돌다리 밟기’의 유래를 개괄적으로 말한다면 거금 500여 년 전 조선조 세조 4년(서기 1450년)경에 대천리(한내) 주변 각 동리 거주 주민들이 대천천(넋가)을 건너다니는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 막대한 경제력과 인력을 들여 돌다리를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천시장(한내장)은 그 크기만 해도 인근 3, 4개 군 중에서도 가장 큰 장(5일장)이 형성되어 왔고 입지조건으로 보더라도 남쪽으로는 서천, 비인, 부여, 홍산, 웅천, 미산, 남포 북쪽으로는 청양, 화성, 광천, 홍성, 예산 그리고 우리 보령 땅 각 면에서 장에 오고가는 장꾼들 또는 전라도 방면에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는 선비, 북쪽으로 향하는 과객 장돌림 보부상 장꾼들의 관문 역할을 하여온 돌다리인데 이곳 돌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다른 곳을 이동 할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한 돌 다리였고, 그 당시는 주민생활에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돌다리인 것이다.

이 돌다리의 돌의 규모 석질은 자화강암이고 총길이 160尺 8寸, 총 칸수 12칸, 1개의 길이 13尺 4寸, 1개의 너비 2尺 1寸, 1개의 두께 1尺 1寸, 중량 합계 30톤, 고임돌 100개 등을 깎아서 다듬은 마석으로 되어 있다.

이 돌 전부가 깎은 돌로 보이거나 군데군데 움푹 파진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당시는 거칠게 깎은 것인데 수 백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행인과 우마차가 지나다니는 바람에 닳아서 마석처럼 반질 반질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출처는 대천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왕대산 돌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 시대는 먼 곳에서 운반해 올 수 있는 기동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왕대산 돌이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다.

왕대산에서 채취하여 왕 사리에 뗏목으로 운반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설치시기는 17세기 이전으로 보이며 양식은 전라도 함평의 고막천 석교와 비슷하다.

1970년대 초기까지 약 20m정도가 남아 있다가 붕괴되어 일부는 하천 석축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1976년 7월 대천읍사무소로 옮겨 보존하다가 1992년 12월 이곳(한내천 고수부지)에 복원하여 매년 돌다리밟기 민속행사를 하다가 2012년부터는 만세보령문화제와 함께 행사를 하게 되었다.

〈노래 - 축원타령〉

축원하세 축원하세 ~ 보령현의 보배다리
한내라 돌다리 ~ 이 돌다리 살펴보세
원근산천에 묻힌 돌 ~ 사목팔목 목꾼들이
하나둘씩 모아놓고 ~ 석수쟁이 불러다가
요모저모 다듬어서 ~ 삼층 돌로 교각 놓고
12달을 상증하여 ~ 12간을 지정하고
7척 길이 화강석을 ~ 대천자로 뚜개하고
보령현의 제일관문 ~ 돌다리를 만들었네
이 다리를 놓은 뒤로 ~ 보령현민 복을 받고
년년이 풍년들고 ~ 질병도 소멸되고
오는 현감 가는 현감 ~ 이 다리를 건너는데
오는 현감 환영하고 ~ 가는 현감 따뜻하게
오고가는 과객선비 ~ 보령인심 풍년일세
앞뜰에는 황금풍년 ~ 밭뜰에는 오곡풍년
1년 농사 잘 지어서 ~ 오곡으로 밥을 지어
교신제를 올리오니 ~ 저의 정성 받으시고
1년 내내 다 가도록 ~ 무사하게 하옵소서

자료제공 : 대천문화원



효암서원

효성이 지극한 강릉정을 알아본 호랑이 이야기

가야곡면 산노리 강릉정과 호랑이

조선 성종 때 일이다. 은진현(오늘날의 논산)에 강릉정이란 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지상에서의 최고의 낙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가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의 괴로움으로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었다. 그래서 그는 장날이면 무엇이든 돈이 될 만한 것을 들고 장터에 꼭꼭 나갔고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구해 와서 부모님이 맛있게 잡수시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 듯 흐뭇해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부모님 가운데서 한 분이 돌아가시자 그는 묘지 앞에 시묘막을 짓고 정성을 다해 시묘살이를 했다. 그러다가 또 한분이 돌아가셨다. 이제는 하늘이 명할 뿐 앞날이 캄캄했다. 그는 역시 시묘막을 짓고 매일같이 곡을 하며 묘를 돌보았다. 추운 겨울날이나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는 여름철에도 그는 시묘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시묘막에서 하는 습관대로 고기냄새나 고기 비린내 하나 풍기지 않았다. 삼 년 동안 고기나 생선을 입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가 변을 보기 위해서 시묘막을 막 나서는데 그의 앞에 갑자기 호랑이가 한 마리가 도사리고 앉아서 강릉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가슴이 섬뜩했다. 그러나 그는 한참 서 있다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기침을 한 번 크게 하자 호랑이도 어떤 일인지 앞으로 두어 발자국 나오더니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변을 보고 올라왔다. 그가 시묘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시묘막 앞에 앉아 있던 호랑이는 한번 으르렁 대더니 아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리를 정하는 것이었다. 호랑이가 나타난 첫날밤에 그는 잠을 못 이루고 뜯 눈으로 밤을 보냈다. 그러다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강릉정효자정려비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호랑이는 크게 한번 으르렁 거리더니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 후 호랑이는 매일 밤 나타났고 이 시묘막에 나타난 호랑이는 어떤 때는 다른 동물들과 싸우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효자인 강릉정의 정성 어린 효심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 봄이 돌아왔다. 꽃이 피고 밤이 이슬하도록 산새들이 울어대는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런데 이날따라 그처럼 강릉자의 시묘막에 나타났던 호랑이가 어떤 일인지 오늘은 밤이 깊도록 나타나지를 않는 게 아닌가.

강릉자는 몹시 궁금했다.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자 그는 은근히 근심이 되어 잠조차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다. 그러다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무슨 불길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새벽녘에 산을 내려오며 호랑이 발자국을 찾아봤다. 먼동이 트기 시작할 즈음 그가 한참 산을 내려오는데 건너편 마을 사람들이 웅기중기 모여서 서성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가까이 가보았다.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땅 밑에 파 놓은 함정을 쫓으며 기꺼워하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 함정 속에는 매일 밤 자기를 찾아오는 호랑이가 빠져있는 게 아닌가. 함정 속에 빠져 있는 호랑이는 강릉자를 보자 으르렁거리던 것을 멈추고 꼬리를 흔들며 아주 기뻐하는 것이었다. 강릉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호랑이는 자기와 시묘막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호랑이라고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호랑이의 목숨을 살려주게 했다. 그 후로도 호랑이는 강릉정이 시묘막에서 내려올 때까지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다. 호랑이와 사이가 더욱 가까워진 강릉자는 이제는 한 가족처럼 호랑이를 아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산 속에서도 외로움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럭저럭 시묘생활을 끝마칠 때가 되었다. 강릉자는 시묘막을 낮에 거두기로 했다. 밤에 내려가면 호랑이와 헤어지는 것이 더 섭섭해서였다. 그가 시묘막을 부수고 난 다음 산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강릉자 역시 너무 슬펐다. 한동안을 호랑이와 같이 이별을 마치고 시묘생활도 끝마친 강릉자는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부모 효도에 정성을 다한 강릉자에게 산신이 도와주었다는 전설이다.

〈위치 : 논산시 가야곡면 함적리〉

자료제공 : 논산문화원

증산성

내기를 좋아한 남매의 나라 지키기

무슨 일이든 내기하기를 좋아하는 남매가 살고 있었다. 백제 말기 신라 군사들과 자주 전쟁이 벌어지던 때였다.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시시각각 마을 가까스로 다가오고 있었다. 남매의 관심사 또한 온통 전쟁에 쏠렸다. 남매는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자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나는 군사가 되어 적군 백 명을 죽이고 올 테니, 그동안 누나는 호랑이 굴이 있는 산에 가서 성을 쌓아.”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은 그 길로 백제 군사들이 신라군과 싸우고 있는 경상도로 달려갔고, 누나는 호랑이 굴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돌을 주워 성을 쌓기 시작했다.

산속 호랑이 굴에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세 마리가 살았는데, 이 남매는 아버지 몰래 산에 다니며 호랑이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어느 날인가는 남매가 토끼를 잡아다 호랑이에게 던져주고, 자기들도 그 옆에서 토끼를 구워먹기도 했다.

누나가 성을 쌓기 시작하자 호랑이들이 나타나 누나를 도왔다. 누나는 하루종일 성을 쌓다가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가 물어도 시치미를 뚝 떴다. 누나는 딱 열흘 만에 성벽을 다 쌓았다. 동생이 돌아올 때쯤 성문을 막을 요량으로 성문돌 하나만 성벽 가까이에 놓고 기다렸다. 그런데 동생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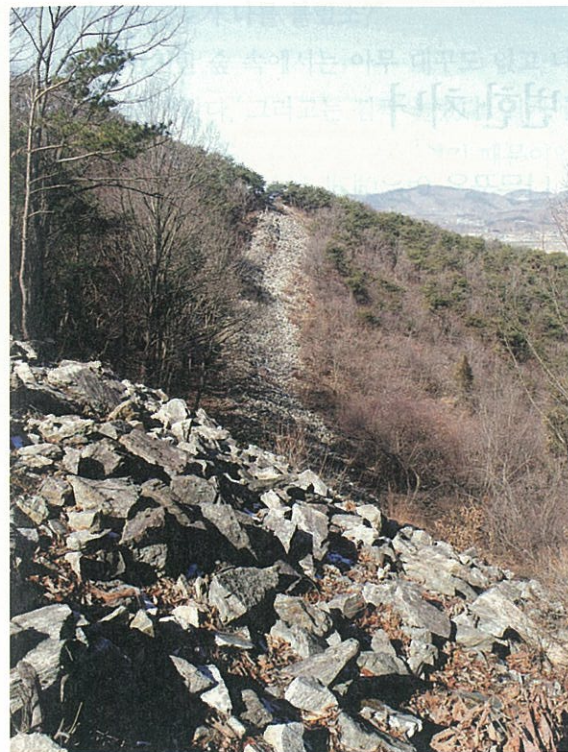
어느 날 밤이었다. 동생이 절룩거리며 애꾸눈이 되어 돌아왔다. 동생이 울먹이며 말했다.

“지금 신라군은 육지로, 당나라군은 강으로 쳐들어오고 있어. 백 명을 죽였지만 결국 막지는 못했어.”

누나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부르르 떨었다.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 동생에게 말했다.

“호랑이로 유인하자. 호랑이를 잡으려고 쫓아오면 놈들을 성으로 유인해서 쳐부수는 거야.”

그들 가까이에 있던 호랑이들도 화답하듯 으르렁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나라군이 배를 타고 북을 치며 강을 거슬러오기 시작했다. 호랑이 네 마리가 나타나 해칠 듯 으르렁대자 당나라 군사들이 화살을 날리며 호랑이들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호랑이들은 당나라 군사를 산으로 유인했다.



산 위에 시루테를 두른 것 같아 시루메산성이라고도 불리는 증산성

호랑이들이 성 안으로 뛰어들자 남매는 성문을 굳게 닫고 성으로 올라오는 당나라 군사들에게 돌을 굴리기 시작했다. 호랑이들도 발로 돌을 굴리며 도왔지만 개미 떼처럼 밀고 올라오는 당나라 군사들을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나라 군사들은 어느새 성벽을 타고 넘어 들어왔다. 성 안에서 혈투가 벌어졌다. 남매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호랑이들도 뛰어다니며 적을 물어 죽였다. 그러나 죽여도 죽여도 계속해서 덤벼드는 당나라 군사들에게 호랑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고, 남매도 힘이 빠져 적들의 칼에 맞았다. 나라를 위해 성벽을 쌓고 죽을 힘을 다해 적을 무찌른 남매와 그들을 도운 호랑이들은 그렇게 죽고 말았다.

지금도 산에 오르면 누나가 내놓은 성문터가 있으며, 그 안쪽으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남매바위’라고 부른다. 남매바위 주변 곳곳에 ‘호랑이바위’라 불리는 바위들이 있다.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와 은산면 신대리·회곡리에 걸쳐 있는 해발 150미터 정도의 산을 ‘성재산’이라 부른다. 이 산의 8부 능선에 백제의 산성인 증산성(龜山城, 사적 제156호)이 있다. 흰 돌을 쌓아 만든 성이 마치 시루를 올려놓고 시루테를 바른 듯하여 ‘시루메산성’이라고도 부른다.

사비 천도 후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추정된다. 둘레는 약 600미터이고 높이는 2~3미터 정도이며, 현재는 성의 남동쪽에 온전한 성벽 일부가 남아 있으나 서북쪽은 모두 허물어진 상태다. 서·남·북쪽에 각각 성문이 있던 흔적이 있으며 동쪽에 우물터가 있다.

자료제공 : 부여문화원

여우로 변한 처녀

그렇게 예쁜 처녀가 여우라니 나무꾼은 여우에게 홀려 죽었다.

너무 예쁜 여자는 경계해야 된다는...

운산면 용현리, 이 용현리 마을을 따라 서쪽으로 쪽 올라가다 보면 한적한 마을 어귀에 자리한 조그마한 산 중턱에는 큼직한 바위가 하나 서 있다. 이 바위는 사람이 꾸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과 흡사해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사람바위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바위 옆으로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길이 나 있는데 길옆에 있는 이 바위는 곧 쓰러질 것 같이 기울어져 있어 이 옆을 지날 때는 바위가 쓰러지거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게 된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아무 쓸모없는 이 바위도 알고 보면 재미있는 전설을 담고 있어 소중하게 느껴진다.

아주 오랜 옛날, 이 용현리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이 나무꾼은 효성스럽고 마음이 너그럽고 또 용감하여 잘못된 일을 보면 기어이 바로 잡고 마는 그런 젊은이였다. 이 청년에게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청년은 나무를 해다 팔아서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다.

“오늘은 산 속 깊이 들어가 나무를 할까?”

나무꾼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산 속 깊이 들어가 나무를 하려고 나뭇지계를 벗어 놓고 잠시 쉬었다. 깊은 산 속에 들어오니 우거진 숲이 상쾌함을 주고 산새 노래도 흥겨워 나무꾼은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얼마쯤 노래를 부르던 청년은 이제 나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부지런히 했다. 산 속에는 나무도 많고 또 기분도 좋아서 금방 한 짐을 해 놓고는,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갈까?”

하면서 담뱃대에 불을 붙여 막 한 모금을 빨아 마시려고 할 때였다.

“도령님. 이리 좀 와 보세요!”

“이리 좀 와 보시라니까요!”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앞의 숲 속에서 누군가가 나무꾼 청년을 부르고 있었다. 나무꾼은 머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기분을 가까스로 참고 용기를 내어,

“게 누구요. 누가 나를 불렀소?”

하고 물었지만 숲 속에서는 아무 대꾸도 없고 나뭇가지만 움직였다. 나무꾼은 이상히 생각하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예쁜 처녀가 긴 머리에 붉은 땀가죽을 길게 늘어뜨리고는 슬픈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 당신은 누구요?”

“.....”

“당신은 누군데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있는 거요?”

“.....”

“답답하구려. 말 좀 하시오.”

그러나 처녀는 나무꾼만 뵈니 쳐다볼 뿐 말이 없었다.

“무슨 어려운 사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나요?”

나무꾼이 거듭 묻자 처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예. 저에게는 지금 딱한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혹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요?”

“그 이유도 내일 말씀드리지요. 내일 밤 보름달이 둥글게 이 산 꼭대기에 떠오를 때 도령께서 이 산 꼭대기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달이 뜰 때?”

“왜 싫으신가요?”

“아니요, 내일 밤 꼭 오리다.”

나무꾼의 말을 들은 처녀는 나무꾼을 다정스럽게 쳐다보고는 산 속으로 사라졌다.

“아니, 저렇게 예쁜 수가 있을까,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온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예쁜 수가 없어!”

나무꾼은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한 동안 멍청이 숲속을 바라보았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무꾼은 허벅지를 꼬집어보았다.

“아야!”

자기가 자기를 꼬집고 아프다고 소리친 나무꾼은 기분이 웬지 흐뭇하여 콧노래를 부르며 나뭇짐을 지고 산을 내려왔다. 다음 날, 나무꾼은 하루 종일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한 시라도 빨리 그 처녀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날따라 날씨는 청명하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밤이

되자 두둥실 보름달이 떠올랐다.

나무꾼은 걸음을 재촉하여 산 속으로 갔다. 숲속을 지날 때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만 더 가면 그 예쁜 처녀가 기다린다 생각하니 무서움은 잠시뿐, 용기와 기쁨만이 넘쳤다. 나무꾼은 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산봉우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그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처녀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나무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무 사이에서 처녀가 나타나며,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세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난 아가씨가 오지 않는가 하고 초조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안 올 수가 있나요.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마워요.”

“고맙긴요. 그런데 어제는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나요.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어디 그 이야기나 들어 볼까요?”

그러자 처녀는 갑자기 “호호호”하고 웃더니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라니요?”

“제가 도령을 속였던 말이에요.”

“속이다니요?”

“나는 이 산에서 사는 여우랍니다. 나는 이곳 산신령에게 내가 살 좋은 자리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네가 사람으로 변하여 착하고 용감한 청년 한 사람을 이곳까지 데려오면 명당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이곳까지 유인해 온 거랍니다.”

하고 다시 “호호호” 웃는 것입니다. 순간 나무꾼은 속은 것이 분하여,

“이 요망한 여우야. 내가 너를 잡아 가겠다!”

호통을 치며 여우를 잡으려 하였지만 여우는 잡힐 듯 달아나는 것이었다. 청년은 여우 뒤를 따라 아무리 쫓아갔지만 처녀 여우는 뒤를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자꾸 도망갔다.

그런 실랑이를 몇 시간 동안이나 했는지 모른다. 밤새도록 산을 뱅뱅 돌며 쫓아다니던 나무꾼이 겨우 처녀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그 순간,

“우르릉! 쿵쿵!”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온 산을 뒤흔들더니 그 처녀는 여우로 변하여 숲속으로 사라지고 그 나무꾼은 그곳에서 그대로 죽고 말았다. 그런데 그 나무꾼이 죽는 순간 나무꾼은 바위로 변했다. 처녀의 치맛자락을 잡으려고 꾸부린 그 모습 그대로 꾸부정한 바위가 된 그 바위를 사람들은 사람바위(人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여우에게 홀리면 죽는대요!”

“암, 여우에게 홀리면 큰일나지!”

“그 여우가 귀신이라는 구먼. 나무꾼도 그 여우 귀신에게 넋을 잃고 죽은 거여.”

“너희들도 산중에서 이쁜 여자 만나면 작대기로 두드려 패라. 홀리면 나무꾼처럼 되는 게여!”

나무꾼의 일로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예쁜 여자는 요사스러우니 조심하라고까지 훈계하게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은 산신령이 여우에게 주었다는 명당자리가 지금도 산 속 어디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자료제공 : 서산문화원

자암 김구선생 관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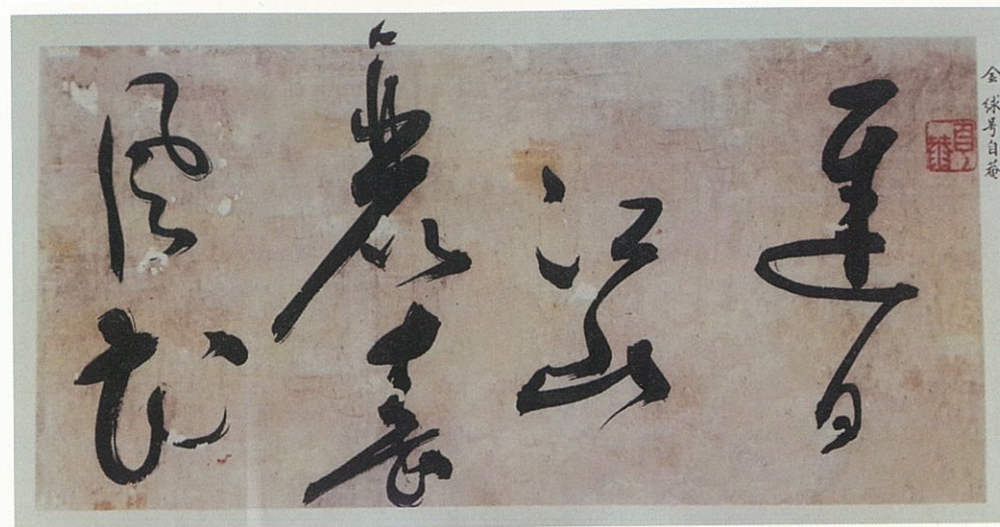


조선위원화초석산수매죽일월연 | 朝鮮渭原花草石山水梅竹日月硯
16세기 초 / 32.5cm×20.7cm×2.5cm

중종(中宗)이 자암선생에게 하사하였다고 전해지는 벼루로 연지(硯池)는 달을, 연당(硯堂)은 해를 표현한 일원연이다. 재질은 평안북도 위원군 압록강 수중에서 채집된 위원화초석(渭原花草石)이다.

벼루의 문양은 당시 사림의 취향이 새겨져 있다. 선비들의 절개를 표현한 매화와 대나무, 솔개에 쫓기는 두 마리의 기러기는 기묘사화에 연루된 긴장된 상황을 잘 표현하였다. 산수운문은 대자연을 동경한 노장사상에 대한 염원을 말하였고, 오리는 자맥질하여 한 마리의 고기를 물고 있다. 두루미 한 쌍은 정답게 즐기고, 외로운 수달은 구경만할 뿐이다. 역시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신선의 귀를 섬세한 선묘로 표현하고, 수달의 손질된 털의 표현기법은 매우 섬세하여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자암 김구 선생이 쓴 두보(杜甫)의 절구(絕句) 2수 가운데 일부로 초서 글씨 8자가 쓰여 있다. 이 큰 글씨의 초서는 힘이 넘치는 필획과 동감(動感)이 커 마치 춤을 추는 듯하며, 양쪽 화면의 글씨 배치와 여백의 효과는 균형과 긴장감을 함께 느끼게 해준다.



지일강산려 | 遲日江山麗
복제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일강산려(遲日江山麗) 나른한 봄날에 강산이 아름답고
춘풍화초향(春風花草香) 봄바람은 꽃향기 싣고 불어오네.
니옹비연자(泥融飛燕子) 진흙이 녹으니 집지으려는 제비들 날아오고
사난수원앙(砂暖睡鴛鴦) 따뜻한 강모래에 원앙 한 쌍 잠들었구나.

자료제공 : 예산문화원

불멸의 애국충절 “강옥상”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42번지, 유서 깊은 칠갑산 자락에 오래된 재실(齋室)이 하나 있다. 지나온 풍상의 역사를 대변이나 해줄 듯 외로이 자리하고 있지만, 오늘은 봄별이 너무 싱그러워 마치 선인의 높고 넓은 품을 직접 대하는 것 같다.

이 온모재의 주인공은 조선 선조 12년(서기 1579년) 무과에 등과한 선무원종공신 사복정 온제(溫濟) 강옥상(姜玉祥) 공이고, 재실 안에는 그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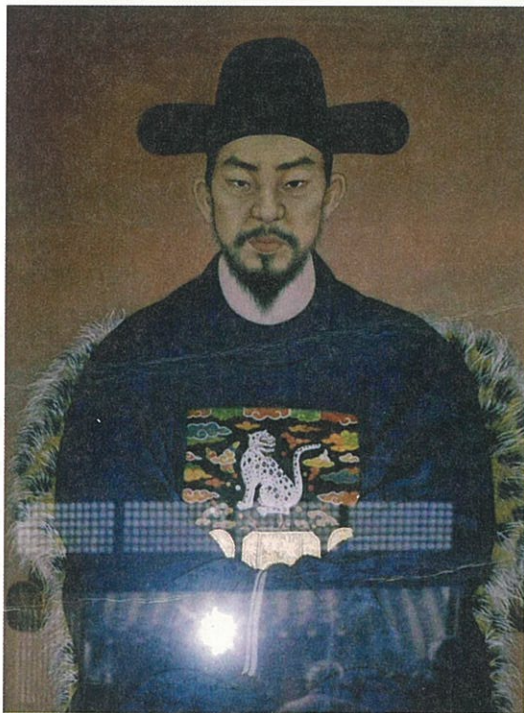
온제공의 시조는, 수나라 양제가 수십 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입했을 때 을지문덕 장군과 함께 이를 물리친 강이식 도원수이다. 또 고려 현종 9년에 거란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구

주와 홍화진에서 크게 물리쳐 역사에 찬란한 이름을 남긴 병부상서 강민첨의 12대손이다. 조부는 동지공 강문한이며, 부친은 찰방공 강근이다.

온제공은 훈련원 첨정으로 관군 훈련에 전념하다가 임진왜란이 터지자, 호가(扈駕·임금의 수레를 뒤따르며 보위함)하던 중 평양과 압록강에서 김덕추와 함께 왜군을 맞아 목숨을 도외시키고 싸웠다.

당시 의병장이던 장형(만형) 월당공 강인상이 온제공에게 “우리 가문 식솔 중 진주성 혈전에서 나의 아들 희원과 희복이 전사하고, 네 중형(둘째형)의 아들 희보, 희열도 참사하고 말았으니, 너는 식구들을 보살피 가문을 이으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지만, 온제공은 나라가 있어야 가문도 있다며 만형의 만류를 뿌리쳤다.

온제공은 “나라를 구하는 길이 곧 조카들



강옥상 영정사진



강옥상 사당 - 온모재

의 원수를 갚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전라좌수사 이억기의 휘하에 투신했다. 공은 영등포(현 거제군 장복면 구영리)와 온라도 전투에서 왜장 추동을 사살하고 적선 10여 척을 격파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다가, 적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니 공신록에 선무원종공신으로 기록돼 있다.

공의 후손들은 장평면 지천리 일대에 터를 잡고 400여년 넘게 생거하면서 재각(齋閣)을 짓고 봄가을로 시향을 올리고 있다.

돈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세태에 비추어 볼 때, 집안의 안위보다 나라 구하는 일에 목숨을 던진 애국충정은 우리 모든 국민이 높이 우러르고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귀감으로 삼아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재각을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권장할만하다.

자료제공 : 청양문화원

금강여울축제

축제는 지난 18회 동안 개최되었던 “금강민속축제”를 올해부터 “금강여울축제”로 축제명을 바꾸었다. 충청남도 향토문화축제 예비축제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생명과 신바람 그리고 감동이라는 주제와 여울의 특성에 따른 열두 여울에 부는 생명의 바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3년 7월 27일(토)부터 28일(일)에 걸쳐 2일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에서 금산문화원 주최, 물폐기 농요전승보존회, 농바우끄시기보존회 주관으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축제의 기본방향은 기존 민속공연에서 벗어나 강의 민속과 문화를 기본으로, 강촌여울의 생태문화와 전통놀이, 여름휴가를 결합하여 강촌·농촌문화와 전통문화를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나로 아우르는 생명의 축제로 구성하였다.

여름 지역 대표 관광문화상품으로 만들어 지역의 농·특산품과 연계해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기획하였다.

이틀간 진행된 축제는 옥수수 따기, 감자 캐기, 토마토와 수박체험, 잠자리 잡기, 여치집 만들기 체험, 경운기 투어 등의 농촌체험과 여울낚시, 다슬기 잡기, 뗏목타기, 강변슬라이딩, 물총 썰바이벌 등의 강촌체험, 벌말소리공연, 물폐기농요, 농바우끄시기 체험 등의 민속체험, 노내기생물체험, 이글루체험 등의 다양한 기타 프로그램

으로 진행되어 금강여울축제에서만 즐기고 볼 수 있는 체험과 공연으로 많은 축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금강여울축제는 2014년에는 7월 24일(목)부터 27일(일)로 기간을 늘려 4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금강여울지역고유의 여울생태문화와 민속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을 넘어 금강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울축제 물폐기



행사프로그램

▶ 농촌 및 강촌마을체험

- 옥수수따기, 감자캐기 체험
- 곤충체험 및 전시
- 잠자리 잡기 + 여치집 만들기 체험
- 7월 모내기 체험 및 물논 미꾸라지 잡기체험
-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금강 가두리 안)
- 여울낚시, 오리쓰리, 다슬기잡기
- 천렵체험 및 피라미 튀김 만들어먹기 무료체험
- 강변슬라이딩, 뗏목타기, 래프팅
- 물씨름, 물풍선농구, 미니다이빙, 부표 건너기
- 물총 썰바이벌 및 Water Wars, 농바우 물맞기
- 물로켓 체험
- 밀 빠진 독에 금강물 채우기 대회
- 금강 희귀 수생동물 찾기 체험 및 전시

▶ 공연 및 민속체험

- 벌말소리 공연, 초청가수 공연, 강변영화제
- 수상 공연
- 물폐기농요, 농바우끄시기 체험
- 관광객 물쟁반 노래자랑, 가족캠핑, 소원풍등 날리기

▶ 기타 상설행사

- 금강 생태사진전
- 금강 희귀 수생동물 전시

▶ 상설 피서체험 쉼터 운영

자료제공 : 금산문화원

전국 제일의 에듀테인먼트 축제! 홍성내포문화축제!

홍성은 역사적으로 홍주라는 지명을 사용했고, 충청도 서북부 내포(內浦)의 중심이었다. 내포는 순수한 우리말로 '안-개'란 뜻으로 바닷물이 육지 깊숙이 들어와 내륙 깊은 곳까지 배가 항해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조선실학자 이증환은 그의 저서 택리지를 통해 내포를 충청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정의하였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홍주목에서 관할하던 지역을 내포라고 칭하였다.

그 내포의 중심인 홍성에서는 매년 9월, 홍성군의 대표축제인 내포문화축제를 개최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내포문화축제는 2010년까지 내포문화와 서민문화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해오다 2011년부터는 홍성이 배출한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홍성은 역사인물의 고장답게 많은 역사인물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고려명장 무민공 최영 장군, 집현전 학자로서 한글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사육신의 한사람인 매죽헌 성삼문 선생, 청산리전투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 3.1만세운동의 주역으로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사 등이 홍성출신이다.



2011년 제7회 홍성내포문화축제부터 만해 한용운 선사와 백야 김좌진 장군을 핵심주제로 선정하여 교과서에서 접했던 근엄하고 딱딱한 역사인물들을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제를 구성하였다. 역사인물 캐릭터를 개발하여 친근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즐기면서 위인들의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형 축제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백야 청산리전투 재현', '만해 독립선언서 퍼포먼스', '최영 장군 승전보 퍼레이드', '성삼문! 님을 향한 일편단심' 등 역사인물의 핵심일화를 재현 프로그램이나 퍼포먼스로 각색하여 지역민과 축제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색다른 재미도 선사한다.

지난 9월 26일부터 4일간 개최된 제9회 홍성내포문화축제의 경우 '진정한 영웅탄생의 전설'이라는 주제로 무민공 최영 장군과 매죽헌 성삼문 선생을 중심으로 홍주성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주제체험의 경우 최영 장군과 성삼문 선생의 공간을 구역화하여 진행, 축제방문객들로 하여금 두 위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최영 장군의 경우 청렴결백한 모습과 관련된 '患' 마당과 활과 말타기 등 고려명장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武' 마당으로 구분하여 진행, 최영 장군을 알리는 전시프로그램부터 적분의 일화와 금마총에 대한 이야기 등을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관체험을 통해 최영 장군이 되어보고 특히 고려시대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해 벌였던 싸움인 공성전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였다.

성삼문 선생 역시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절신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節' 마당과 한글창제와 집현전 학자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文' 마당으로 구분하여 진행, 사육신과 생육신 찾아보기, 과거제 체험, 훈민정음 서문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장을 재현하여 과거제를 체험하고 직접 장원급제자가 되어보는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체험하면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적 요소를 부각시켜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방문객 층에 많은 호응과 관심을 유발하였다.

홍성내포문화축제는 위대한 역사인물을 많이 배출한 홍성의 고유성을 가지고 위인들의 업적과 일화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 유형을 접목하여 위인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획의 장을 펼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축제가 끝난 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댓글들은 우리축제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축제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발전적인 축제모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의미 없이 먹고 즐기는 축제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체험하면서 역사인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홍성내포문화축제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자료제공 : 홍성문화원 / 손형진(문화사업팀장)



공주문화예술인 정기공연 (예인촌)

예인촌(藝人村) -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 목 적 : 공주문화예술인들을 연4회 초청 정기공연을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발표의 무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사업내용 : 공주의 옛소리, 국악, 한국무용, 고전무용, 성악, 연극, 생활무용 등 공주문화예술인 초청공연

▶ 최선무용단의 무취 (66번째 정기공연)

- 일 시 : 2013. 5. 24(금) 오후 7시 30분
- 장 소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 제 목 : 舞醉 - 춤에 취하다
- 참여인원 : 700여명

▶ 의당집터다지기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선정 기념 및 정기공연 (67번째 정기공연)

- 일 시 : 2013. 7. 4(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의당 정안천생태공원
- 제 목 : 의당집터다지기 정기공연
- 참여인원 : 400여명

▶ 권재덕의 공주소리 (68번째 정기공연)

- 일 시 : 2013. 7. 26(금) 오후 7시 30분
- 장 소 : 마곡사 토요무대
- 제 목 : 권재덕의 공주소리
- 참여인원 : 200여명

▶ 제자와 함께하는 공주사랑 음악회 (69번째 정기공연)

- 일 시 : 2013. 11. 1(금) 오후 7시
- 장 소 : 공주대학교 컨벤션 홀
- 제 목 : 공주사랑 음악회
- 참여인원 : 500여명



박범신 작가와 함께 '내고향 논산땅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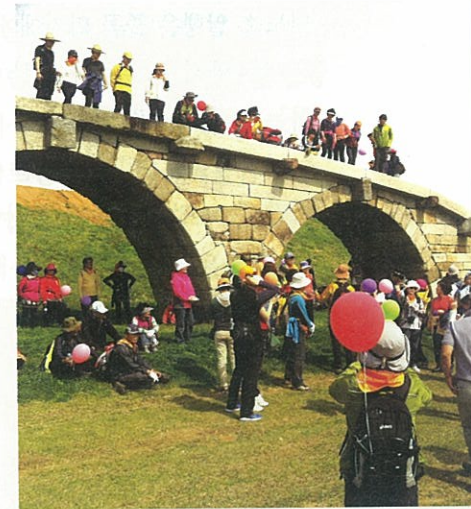
논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분인 박범신 작가와 함께 내 고향 논산땅을 걷는 행사가 열려 언론과 문학계 등 큰 관심을 모았다. 논산문화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논산시 동서남북 경계 길을 찾아, 5일 동안 하루 15km 정도를 박범신 작가와 함께 걷는 '내고향 논산땅 걷는다' 행사를 개최하였다.

박범신 작가는 행사 참여 취지에 대해 "우리는 고향에서, 생명은 물론 삶의 본원적인 에너지와 그 가치를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고향은 어머니이자 첫사랑, 첫 마음이다. 그 동안 경제적으로는 비약적 발전을 해왔으나 여전히 삶이 불안하고 행복한 세상에 이르지 못한 것은 우리가 고향을 버렸거나 고향의 첫마음을 지웠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당신은 고향에서 받은 '생명값'을 잘 치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향에서 부여받은 '첫마음'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아니 고향을 얼마만큼이나 아는가. 단 하루라도 생명을 준 첫마음의 그 땅을 온전히 걸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봄맞이로 고향사람들과 함께 걸어보고자 하는 뜻이 거기 있다"고 밝혔다. 또 "단 하루만이라도 아버이 품속 같은 고향땅을 온전히 걷고 나면 단언컨대, 개인적으로는 삶의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가치를 얻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잃은 공동체의 회복과 그 힐링의 길을 반드시 예시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행사 일정은 4월 28일(일) 첫째 날은 연무 체육공원에서 걷기 시작해 전환왕릉을 지나 박범신 작가의 생가인 연무읍 봉동리 두화마을까지 갔다. 두화마을에서 점심과 막걸리를 먹으며 작가의 동네에서의 옛 추억에 젖었고, 그의 문학과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후에는 강경천을 따라 넓은 채운들을 바라보며 학창시절 작가의 등하곶길이었던 강경 옥녀봉까지 걸었다. 작가의 문학비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멋진 색소폰 연주를 듣고 첫날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 29일은 성동면사무소에서 출발해 수탕석교가 있는 석성천을 따라 광석면 오강리의 유서 깊은 노강서원까지 걸었다. 비가 왔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물 웅덩이를 만나자 나이 칠십을 넘긴 어르신이 작가를 업었다. 박범신 작가는 죄송해하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시낭송과 노래로 화답하였다. 노강서원 강당에 앉아 판소리와 실내 국악 연주를 감상하였다. 참가자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며 기뻐했다. 셋째날에는 상월면 한천리 KT&G상상마당(논산)에서 시작하여 금강대학교까지 걸었다.

이날은 오후에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박범신 작가가 논산에서 집필한 40번째 장편소설 '소금' 출판기념회가 있어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걸었다. 5월 1일은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전북과 경계 마을인 양촌면 신기2리까지 걸었다. 양촌의 맑은 냇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남녀노소 일행은 줄곧 화기애애 했다. 도중에 신기리 지식묘에서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인근 각지에서 온 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으로 대화도 하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시를 낭송하는 순서도 진행 되었다.

마지막날인 2일에는 연산 돈암서원에서 류제협 문화원장의 해설을 들은 후 논산시가 조성한 '솔바람길'로 걸으며 숲속 중간에서 동요를 함께 부르고 작가의 노래도 듣는 유쾌한 시간이 되었다.

반짝이는 탐정호 수변을 따라 물결치는 소리를 들으며 휴정서원까지 걸었다. 소금의 배경도 되었던 가야곡 산노리 평매마을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천연염색 체험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사과꽃을 보며 넓은 탐정호수 둘레를 걸어 조정리에 위치한 박범신 작가 집필관에 도착하였다. 집필관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와 함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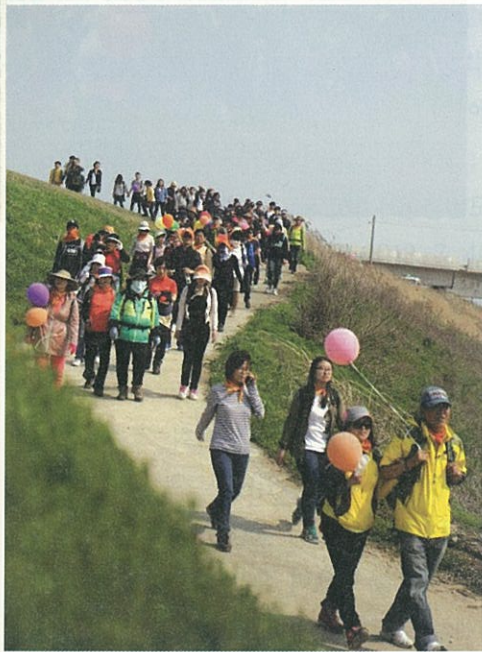
멀리는 포항에서도 온 분이 계실 정도로 작가의 인기를 실감했으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작가의 서명이 들어간 손수건과 문화원이 준비한 물병,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였다. 참가 후기를 제출한 분들은 작가 서명 티셔츠를 보내드려 참가 만족도를 높였다.

거닐다 자연스럽게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며 논산의 아름다운 산과 들, 냇가를 따라 걸었다.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은 물론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색하며 공감하면서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함께 걷되 혼자 걷고, 혼자 걷되 함께 걷는다'는 작가의 말씀

이 인상 깊게 남는다.

박범신 작가는 논산출생으로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여름의 잔해'로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소설집 『토끼와 잠수함』, 『흰 소가 끄는 수레』, 장편소설 『죽음보다 깊은 잠』, 『불의 나라』, 『더러운 책상』, 『은교』, 『논산일기 2011 겨울』 등 다수가 있으며 대한민국 문학상, 김동리문학상, 만해문학상, 한무숙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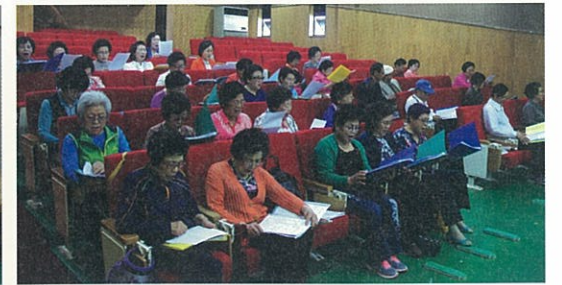
노래와 웃음과 아름다움이 있는 “老소미합창단”

당진문화원 “노래와 웃음과 아름다움이 있는 <老소미합창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 연합회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13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 합창 교육을 하고 있다. 단원은 총 40명으로 당진에서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였다.

합창은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어르신들끼리 목소리를 맞춰 노래를 부르고 단원끼리 소통하며 연습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간다. 그 안에서 각자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최대한 살리되 합창단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합창의 핵심은 조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하여도 혼자 뛰어서는 안 된다. 조화 안에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말하자면 합창단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어르신 스스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자신감과 당당함을 주게 되었다. 이처럼 ‘老소미합창단’은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로 활기를 찾고 노래를 통해 인생을 마음껏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 노인인구가 15%이상인 당진에서 어르신합창단은 부재하였기 때문에 ‘老소미합창단’ 창단은 지역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10월 28일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당진문화원, 청양문화원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기쁨을 나눠 you” 합동공연에는 이철환 당진시장, 박장화 당진시의장 뿐 아니라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관람을 하였고, 11월 5일 당진대합창제에 초청이 되어 무대에 오르는 등 앞으로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여러 관심과 더불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발견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힘찬 노후 생활을 다짐하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老소미합창단’이 부르는 인생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우리의 마음 속 깊이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일정

2013년 5월 8일 ~ 10월 30일 매주 수요일 총 32회 79시간

▶ 공연일정

10월 23일(수)	어르신문화학교 학습발표회 - 당진문화원 오후2시
10월 28일(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사업 <당진←청양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기쁨을 나눠you> 당진남부노인복지관 오전 11시
11월 5일(화)	당진대합창제 - 당진문예의전당 오후7시
11월 7일(목)	어르신문화학교권역별문화축제 <충남 문화홍보단들의 한마당> 홍성문화원 오후1시 30분
11월 14일(목)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사업 <당진←청양 기쁨을 함께 나눠you> 청양노인요양원, 오후2시
11월 24일(일)	'당진시예술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당진문예의전당, 오후 4시

▶ 단원 소개

- 단장 : 정정희
- 지휘 : 손지애
- 반주 : 김나영
- 단원 : 강원식, 구자운, 권미자, 김계순, 김순섭, 김순필, 김용원, 김인수, 김정수, 김홍서, 박명례, 박복희, 배인임, 서정호, 손영순, 양인숙, 오혜숙, 유연님, 유영교, 유찬자, 유태순, 이금순, 이덕선, 이만순, 이민자, 이수재, 이원순, 이정순, 이해옥, 이화자, 인구환, 장신자, 정양분, 지인덕, 최정목, 최정자, 한경순, 한순덕, 홍성희



제12회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산 해미읍성에서 펼쳐진 제12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추진위원장 이준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개최이래 최다의 인파가 몰린 금번 축제는 성밖은 현실, 성안은 조선시대로 「500년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과거로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특히 행사장안에 모든 시설물과 소품류 등 일체를 현대적인 것을 배제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세심한 노력과 참여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우러져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유제에는 서산을 복군시킨 충신 정인경 장군,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한 유방택 선생, 현동자 안전과 해미읍성에서 10개월간 근무한 이순신 장군 네 분의 위패를 모셨으며, 축제기간중에 엽전(상평통보)을 환전해서 읍성안밖에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전소를 운영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금번 프로그램에는 태종대왕행렬강무, 주제체험(엽전체험, 호패체험, 구휼체험, 솔뚜껑체험), 관아체험(죄인압송행렬, 곤장형틀체험, 감옥체험, 관아체험마당극, 육방체험, 관아복식체험, 군장전시체험), 민속체험(해미읍성별난경기대회, 민속놀이체험, 전통생활도구체험, 전통공예체험, 옷감짜기체험), 마당극공연(장터마당극, 관아마당극, 호야마당극, 옥사상황극), 민속놀이(지점놀이, 달구놀이, 승무, 박첨지놀이), 국악공연, 회혼례, 전통혼례, 상설장터(순두부, 할머니장터, 점집, 옛날잡집, 전통떡, 탁본, 한지공예, 무릇정과, 옥수수, 대장간 체험), 오청취당한시백일장 등이 운영되었다.





야간공연으로 관현악단과 함께하는 국악공연을 마련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금번 새롭게 선보인 조선시대의 복지제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휼마당을 만들어 3창(상평창, 의창, 사창)을 소재로 무게, 길이, 부피를 재는 도량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마련하고, 빈민구제를 위해 쌀과 빵튀기를 배급하고, 또 주먹밥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해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천주교박해를 주제로 한 호야마당극이 새롭게 선보였으며, 특히 우리고장이 낳은 조선시대 여류 시인 오정취당의 시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오정취당기념 전국한시백일장은 전국에서 100여명이 참여해 조선시대의 학풍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서천의 두 여성시인 김임벽당 신부용당의 시집출판

조선시대 서천의 대표적인 여성시인 김임벽당(金林碧堂, 1492-1549)과 신부용당(申芙蓉堂, 1732-1791)은 서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였던 여성시인이었다.

김임벽당은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에서 남편 유여주(俞汝舟)와 함께 ‘임벽당(林碧堂)’ · ‘선취정(仙醉亭)’ 등의 작은 당을 짓고 살면서 세상의 부귀공명에 대한 욕망을 버린 채 인간의 참 성품을 기르며 자연인으로 살았다. 김임벽당이 남당리에 은거하듯이 살게 된 배경에는 남편 유여주가 18세의 나이로 현량과에 천거되었으나(1518년, 중종13), 이듬해 기묘사화를 당해 만형인 판서공 유여림(俞汝霖)과 걸어서 비인현으로 돌아왔다. 비인이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만형과 막내 동생은 마을의 동남쪽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화동(梨花洞)’ 과 ‘도화동(桃花洞)’ 이 바로 그들이 명명한 곳이다.

김임벽당은 글씨와 자수에도 뛰어나 자신의 임벽당에서의 삶의 모습을 시로 쓰고 수를 놓아 베갯모를 만들었다. 그 베개는 후손 가에서 200여년이나 보관되어 내려왔다고 한다. 베갯모에 수놓아진 두 수의 <제임벽당(題林碧堂)> 시는 훗날 『임벽당칠수고』의 시집이 발간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다음이 그 시이다.

<임벽당에 쓰다> 1

작은 마을 그윽이 깊은 한 구석
자연 몸시 사랑하니 근심 잊을 만하네.
인간사 윙고 그림 얽매이지 아니하고
꽃 피면 봄, 잎 지면 가을인 줄 안다지.

[題林碧堂] 1

小洞幽深別一區
膏肓泉石可忘憂
人間非是渾無累
花發知春葉脫秋

<임벽당에 쓰다> 2

숲속에 의지하여 속세의 번뇌 끊고
다만 그윽이 참 성품 기른다네.
한가로운 베개머리 봄날의 줄음
함 없는 그 모습 태초의 백성 같구나.

[題林碧堂] 2

依林一室絕纖塵
祗合幽人養性眞
閑枕聽來春睡足
無爲恰似太初民

현전 김임벽당의 한시는 총 일곱 수이다. 위의 <제임벽당(題林碧堂)> 1·2는 베개에 수를 놓은 시이고, <증질자(贈姪子)>·<증별종손(贈別從孫)> 두 수는 허균의 『국조시산』에 수록되어 있고, <별증(別贈)>·<빈녀음(貧女吟)>·<고객사(賈客詞)> 세 수는 중국 청나라 전점익이 편찬한 『열조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이다. 이 일곱 수의 한시에 후손 유세기(俞世基)가 당대 여러 명현들의 서문이 나 발문들을 첨부하여 『임벽당칠수고(林碧堂七首稿)』라는 시집으로 편찬하였다.



비인 남당리 생가터 주변에 세워진 김임벽당의 시비

신부용당은 한산 승문동(현 화양면 활동리 일대)에서 세 명의 오라버니 석복 신평수·기록 신평연·진택 신평하와 함께 공부하여 문학적 천재성으로 주목받았다. 남편 윤운(尹暉, 1730-1773)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사문학가인 고산 윤선도의 후손으로 공재 윤두서의 손자이다. 곧 윤두서는 신부용당의 시할아버지, 윤선도는 시5대조이다. 부용당은 친정과 시댁의 탁월한 문학적 환경에 부응하며 자신의 삶의 단상을 작품으로 남겼다. 신부용당은 혼인 이후 해남에서 살지 않고 주로 서천과 태안 일대에서 거주하였다. 부용당 59세 때에는 아들 윤규웅의 부임지 상산(常山, 충북 진천의 옛 이름)에 따라 갔었는데, 이듬해 여름에 갑자기 병을 얻어 운명하였다.

신부용당은 한시 23수, 편지, 제문, 잡저 등의 작품을 남겼다. 신부용당의 문집은 조카 신석상(申奭相)이 지은 신부용당의 제문까지 실어 『부용시선(芙蓉詩選)』으로 묶였다. 다음은 두릉 태수에 게 쌀을 빌려 간 종이 돌아오지 않자 지은 시이다.

<두릉 태수에게 쌀을 빌려 간 사람이 오지 않으므로>

농가에 양식이 떨어져
고을 창고의 쌀을 구하네.
종과 말을 보냈으나
끝내 앞강을 건너지 못했네.
나날이 비는 내려 장마 지고
바람까지 불어 길이 끊겼구나.
닷새가 지나도록 사람은 오지 않고
서글피 쳐다보매 어스름 깔리네.

[乞米杜陵太守不至行]

田家無糧食
乞米萬縣庫
送奴與馬往
不解前江渡
日日積雨多
風吹隔道路
五日人不至
悵望遂薄暮

신부용당의 시는 일상 삶 속에서의 하루를 담담하고 진솔한 필치로 읊은 것이 대부분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 아래에서, 친족들과의 이별 등이다. 그러한 시들 가운데 <꿈속에 노닌 금강산(夢游金剛山)> 시 같은 경우는 부용당이라는 여성의 호연한 기상, 시적 재주, 학습의 범위를 유감없이 발휘한 시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서천의 김임벽당과 신부용당의 존재는 과거 서천의 문화적 힘과 자산이 어떠했었는지를 가늠케 하는 일이다. 아울러 두 여성시인의 존재는 서천의 보물이요 자랑인 동시에 기호유학의 본산지 충청남도의 역량이기도 하다.



신부용당의 시댁 고산 윤선도 종가의 모습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제24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제15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청소년 회화대회 서세 157주기 추사김정희선생 추모제례

지난 10월 12일 13일 양일간 대한민국 대표 학자이자 국보예술인인 추사 김정희 선생을 추모하는 선양사업이 예산문화원과 추사김정희선생추모기념사업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추사고택의 추사묘 앞 특설과장에서 전국의 서생 1,000여명의 참여하에 성료하였다.

추사회화대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회화대회로 장원에 국무총리상과 특별상으로 국회의장상이 수여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서예대회로 위상을 높였다.

추사회화대회 장원에는 국무총리상에 경기도 일산의 류연일(경기도 고양문화원 사무국장) 씨와 대한민국 국회의장상에 충청북도 충주의 김경숙 씨가 영예를 안았다.

매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기일(음 10월 10일)을 양력으로 하여 기일에 가장 가까운 토·일요일에 개최되는 본대회는 내년 2014년 10월 11일,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아이에게 들려주는 내고장 문화유산 이야기”

충청남도 공고 제2013-30호와 관련 2013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에 선정되어 가족단위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우리 고유문화 계승 및 발전과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놀이동산 중심의 주말 가족단위 여가 생활을 문화유산 다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1박 2일간 1차, 2차로 나누어 20가족과 함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였다.

아산시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로 변모해 외부 인구 유입이 늘어감에 따라 그 실정에 맞추어 우리지역 문화유적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전통체험 및 농촌마을을 체험함으로써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가족간의 유대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획일화된 탐방에서 탈피하여 문화 유적의 정확한 이해와 사전 교육을 통하여 부모입장에서 아이에게 들려주는 형식의 진행방식으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고 부모님들에게는 관내 문화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를 보일 것을 기대하며 진행하였다.



- ▶ **활용대상** : 현충사(아산 이충무공 유허, 사적제112호),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제236호), 봉곡사(불화, 충남도문화재자료 제242호)
- ▶ **사업기간** : 1차 - 8월 24일 ~ 8월 25일, 2차 - 8월 31일 ~ 9월 1일
- ▶ **사업내용**
 - 인 원 : 회당 40명 내외 (1차-10가족, 2차-10가족)
 - 자 격 : 초등학교 1-4학년 아동 및 부모
 - 교육교재 제작 : 포켓북 형식 소책자로 스토리텔링형식 제작
 - 부모집합교육 : 1차, 2차 참가 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유래 및 의미, 설명기법을 교육
- ▶ **체험내용**
 - 다도예절교육, 부모와 함께 충무공 유물찾기, 떡메치기(인절미 만들기), 땅콩캐기, 구연동화, 여름밤 레크레이션으로 진행
- ▶ **마무리**
 - 프로그램 개선방향 설문조사 실시 및 가족에게 쓴 편지 작성으로 과거에서 온 편지와 영상 CD, 2014년 문화원 달력을 연말에 참가 가족에게 우편으로 배달 예정

《 참가가족 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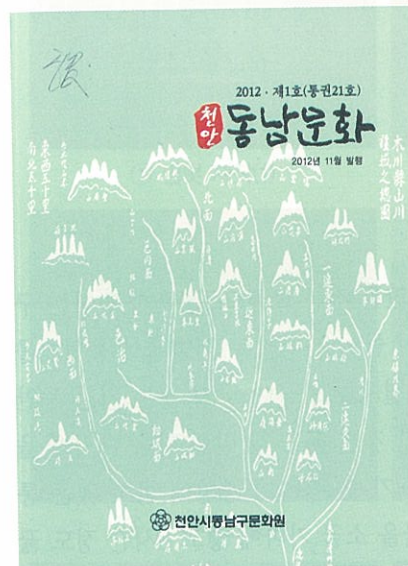


이창성 가족

울산에서 살다 이사를 와서 아산의 유적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문화유적지에 대한 공부와 가족들과 1박 2일간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매년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선착순을 통해 참가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안동남문화 제2호」 발간의 의미



어느덧 향기로운 국화향이 가득한 10월의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3년 가을 동남구문화원은 55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문화를 소개하고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노력이 결과로 이어져 최근 선호하는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토자료의 발굴과 수집 보존에 조금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문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바라는 요즘 세태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조금씩 관심 밖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문화원에서는 다시금 기본적인 문화원에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새로운 것과 균형을 맞춰 보기로 했습니다.

본 문화원에서는 2005년도에 간행된 “동천안 문화” 지(誌)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화연구지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중단되었던 향토자료집을 작년부터 다시 “천안동남문화 제1호”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천안동남문화 제2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문화의 전승은 물론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굴하여 전파하는 일은 현재인들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그 기초다리 역할을 문화원에서 충실히 하려합니다. 아울러 자료집에 담긴 이 시대에 삶을 함께하는 지성들의 작품은 후인들에게 베푸는 역사의 원천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문화원에서는 지난시대의 문화와 젊은 시대인의 문화를 접목하여 토향의 역사서와 문화연구지로 남기고자 꾸준한 향토지 제작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3 자염재현축제

- 사업명 : 2013 자염재현축제
- 일정 : 2013년 8월 3일(토) ~ 8월 4일(일)
- 장소 :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남금갯벌
- 인원 : 약 2000여 명

자염재현의 의미

‘자염’이란 천일염이 보급되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끓여 만든 전통 소금으로, 흔히 말하는 구운 소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조금 때 약 6~7일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에서 웅덩이를 파고 중앙에 통자락을 설치한 다음 웅덩이의 흙을 통 주변에 펼쳐놓고 물이 닿지 않는 기간 동안 갯벌이 잘 마르도록 소를 이용해 썰레질을 하여 말린다. 수일간 갯벌 흙을 잘 말린 다음 다시 흙을 웅덩이에 밀어 넣으면 사리 때 바닷물이 그곳에 스며들어 염도가 높은 물이 중앙에 묻혀 있는 통 속에 모이게 되는데, 다시 조금 때가 돌아오면 통 속에 고인 물을 소금 가마에 넣고 8시간 정도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

1950년대까지도 명맥을 이어오던 자염은 천일염의 경쟁에 밀려 사라졌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이제는 경제 원리를 떠나서 문화적으로 자염을 재현하려 해도 크고 작은 간척사업으로 인해 자염을 재현할 수 있는 갯벌이 거의 사라졌다. 이곳도 1964년 간척사업이 실시되어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까지 진행이 되었으나 여러 우여곡절에 의해 제방이 파손되어 현재의 갯벌이 살아 있게 된 것은 문화적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활문화로서의 ‘자염’은 우리나라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본질이다. 조수에 따라 하루 두 번 잠기는 매력적인 갯벌의 또 다른 이면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과 애환이 담긴 역사를 다시 한 번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염 제조방식

- ▶ 통 조금 : 갯벌 가운데 함수를 모으는 통자락을 설치하고 조금 때를 이용, 갯벌 흙을 말려 염도가 높은 함수를 만들어 끓이는 방식
- ▶ 갈개 조금 : 비교적 높은 지대에 염전을 만들고 말린 갯벌흙을 펼쳐 놓은 뒤 바닷물을 부어 염도가 높은 함수를 만들어 끓이는 방식

염벋(자염제조장소)과 자염생산과정



① 염벋 제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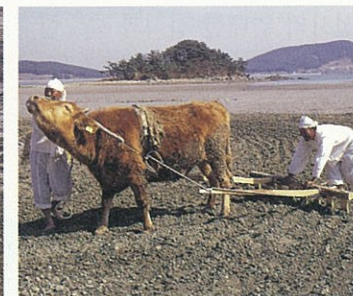
② 염벋 제작(2)



③ 염벋 완성



④ 통자락 만들기



⑤ 썰레질(갯벌 말리기)



⑥ 덩이질(갯벌흙 부수기)



⑦ 나래질(통자락 메우기)



⑧ 조금통 열기



⑨ 송진으로 염도 측정



⑩ 간수 운반



⑪ 가마솥에 불 지피기



⑫ 자염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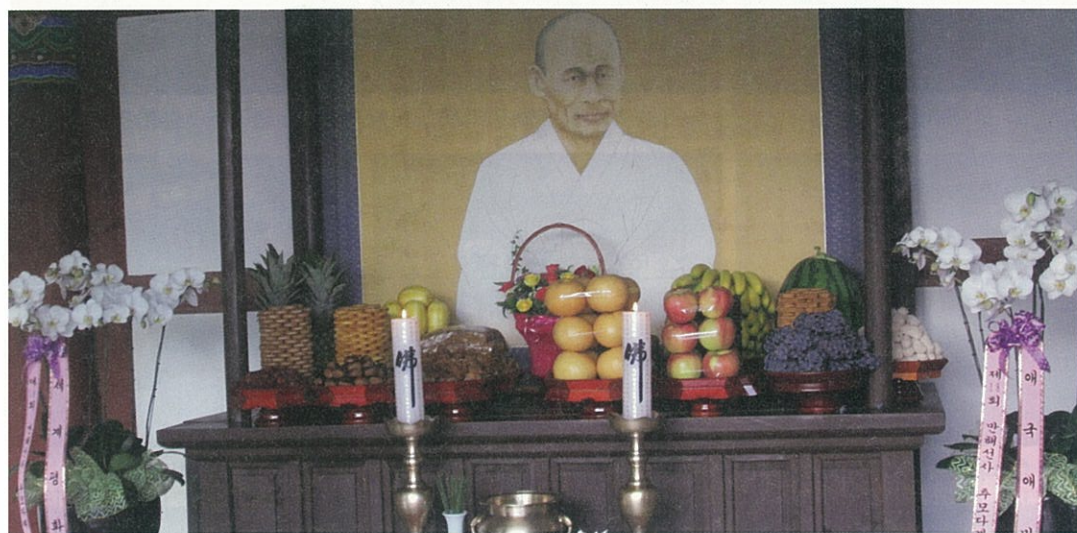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선사 열반 69주기 맞아 제18회 만해추모제 개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선승, 시인으로 암울한 역사와 온 몸으로 맞서며 전인적 인간상을 보여준 만해 한용운 선사(1879~1944). 1919년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불교계를 대표해 3.1독립선언을 이끌고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증명한 만해 한용운 선사는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을 눈앞에 두고 입적했다.

홍성문화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만해추모제를 결성면 성곡리 만해 생가지일원에서 매년 개최해왔다.

만해추모제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시작되었다.



홍성문화원 유환동 원장은 만해추모제에 앞서 지난 6월 관내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답사팀을 구성해 서울 선학원을 찾아 '만해 열반 69주기 추모다례'에 참석한 후 심우장, 망우리묘소 등을 방문하고 만해 한용운 선사의 외동딸인 한영숙 여사를 만나 만해 한용운 선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만해추모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성북문화원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도 70주기 만해 추모다례를 연계, 추진해 전국적인 추모행사로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만해추모제는 2002년까지 단독행사로 개최해오다 2003년 이후 홍성삼색축제, 홍성내포사랑큰축제, 홍성내포문화축제 등과 연계해 행사 규모가 축소된 채 열리다 올해 11년 만에 단독행사로 개최하게 됐다.

만해 한용운 선사 열반 69주기를 맞이한 이날 만해추모제에서는 만해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문학인재 양성을 위한 만해 백일장 및 사생회화대회가 도내 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와 함께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이라는 주제로 만해문학강연이 열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사상과 애국혼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추모다례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지운스님) 및 홍성군, 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하늘을 열고"라는 주제를 걸고 헌화 및 헌다, 바라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 공연 등의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이어 만해추모음악회 및 문학의 밤은 천둥소리, 홍주국악관현악단, 군립무용단 등 지역공연단체의 추모공연과 한국문인협회 충남도내 5개 지부 회원들의 시낭송이 함께 어우러져 추모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만해 한용운 선사의 시 '인연설'과 '길이 막혀'를 작곡·가사화해 홍성군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발표돼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홍성문화원은 내년 만해 한용운 선사 열반 70주기를 맞아 만해기념사업회와 함께 입적일인 6월 29일을 전후해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만해 한용운 선사 생애연보

-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491번지에서 한응준의 둘째아들로 태어나다. (己卯 (기묘) 음 7월 12일) 본관은 청주, 자는 정옥(貞玉), 속명은 유천(裕天)이며, 득도(得道)때의 계명은 봉완(奉玩), 법명은 용운(龍雲), 법호는 만해(萬海)이다.
- 1905년 1월 26일 백담사에서 김연곡사에게 득도
- 1910년 9월 20일 「조선불교유신론」을 백담사에서 탈고
- 1911년 박한영, 진진웅, 김종래, 장금봉 등과 순천 송광사, 동래 범어사에서 승려결기대회를 개최하고 한일불교동맹 조약 체결을 분쇄하다.
- 1918년 9월 1일 민족의 정통성과 자존심을 조선 청년에게 심어준 「유심」지를 창간
- 1919년 1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재차와 관련하여 최린, 오세창 등과 조선독립을 속의 3.1운동을 주도,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의 자구수정을 하고 공약삼장을 첨가하다.
- 1919년 8월 9일 경성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유죄판결을 받다.
- 1921년 12월 22일 감형되어 출옥하다.
- 1925년 8월 29일 「님의 침묵」 탈고
- 1933년 벽산 스님이 집터를 기증하고 방응모, 박광 등 몇 분의 성금으로 성북동에 심우장(尋牛莊)을 짓다. 이때 조선총독부 돌집을 마주보기 싫다고 북향으로 짓도록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 1944년 심우장에서 영양실조로 입적, 유해는 미아리 화장장에서 다비한 후,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되다.(세수 66세, 법랍 39년)
-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수여되다.



제24회 고운문화상 고운문예인상 부문에 나태주 공주문화원장 수상



공주문화원의 나태주 원장이 '고운문화상'의 '고운문예인상' 부문에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9월 25일 경기도 수원대학교 내 화성라비돌 대연회장에서 고운봉사상, 고운문예인상, 고운언론인상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는 시상식이 있었다.

재단법인 고운문화재단은 제24회 고운문화상 수상 단체 및 수상자로 사단법인 코피온(대상-고운봉사상), 나태주 공주문화원장(고운문예인상 부문),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고운언론인상)을 선정하

였다.

한편, 이 상은 수원대학교 · 수원과학대학교 · 고운문화재단을 설립한 고(故) 고운 이종욱 박사가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한 문화예술인, 언론인, 공무원, 순수민간인 등 도의를 근간으로 한 인간정신 계발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적을 빛내기 위해 1990년 제정돼 매년 정부기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공주문화원

서천문화원 한여름밤의 힐링 콘서트



지난 2013년 7월 29일(월) 오후 7시 30분, 서천문화원에서는 칠월 한여름밤 서천군민을 위한 콘서트를 마련했다. 서음청소년오케스트라의 classic양상블 공연, 색소폰동호회의 연주, 예그리나의 난타공연, 흙소리 오카리나 양상블의 오카리나연주, 내포제시조서천지부의 내포제시조경창, 전통예술단 "훈"의 창작무용극등을 펼쳐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서천문화원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요~!' 위문·문화 공연



온양문화원(이만우 원장)은 8월 이사회를 대신하여 사회복지 시설인 늘푸른 마을 요양원을 찾아 다양한 위문행사를 펼쳤다. 온양문화원 임직원과 한국소비자파워센터 아산지회(회장 김소당) 회원, 온정로타리클럽(회장 김병철) 회원, 자원봉사자, 시설 관계자, 이용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요~!' 라는 주제로 가요·민요·한국춤·어르신 문화학교 프로그램인 아코디언연주, 자원봉사자 노래 등 위문공연과 장수사진 촬영, 급식봉사, 말벗 봉사,

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만우 온양문화원장은 "시설 어르신을 위해 온양문화원 직원과 이사회에서 뜻을 모아 마련했다. 행사에 도움을 준 단체와 자원봉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도 아산에 소외된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및 위문공연을 3~4차례 실시한 바 있다.

온양문화원

홍성문화원 유환동 원장 취임



홍성문화원은 지난 2012년 11월 22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차기 홍성문화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유환동 원장이 앞으로 4년간 홍성문화원을 이끌어 갈 제18대 홍성문화원장에 선출됐다.

이날 유환동 원장은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홍성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원장은 1월 16일 취임식 때 축하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 10kg 30포와 20kg 8포 등 총 460kg(100여만 원 상당)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홍성문화원



2013년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17호 충남문화발간	발행부수 : 300부	충남도내 문화원 및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연간 사업 현황 및 활동상황, 문화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
2	충남 문화홍보단들의 한마당	일시 : 11. 7 장소 : 홍성문화원 인원 : 300명	도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해당문화원의 참여자(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축제를 통한 어울림 한마당 개최
3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지원사업	기간 : 10월~11월 인원 : 225명	도내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의 다양성 확보 및 도 내 및 타 시·도 간 교류를 통하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반 확충
4	지방문화원 활성화워크숍	일시 : 7. 16~17 장소 : 서산문화원, 서산문화복지센터 대상 : 충남지방문화원 사무직원 인원 : 33명	도내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무직원 실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
5	문화원장 선진문화탐방	일시 : 8. 22~30 장소 : 시애틀, 벤쿠버, 로키산맥 대상 : 충남지방문화원장 인원 : 14명	지역의 문화를 관장하는 지방문화원 원장을 대상으로 외국의 문화행정, 문화행사에 대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진문화탐방을 실시
6	사무직원 직무위탁교육	일시 : 3. 25~26 장소 : 덕산리조트 대상 : 충남지방문화원 사무직원 인원 : 40명	전문 컨설턴트 업체를 통한 사무직원 직무 맞춤형 교육 실시
7	사무직원 선진문화탐방	일시 : 4. 23~26 장소 : 대만 대상 : 충남지방문화원 사무직원 인원 : 22명	문화원의 취지와 걸맞는 한국의 문화와 근접성을 가지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위하여 해외축제가 진행중인 나라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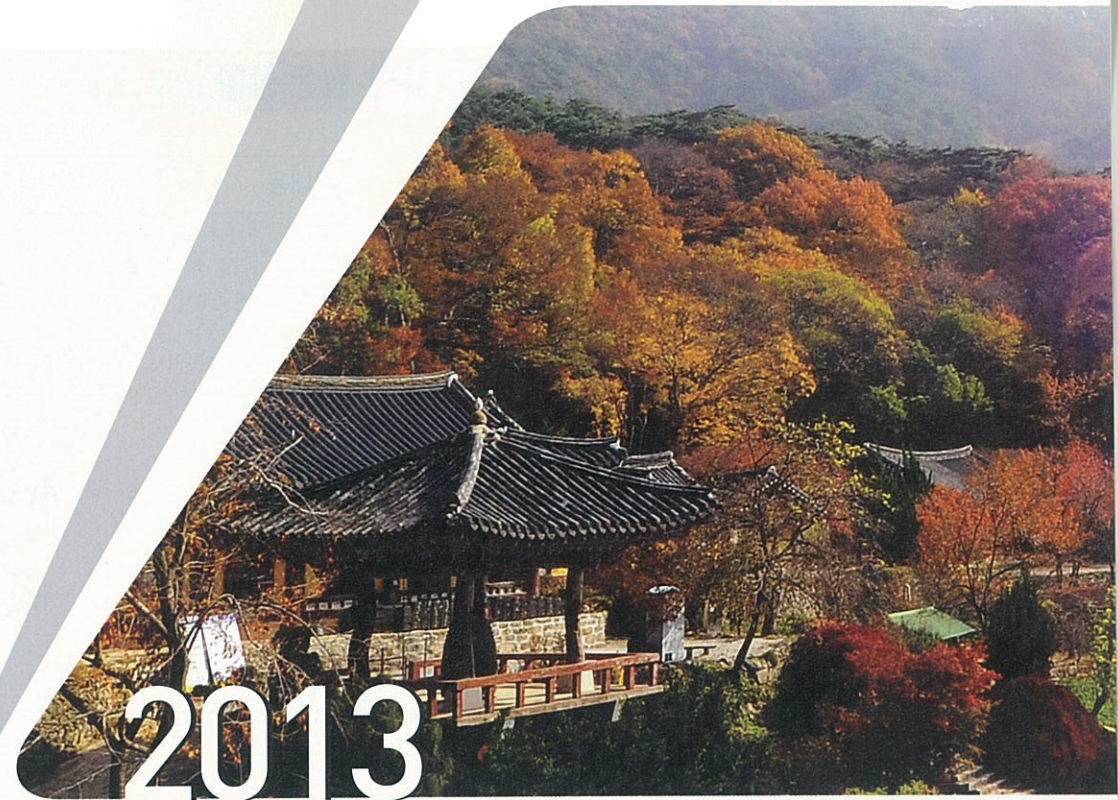
문화원장 선진문화탐방



사무직원 선진문화탐방



사무직원 위탁교육



도내문화원 활동상황

2013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신년교례회	일 시 : 1월 3일 장 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 석 : 200여명	2013년도 계사년 각급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들의 신년교례회 개최 (축하공연, 신년교례식, 신년교례회 수첩 배부 등 행사)
2	「公州文化」 발간	발행일 : 1~12월 발행부수 : 2,000부 (격월간 연 6회 발간)	국내 및 해외의 출향인사, 전국문화원, 유관기관단체, 지역인사, 문화가족대상으로 지역소식수록 발간 배포
3	향토민속발굴사업 「공주의 전통마을」 제2집 발간	발행일 : 12월 중 발행부수 : 1,000부	공주관내 읍·면·동의 토속적인 풍경이 살아있는 10개 전통마을 선정
4	지방문화원특성화사업 「공주의 민속신앙과 마을제의 영상화채록」	발행일 : 12월 중 발행부수 : 1,000부	마을의 민속신앙과 마을제의 동영상채록 보존 계승화 사업
5	지역문화학교 운영	-상반기(3월~7월):16과목 -하반기(8월~12월):15과목 장 소 : 공주문화원 참 석 : 600여명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장 마련. 국선도, 서예·사군자, 요가, 사진, 댄스스포츠, 중국어, 민요, 가곡, 시청각, 오키나와, 플루트, 다도, 색소폰, 전통매듭, 도자기 등 16개 강좌 운영
6	청소년 및 시민문화유적답사	일 시 : 4월~11월 장 소 : 정선, 순천, 아산 참 석 : 250여명	공주시민대상 전국의 문화유적지 답사 (정선, 순천, 아산)
7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예인촌)	일 시 : 1월~12월 장 소 : 공주문화원	공주문화예술인을 정기적으로 초청 (년4회 정기공연)
8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	일 시 : 9월 장 소 : 공주노인대학, 국립공주병원, 생명과학고등학교 참 석 : 1,400여명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체험 (각급 학교 및 복지시설 방문)
9	효사상선양 학생백일장	일 시 : 6월 4일 장 소 : 공주 공산성 쌍수정 광장 참 석 : 500여명	효와 공주사랑을 주제로 공주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10	향토작가 초대전	일 시 : 10월, 12월 초대작가 : 이상근, 정석임 장 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공주출신 향토작가 초청 전시회(2회 개최)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1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일 시 : 6월 21일 장 소 :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참 석 : 50명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 공주대표로 출전 충남도민 화합의 장 마련
12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일 시 : 6월~10월 장 소 : 공주문화원 참 석 : 850여명	명사초청 투어토크콘서트 초청명사 : 이해준, 이남석, 서정석, 윤용혁, 이금희, 박범신, 김정식, 나태주(총7회)
13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문화나눔봉사단)	일 시 : 연중 참 석 : 30명	전통문화공연단 「논두렁발두렁」 동아리운영 각종 축제참가 및 학교방문
14	제59회 백제문화제 백제혼불채화-봉송-합화	일 시 : 9월 28일 장 소 : 연미산 및 공주시 일원	제59회 백제문화제 서막을 알리는 백제혼불채화- 봉송-합화
15	제59회 백제문화제 사대왕추모제	일 시 : 9월 28일 장 소 : 공주 송산리고분군	백제중흥사왕추모제
16	제59회 백제문화제기념 제1회 전국시낭송대회	일 시 : 9월30일, 10월3일 장 소 : 공주문화원(예선) 백제문화제주무대(본선)	백제금동대항로를 주제로 한 전국시낭송경연대회 - 주제 : 금동대항로의 세계 (지정시)
17	제17회 만회복지생활지원사업	일 시 : 10월 23일 장 소 : 공주문화원 수혜자 : 30명	불우이웃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
18	우리문화즐기기사업	일 시 : 5월~11월	공주민속(무형문화제)의 청소년 전승 선학리지게놀이, 의당집터다지기
19	곰다락토요문화학교	일 시 : 3월~12월 장 소 : 공주문화원 외	백제 인동문화정신을 바탕으로 한 연극중심융합예 술포육프로그램
20	회원가족 송년의 밤	일 시 : 12월 장 소 : 공주문화원	공주문화원 회원가족들과 함께하는 송년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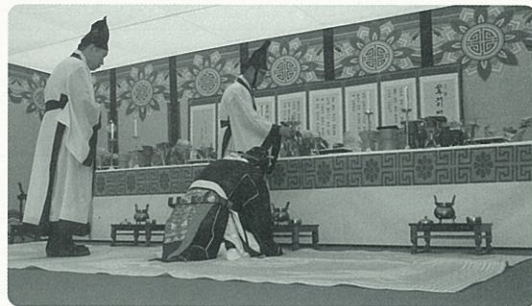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백제문화제 사대왕추모제



신년교례회



청소년 및 시민문화유적문화답사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2013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금산의 민속발굴	「임희재문학 발굴사업」 발간 조사지역 : 금산군 일시 : 3~12월	금산의 대표적 작가인 임희재문학자료 수집 평가, 문화자원창출
2	문화학교운영	「성불산마을이야기」 발간 조사지역 :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장대리, 서대리 일시 : 3~12월	자부리, 요광리, 장대리, 서대리 마을이야기 수집, 원산향을 비롯한 역사적 자료 발굴
3	금곡서회 지원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회원 인원 : 20명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로 구성된 고급과정 서예전시회 개최
4	창현회 지원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한국화 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인원 : 15명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된 고급과정 한국화 전시회 개최
5	풍각쟁이 지원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판소리·민요 동호인 단체 인원 : 15명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 풍각쟁이의 국악공연 정기 발표회 개최
6	산꽃축제	일시 : 4.20~21(2일간) 장소 : 군북면 산안리 인원 : 30,000명	100여만명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적인 축제 구성
7	금강민속축제	일시 : 7.27~28(2일간) 장소 : 부리면 평촌리(금강놀이마당) 인원 : 20,000명	금산농악판굿, 물떼기농요, 농바우고시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체험 마당,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 마당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8	삶꽃문화사랑	일시 : 3~12월 장소 : 금산군 일원 인원 : 200명	삶과 문화가 서로를 살리는 삶꽃사랑운동 전개 「삶꽃」발간, 삶꽃풍류 개최 꽃씨모임 활성화
9	금산문화예술제	일시 : 10. 25 장소 : 금산다락원 대공연장 참여인원 : 500명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금산문화예술제로 미술, 서 예전시회 개최
10	전시회	일시 : 10. 25~29 장소 : 청산아트홀 전시장	금동인(미술), 금목회(서예)전시회
11	송계지계놀이보존사업	일시 : 1~12월 대상 : 송계지계놀이보존회	금산의 전승되는 송계지계놀이 보존 및 전승
12	금산역사문화연구소	일시 : 1~12월 대상 : 금산역사문화연구소	금산의 마을 연구
13	금산민속연보존회	일시 : 1~12월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 축제의 현장, 금산문화를 홍보 하는 장소 인원 : 20명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14	농바우꼬시기보존	일시 : 1~12월 대상 : 농바우꼬시기보존회	농바우꼬시기보존회 공연
15	물폐기농요보존	일시 : 1~12월 대상 : 물폐기농요보존회	물폐기농요보존회 공연
16	산꽃시 시사랑 발간사업	산꽃시동인지 작품 및 특집 수록	산꽃시동인지 발간사업
17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좌도시동인지 작품 및 특집 수록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18	실용음악 보급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그룹사운드 「파랑새」 인원 : 10명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가 문화 창출
19	금산풍물축제	일시 : 8. 17 장소 : 금산다락원 광장 참여인원 : 200명	칠석놀이를 금산에 전승하는 송계대방놀이 재연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0	화전놀이	일시 : 4. 13 장소 :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참여인원 : 300명	금산에 전승하는 화전놀이 재연 각종축제 금산풍물굿 공연
21	토리풍류 보급사업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토리풍류회 인원 : 20명	사물놀이 기능 전수와 여가문화 창출
22	문화소모임 (동아리)활동	일시 : 3~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인원 : 150명	군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문화향수권신장



농바우꼬시기



물씨름



경운기투어



옥수수따기체험



여울축제 물폐기



금강민속

2013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새해인사회	일시 : 1월 2일 14: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인원 : 200여명 대상 : 기관 단체장, 시민 등	논산시 기관, 단체장과 시민이 참석하여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다과회 등
2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탐방	기간 : 1월 ~ 12월(20회) 장소 : 돈암서원, 논산명재고택, 종학원 등 인원 : 800여명 대상 : 논산시민	논산 시민을 대상으로 고장의 아름답고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를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하여 버스로 답사
3	사진으로 보는 논산100년 공모전	기간 : 1월 ~ 12월 인원 : 20명	논산시와 관련된 옛사진을 1900년대 이전까지 공모하여 심사하고 시상
4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 한마당	일시 : 2월 23일 14:00 장소 : 논산천 둔치 인원 : 700여명 대상 : 논산시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줄다리기, 제기차기, 힘자랑, 연날리기대회 개최, 국악 한마당, 각종 민속놀이 체험 등
5	해외문화교류	기간 : 4월 15일 ~ 18일 대상국 : 싱가포르 인원 : 12명	싱가폴의 세계 미식이 대회 참관, 문화센터, 국립 박물관 등 견학
6	회원 정기답사	일시 : 5월 10일 8:30 장소 : 충북 보은, 옥천군 인원 : 80명 대상 : 문화원 임원, 회원	충북 보은 속리산, 선병국 가옥, 옥천 향토사료관, 정지용 시인 생가 등 답사
7	제7회 논산시가족백일장 및 제3회 애항사생대회	일시 : 5월 25일 14:00 장소 : 백제군사박물관 인원 : 500여명	논산 시민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하고 유아 및 학생은 사생대회에 참가 심사 시상
8	인문학 탐방 - 박범신과 작가와 함께 내고향 논산땅 걷는다	기간 : 4월 28일 ~ 5월 2일 장소 : 논산관내 인원 : 500여명	박범신 작가 고향인 연무읍 봉동마을을 출발로 문화 유적지 등 경유하며 1일 15km이내 작가와 함께 걷기 행사
9	토요프로그램 - 가족과 함께 하는 논산문화 교실	기간 : 6월 ~ 12월(12회) 장소 : 논산관내 인원 : 350여명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토요일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논산문화 특강, 생활예절 교육, 관내 유적지 답사, 국악공연 관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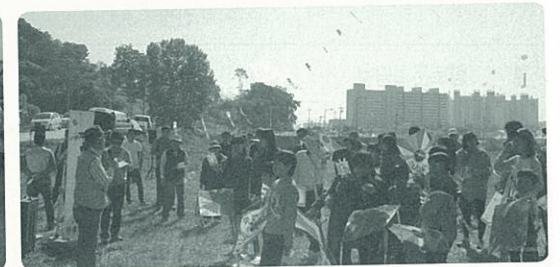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0	지역문화특성화사업 - 논산의 전통 음식 속에 담겨진 역사 문화 찾기	기간 : 6월 ~ 12월 장소 : 논산관내 인원 : 10명 대상 : 논산시민	논산 지역의 유명 종가나 일반 가정의 고유하고 독특한 음식을 찾아 책으로 발간
11	우리문화 즐기기사업 - 화재 맥이소금단지 문기 학술조사 연구	기간 : 6월 ~ 12월 장소 : 논산관내 인원 : 10명	양촌면 탑안이 마을 천령제와 산신제, 양촌2리와 임화4리 소금단지 문기 풍습 조사 및 책자 발간
12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 더불어 별별생각하는 기억상자	기간 : 6월 ~ 12월 인원 : 9명 장소 : 자연체험미술학교 토감 대상 : 논산시 어르신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은 보수 교육(6회)을 통해 위로시설과 축제 등 봉사 활동(7회), 대전서구문화원과 교류회, 충남문화 홍보단들의 한마당 참가
13	충남정신발양사업 논산 문화 유적 답사	기간 : 6월 ~ 12월(총6회) 장소 : 논산관내 유적지 인원 : 250여명 대상 : 논산시민	논산 시민을 대상으로 임리정, 팔괘정, 돈암서원, 명재고택 등 문화관광해설사와 답사
14	제23회 충남도지사배 민속 대제전	일시 : 6월 21일 10:00 장소 : 대천해수욕장 인원 : 30명	씨름, 줄다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줄넘기, 힘자랑, 윷놀이 7종목에 선수 총26명 참가, 종합 5위
15	제4회 논산시어르신 장기대회	일시 : 6월 26일 09:00 장소 : 놀이새마을금고 4층 인원 : 200여명 대상 : 논산시 어르신	논산시 읍·면·동 어르신 선수 60여명이 출전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 후 시상
16	어르신문화학교 - 전통 색한지에 담긴 어르신 공예가의 꿈	기간 : 7월 ~ 12월 장소 : 취암동사무소 회의실 인원 : 22명 대상 : 논산시 어르신	어르신 한지 공예반으로 20회 하루 3시간씩 한지 이론과 작품 제작 활동 및 전시회 개최, 서산문화원과 전주 방문, 충남문화 홍보단들의 한마당 참가
17	제8회청소년문화제	기간 : 7월 ~ 8월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외 인원 : 1,000여명 대상 : 논산시 학생	논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회호UCC공모전, 제28회 논산시 호글짓기 및 문화재 그림 공모전, 청소년들이 춤, 노래, 국악, 연주 부문을 경연하는 '내 마음의 푸른 꿈' 개최
18	인문학 포럼	일시 : 7월 5일 19:00 장소 : 논산돈암서원 인원 : 200여명	KBS TV쇼 진품명품 김영복 감정위원 초청 특강, 가수 해바라기 공연 개최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9	제3회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일시 : 9월 24일 19: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인원 : 150여명	논산공고 기타동아리 소리샘, 통기타가수 목진설, 월드뮤직앙상블, 나무밴드 등 출연
20	제24회 논산시 서예회호대회	일시 : 9월 28일 10: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인원 : 150여명	논산시서예협회 주관으로 학생과 일반인이 참가한 가운데 서예 대회 후 심사 시상 및 전시회 개최
21	독서의 달 행사 독후감 공모전	기간 : 9월 ~ 10월 인원 : 80여명 대상 : 논산시 학생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논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여 심사하고 시상
22	제3회 논산향시	일시 : 10월 12일 10:00 장소 : 논산돈암서원 인원 : 500여명	개막 퍼포먼스, 향시 및 한글 8행시 글짓기, 장원 급제자 행렬, 국악공연, 택견시범, 각종 민속놀이 등 개최
23	제1회 강경포구 전국 연날리기대회	일시 : 10월 20일 10:00 장소 : 강경옥녀봉 천변 인원 : 100여명	전국 최우수축제인 강경발효젓갈축제 일환으로 초·중·고등, 대학일반부로 나누어 전국 연날리기 대회 개최
24	강경 등록문화재탐방	기간 : 10월 16일 ~ 10월 20일 장소 : 강경발효젓갈축제장내 인원 : 200여명	전국 최우수축제인 강경발효젓갈축제 일환으로 등록문화재 직접 찾아가 보기, 해설사와 문화재 탐방, 젓갈학교 등 운영
25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	일시 : 11월 2일 17:00 장소 :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인원 : 200여명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문학속의 논산'이라는 주제로 논산시낭송인회 낭송과 클래식 및 국악 등 협연
26	『논산의 금석문 제2집』발간	기간 : 1월 ~ 12월 인원 : 3명 발행부수 : 500부	1집에 누락된 금석문과 조선시대 찬한 비문, 연산현, 노성현, 은진현의 각종 선정 및 불망비 등 조사, 수집, 번역 발간
27	청소년 서적 명재 윤증	기간 : 4월 ~ 12월 인원 : 5명 발행부수 : 500부	명재 윤증 선생을 중심으로 손진호 만화작가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발간 배포
28	계간지 논산문화	기간 : 1월 ~ 12월 인원 : 50여명 발행부수 : 1,500부(연4회)	논산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권두시, 칼럼, 논단, 생활속의 그림찾기, 문화원장이 들려주는 논산 이야기, 문화재 바로 알기, 포토에세이, 선인들의 삶과 지혜, 현대사산책 등 23여개 코너로 연4회 계간지로 발간하여, 각 기관 및 단체, 학교, 도서관, 문화원 회원 등 배포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9	논산문예 제21집	기간 : 1월 ~ 12월 발행부수 : 500부	제28회 논산시 청소년 호 글짓기 공모전 입상작들을 엮어 발간 및 배포
30	논산시 주최 문화예술행사 주관(11개)	기간 : 1월 ~ 12월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건양대, 논산공설운동장 등 인원 : 논산시민 대상	충남교향악단과함께하는김영철의 편편클래식 뮤지컬년센스, 연극미운남자 정태춘박은옥의작은콘서트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공연, 3디바뮤지컬콘서트 KBS출발드림팀과함께하는시민의날음악회 수험생과시민을위한논산사랑희망콘서트 7080낭만콘서트, 웃으면복이와요리턴즈 송년음악회



가족과 함께하는 논산문화교실



강경포구 전국 연날리기 대회



논산 시민의 날 음악회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



인문학 포럼

2013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4.4독립만세운동학생백일장	일시 : 4. 4 장소 : 창의사 인원 : 500명	대호지 4.4 독립만세운동기념 학생백일장 공모 및 시상
2	전통성년례	일시 : 5. 12 장소 : 창의사 인원 : 300명	제41회 성년의날을 맞아 "전통성년례" 개최
3	초부 김용재선생 학술세미나	일시 : 5. 12 장소 : 당진문화원 인원 : 300명	예능독서회운동과 건국정치 활동을 중심으로 초부 김용재선생의 항일활동과 건국정치활동 토론
4	향토문화탐방	일시 : 3. 1 ~ 11. 30 장소 : 당진문화원 횟수 : 300명	테마별 관 내·외 문화 명소를 찾아 탐방, 벤치마킹
5	미술실기대회	일시 : 10. 19 장소 : 도이리 참여인원 : 200명	관내 유치부, 초·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개최 및 시상
6	학생백일장 공모	일시 : 9. 1~10. 15 장소 : 충장사 참여인원 : 300명	남이흥 장군의 애국애족정신을 본받는 백일장 공모 및 시상
7	당진시립박물관 기증 유물전	일시 : 12. 2 ~ 12. 9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참여인원 : 3,000명	당진시민에게 당진시립박물관에 기증될 유물을 미리 선보이고자 전시회 개최(약 2,000여점)
8	명사 시 낭송회	일시 : 12. 10 장소 : 당진문화원 참여인원 : 200명	지역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시 낭송회 개최
9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일시 : 5. 1 ~ 12. 30 단원 : 40명 공연횟수 : 6회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노소미합창단"을 결성 교육 및 공연활동을 함
10	해외문화탐방	일시 : 6. 1 ~ 6. 12 장소 : 동유럽 8국 인원 : 18명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독일·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오스트리아·네덜란드 탐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1	문화원장역사문화탐방	일시 : 8. 22 ~ 8. 30 장소 : 시애틀/록키산맥	외국의 문화행정, 문화행사에 대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자 문화원장 대상 탐방 실시
12	문화예술의 향연	일시 : 10. 23 ~ 10. 27 장소 : 당진문화원 참여인원 : 400명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유화, 수채화, 연필 인물화)
13	찾아가는 문화나눔	일시 : 4. 1 ~ 11. 30 장소 : 지역 복지시설 횟수 : 10회 참여인원 : 700명	지역복지시설 찾아 국악, 무용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시행
14	소외계층 역사교육	일시 : 4. 1 ~ 11. 30 대상 : 소외계층 횟수 : 5회 참여인원 : 700명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15	남이흥장군문화제	일시 : 10. 19 장소 : 대호지면 도이리 참여인원 : 1,000명	제25회 남이흥장군문화제 개최 기념식, 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16	당진문화 발간	일시 : 7. 30 / 12. 30 발행부수 : 각 2,000부	문화원소식 및 지역문화 소식과 정보를 수록 39호, 40호 발행
17	당진의 사찰	일시 : 3 ~ 12월 발행부수 : 1000부	당진지역의 사찰을 연구하여 책으로 보급
18	면양잡록 해제	일시 : 5. 1 ~ 12. 20	연암 박지원 면천군수 재직시 집필했던 면양잡록 4,6,7,8책을 번역하여 당시 지역의 생활상을 조명
19	대호지의 문화환경과 도호의숙	일시 : 5. 1 ~ 12. 30 발행부수 : 1,000부	대호지만의 문화환경과 애국정신을 이어주는 교육기관으로 "도호의숙(桃湖義塾)"의 역할을 연구·조사하여 조명함.
20	문화학교	일시 : 연중 인원 : 1,500 강좌수 : 17개 강좌	당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문화탐방



미술실기대회 시상



전통성년례



찾아가는 문화나눔



학술세미나



해외문화탐방

2013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해맞이행사	일시 : 1월 1일 7:00 인원 : 2,000명 장소 : 성주산 일출전망대 대상 : 문화원 회원 및 시민	농악놀이, 새해인사, 소망기원 촛불점화, 축시낭송, 신년메시지, 통일기원합창, 해오름함성 및 새해소원 풍선날리기, 복선돌나뉘주기, 축하음악
2	신년하례회	일시 : 1월 2일 11:00 인원 : 400명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대상 : 유관기관 단체 및 신년 하례회 신입회원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3(축)년을 맞이하여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화합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을 다짐하는 행사 • 명부 발행
3	제94주년 3.1만세 항일애국지사 추모기념식	일시 : 3월 16일 10:30 장소 : 주산면사무소 광장 인원 : 500명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높였던 우리고장 항일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과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 • 기념식 • 시가행진 및 재현
4	문화가족 문화유적답사	일시 : 4월 30일 인원 : 122명 장소 : 창덕궁 및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대상 : 대천문화원 회원	문화원 회원의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
5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석	일시 : 6월 21일 선수단 : 60명 장소 :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 도민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고유의 전통 문화유산 전승 보존을 위하여 제23회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 종목 : 씨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널뛰기, 힘자랑, 제기차기, 윷놀이
6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일시 : 10월 22일 11:00 장소 : 청소면 재정리 장군묘역 참석 : 500명	백야 김좌진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 추모하고 애국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모제향 자념 • 1부 제례의식 • 2부 추모행사
7	김성우 장군 추모제향	일시 : 11월 1일 11:00 장소 : 청라면 라원리 장군묘역 참석 : 500명	고려 말 전라도 도만호 김성우 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길이 추모하고 애국충성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추모제향을 자념 • 1부 제례의식 • 2부 추모행사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8	우리고장바로알기교양강좌	일시 : 4월~10월 장소 : 대전문화원 소강당 및 문화유적 현장답사 참석 : 2,000명	시민들에게 우리고장 향토문화를 바로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강의 및 답사 실시 • 강사 : 공주대 교수(김여상, 김중현, 서정석, 유기준, 윤용혁, 이해준, 정재윤, 지수걸), 한남대 이필영 교수, 동의대 송근배 교수, 향토사학자 이덕영, 임근혁, 황의천 • 답사지 : 보령관내(남포 · 주산 · 성주, 외연도)
9	추석맞이 전통민속 체험	일시 : 9월 10일 16:30 장소 : 대전애육원 인원 : 60명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전통민속 예절교육 및 체험행사 진행 • 차례상 진열 및 차례 법 교육 : 향교 유림 지도 • 체험행사 : 송편 빚기
10	보령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일시 : 11월~12월 장소 : 대전문화원 2층 강의실 인원 : 500명	문학, 역사, 미술, 음악 등 교양 있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거둠
11	제16회 문화학교 회원 작품 전시회	일시 : 12월 5일~12월 7일 장소 : 보령문화회전당 참석 : 300명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과 우리 지역의 재능 있는 예술인의 발굴 육성을 도모 • 출품 : 서예, 한국화, 서각, 사진, 문인화 • 발표회 : 기타교실, 국악교실, 가야금교실
12	어르신문화학교	기간 : 5월 ~ 11월 과목 : 은빛풍물예술단 운영 참여 : 60명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통해 생활 속의 기쁨과 희망을 담아내며 몸과 정신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 마련 주강사 : 김재중, 보조강사 : 황규숙 지 역 : 대전5동
13	문화학교 운영	과목 : 서예, 한국화, 서각, 일본어, 가야금, 민요, 한문, 문인화, 기타 횟수 : 년 중 주 1회 참여 : 2,000명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14	애향지 발간(제17집)	발행 : 12월 20일 발행부수 : 1,200부	보령시내 향토사료 발굴 및 발간하여 내 고장의 문화를 알림
15	보령문화마당 발간(4호, 5호)	발행 : 6월 30일 12월 30일	문화원 사업 및 향토소식들을 정리하여 문화원 회원 및 시민에게 정보 전달
16	「보령의 흥기·축문집」 발간	발행 : 12월 20일 발행부수 : 1,000부	보령지방에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제향의 흥기와 축문을 조사·정리하여 향토문화의 기초자료로 삼고, 소멸되는 향토문화를 복원하고자 발행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보령의 사계」 발간	발행 : 7월 30일 발행부수 : 1,000부 저자 : 최관수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돌아보며 시, 수필, 기행문, 기고문 등으로 구성
18	「남포 대천장과 그 흔적을 찾아서」 발간	발행 : 11월 30일 발행부수 : 1,000부 저자 : 황의천	남포대천장 관련 자료를 정리 기록하여 잊혀져가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발행
19	「효자도 마을」 발간	발행 : 11월 30일 발행부수 : 1,000부 저자 : 황의호	효자도 마을의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조사하여 단행본으로 발간



문화유적답사



회원작품전시-발표회



신년하례회



우리고장바로알기강좌



제94주년 3.1만세 항일애국자사 추모기념식



추석맞이 전통민속체험

2013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8회 전국 백제토기 경연대회	기간 : 9. 28~9. 29 장소 : 구드래광장 참여인원 : 110명	전국 도자(도예)관련 전공 대학생 백제토기 경연대회 및 일반인 아마추어 토기만들기대회 실시
2	어린이 역사교실	기간 : 4. 27~12. 7 장소 : 전국 주요 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240명(8회)	군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월1회 국내 문화유적 답사 및 문화체험 ※어린이역사교실
3	제11회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기간 : 5. 10(금) 장소 : 부여군민체육관 참여인원 : 308명	우리나라 대표적 민족시인 신동엽 시인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생가와 문학관에서 도내 초·중·고 학생이 참가하는 백일장
4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강좌	기간 : 1. 3~1. 4 장소 : 강원도·충북유적지 참여인원 : 40여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 위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5	문화현장탐방교육	기간 : 4. 4~11. 19 장소 : 전국문화현장 참여인원 : 240명(3회)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국내 주요유적지 답사 및 문화체험(서울경기지역2회, 충북지역 답사)
6	우리는 문화가족	기간 : 6. 23~12. 28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320명(4회)	가족단위 국내 주요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시회 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7	2013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기간 : 5. 4~11. 2 장소 : 군내 주요유적지 참여인원 : 500명(7회)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사와 함께하는 관내 주요문화유적답사 및 문학기행(유홍준, 김용택, 박상진 등)
8	우리땅 우리역사바로알기	기간 : 11. 23~11. 24 장소 : 강원도 유적지 참여인원 : 40명	군내 공직자 가족을 위한 문화유산 순례강좌로 『단종의 애사와 아우라지를 찾아서』 강원도 일원 답사
9	열린문화공연 작은음악회	일시 : 8. 3(토)/8. 17(토) 장소 : 궁남지 야외무대 참여인원 : 600명(2회)	궁남지 야외무대에서 초청공연과 지역 음악동호인들의 공연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10	제11회 홍산대첩문화제	일시 : 4. 16(화) 장소 : 홍산 태봉산성 일원 참여인원 : 10,100명	고려시대 왜적격퇴의 3대 승리인 홍산대첩을 주제로 한 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지역향토축제(홍산대첩제 제향 및 문화행사)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1	제11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일시 : 7. 18~7. 21 장소 : 궁남지(사적135호)일원 참여인원 : 30만여명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궁남지에 연꽃축제를 개최함으로 관광객을 증진하는 관광문화축제 메인프로그램 3중, 공연프로그램 4중, 경연프로그램 2중, 상설프로그램 20중(전시, 체험) 등 다채롭게 운영함.
12	2013 백제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	기간 : 3. 2~11. 30 장소 : 부여군 주요 유적지 참여인원 : 1,636명(79회)	매주 토요일·일요일 정례적으로 투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백제왕도 이미지를 부각함
13	출향인사 및 출향공무원 백제역사문화탐방	기간 : 1. 1~12. 30 장소 : 부여군 문화유적 참여인원 : 100명	우리고장 출신인 중앙부처 공무원과 우리군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관내 문화유적 답사
14	초촌 추양리 두레 풍물 발굴조사	기간 : 3. 1~12. 30 장소 : 부여문화원 발굴부수 : 700부	250년 전통의 초촌 추양리 두레풍물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발간(가는풍장, 두레풍장, 꽃나비풍장, 노름마치, 판굿 등 발굴수록)
15	2013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연	기간 : 4. 13~8. 24 장소 : 부여군일원 참여인원 : 4,500명(9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희망과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말저녁 아름다운 문화유적지에서 열린문화 공연 개최
16	2013 제5회 평생학습 & 주민자치 발표회	기간 : 10. 1(화) 장소 : 구드래공원 행사장 참여인원 : 500명	부여군내 평생학습 &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여 군민과 공유함으로써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17	제14회 성흥산 해맞이 행사	기간 : 1. 1(화) 장소 : 임천 가림산성 참여인원 : 3,000명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촛불기원, 새해소망 기원제, 소원지 풍선날리기, 새해운수보기 등 실시
18	2013 신년교례회	기간 : 1. 2(수) 장소 :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참여인원 : 400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년교례회 명부 등 발간
19	관광정보센터운영	기간 : 1. 1~12. 31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8,000여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우리는 문화가족



우리땅 우리역사바로알기



제11회 시인 신동엽백일장



어린이역사교실

2013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창말당제 학술조사	책임연구자 : 이필영 발행부수 : 500부	성연면 명천리 창말당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책자발간
2	문화유적 현장학습	일시 : 5. 30~31 장소 : 충북 단양 인원 : 41명	단양 지역의 대표축제인 소백산 철쭉제와 문화재를 답사하여 벤치마킹 및 역사익식 제고
3	스산의 숨결발간	발행부수 : 월 2,100부 월간지 발간	회원 및 전국문화원, 출향민을 대상으로 서산문화원보 '스산의 숨결' 발송
4	서산의 설위설경 학술조사	책임연구자 : 이필영 발행부수 : 500부	서산지역에 독특하게 내려오고 있는 설위설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통한 자료집을 발간
5	오정취당 시 도록발간	일시 : 10. 11~13 장소 : 서산 해미읍성 전시 : 서예작품 20점 발행부수 : 500부	조선시대 여류시인 오정취당의 한시 180수를 서예로 작성하여 서체집을 만들고 일부작품은 전시
6	서산시 평생학습 발표회	일시 : 9. 12~13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서산시 문해백일장 수상작과 관내 우수동아리 작품 등을 모아 전시
7	어르신문화학교	기간 : 9. 9~11. 26 장소 : 서산문화원 강좌 : 한지공예 인원 : 30명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수업실시. 답사2회, 전시1회 개최
8	지역문화학교	기간 : 3~6월(상반기) 7~8월(여름특강) 9~11월(하반기) 인원 : 연1,200명 강좌 : 상반기-24개 여름특강-9개 하반기-30개	서산시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수업 종료 시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수료식 실시
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 지원사업	일시 : 10. 25 대상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수강생 장소 : 전주시 한지산업지원 센터 인원 : 40명	논산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한지공예) 수강생들과 함께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력향상 및 수강생들의 교류의 장 마련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0	충남 문화홍보단들의 한마당	일시 : 11. 7 장소 : 홍성문화원 인원 : 35명	권역별 어르신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충남 문화홍보단들의 한마당'에 본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전시부스 및 체험부스 운영
11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기간 : 4월~11월 인원 : 80명 내용 : 규방공예, 임신부요가	서산 관내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태교와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한 강좌 운영
12	제23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일시 : 6. 21 장소 : 대천해수욕장 인원 : 38명	중도일보가 주관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제23회에 충청남도지사배민속대제전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속문화 계승 및 발전의 장 마련
13	제15회 청소년문학제	대회일시 : 4. 13 참 여 자 : 800명 시상일시 : 5. 22 수 상 자 : 72명	서산지역 출신의 대표적 문인인 민태원, 윤곤강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문학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백일장을 개최하고 우수작을 선별하여 시상식 개최
14	템플스테이 플러스원투어	기간 : 4월~11월 대상 : 템플스테이 이용객 인원 : 124명	서산관내 템플스테이 사찰인 부석사와 서광사 템플스테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서산관광 실시
15	서산문화대상시상	일 시 : 11. 28 수상자 : 신세철(서각)	서산지역 문화예술 공적이 뚜렷한 분에게 심의를 통한 시상
16	청소년문화상시상	일 시 : 11. 28 수상자 : 초·중·고 총3인	효행, 예행, 선행을 실천한 학생을 심사하여 시상
17	성년례	일시 : 5. 20 장소 : 한서대학교 대상 : 한서대재학 유학생 20명	성년을 맞이하는 20세 성인을 대상으로 전통성년례 개최
18	노인일자리사업	기간 : 3월~12월 인원 : 58명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도우미와 교육강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파견
19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기간 : 4월~8월(총 7회) 인원 : 620명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사와 함께 서산의 관광지와 아라메길을 홍보
20	우리문화 즐기기	기간 : 7월~12월 부수 : 1,000부	서산지역 가로림만에 소재하는 4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학술조사를 통한 책자발간 및 학술세미나 개최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1	제12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기간 : 10. 11~13 장소 : 서산해미읍성	서산 해미읍성에서 조선시대 역사체험을 해볼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
22	학술세미나 참석	일시 : 11. 18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인원 : 40명	문화원 회원, 관내 전통예술 관련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내포지역의 보존·계승을 위한 정책방향' 학술세미나 참석
23	문화원장 선진문화탐방	일시 : 8.22~30 장소 : 시애틀, 밴쿠버, 로키산맥	외국의 문화행정, 문화행사에 대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선진문화탐방 참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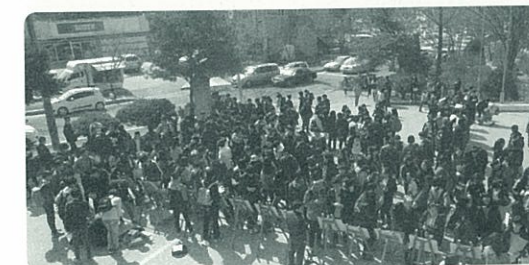
지역문화학교



서산시평생학습발표회



어르신문화학교



제15회 청소년문학제



제23회 충청남도지사배민속대제전

2013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14회 기벌포 대보름제	일시 : 2. 23 장소 : 마산면 진다리 인원 : 300명	보름음식나누기,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행사를 마을과 연계하여 마을주민들과 서천군민들과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 참여
2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사업	일시 : 4월~11월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20여명	어르신 동아리로 내포제 시조 및 판소리 동아리를 운영하고 전국남녀시조경향대회를 열어 어르신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청소년 제13회 신석초 백일장	일시 : 10. 4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250여명	서천문화원에서 40년동안 이어져 오는 전통있는 행사로 해마다 250여명이 참여하여 백일장 기량을 겨룸
4	제40회 청소년 서예 및 그리기 대회	일시 : 10. 4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250여명	초·중·고등부로 대회를 실시하여 심사 후 대상 및 최우수, 우수 및 장려상으로 상장과 상품(도서상 품권)을 100여명에게 수여
5	학술연구사업	기간 : 5. 6~11. 30 제목 : 옛성씨뿌리찾기 부수 : 1000부	서천의 유래가 깊은 성씨를 찾아 연구하고, 책으로 발간
6	전시사업	일시 : 7. 5~15 (10일간)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500여명	제10회 서천문화원 작가 초대전을 공모하여 응모된 작가를 선정 작가 초대전 전시회를 지원
7	문화프로그램사업	일시 : 1월~12월(연중)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각 20여명	서천문화원 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서예, 문인학교 실, 전통다례, 오카리나, 색소폰, 난타, 역사강좌를 운영
8	공연사업	일시 : 8. 26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200여명	서천문화원 문화교육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익힌 기량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고 출연팀을 섭외하여 한여름밤 힐링콘서트등을 진행
9	문화유적답사	일시 : 5월~10월 (4차례) 장소 : 경북하회마을 외 인원 : 180여명	문화유적답사로 국립수목원일대, 홍성김좌진생가외, 경북양동마을외, 경북 하회마을 등 답사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0	문화지 발간	일시 : 6월~9월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5명 발행부수:700부	문화지 발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천문화원 소식지로써 문화,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소재로 기획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지로 발간
11	서천지명탄생 600주년 역사서 발간	일시 : 7월~12월 발행부수 : 5권 각 1,000부	이번 역사서는 읽기 쉬운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편찬하되, 향후 만화로도 출간 가능할 수 있도록 쉬운 역사서 편찬
12	서천지명탄생 600주년 역사서 세미나	일시 : 10. 10 장소 : 서천문화원 강당 인원 : 150명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
13	마음으로 그린 서천 풍경전	일시 : 10. 9~18 장소 : 서천문화원 전시실 참여인원 : 지역작가6명 외지작가95명	천혜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서천의 풍경을 전국의 사생단체와 지역작가 및 출향작가들이 서천의 명소를 사생하여 전시
14	기벌포예술제	일시 : 11. 16~23 장소 : 서천문화원 일대 주관 : 기벌포예술제추진위	다양한 전시, 공연, 문학의 밤, 학술세미나, 가족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서천의 문화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15	향토민속발굴사업	일시 : 7월~11월 용역 : 문화순연구원	서천에서 배출한 훌륭한 여성시인들의 삶과 문학지를 발굴하여 시집발간 기념회 및 강연회
16	어르신 자서전	일시 : 7월~12월 인원 : 17여명	과거 인물이 아닌 현재 어른들의 인생을 조망하고 기록물로 남김으로써 고향을 지키는 어른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17	김홍도 전시회	일시 : 5. 3~15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300명	"조선의 화선 단원 김홍도전" 및 특별강연을 진행 하고 서천지역의 청소년과 군민들에게 예술감상기회 제공
18	문화역사 마을 활력·재생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일시 : 11. 1~30 장소 : 동자북마을 인원 : 40여명	문화역사마을 활력·재생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소곡주체험, 염색체험, 모시음식만들기 체험 등
19	큰덕어울국악단 공연	일시 : 12. 16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100여명	서천군민들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큰덕어울 국악단을 초청하여 공연 개최
20	서천지명탄생 6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일시 : 12. 13 장소 : 서천문화원 인원 : 100여명	서천 전통지식인들의 삶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학술대회 개최



기벌포문화예술제



단원김홍도 전시회



문화유적답사



역사서 발간 기념 세미나



초대작가전



청소년 회화 및 문인화대회



힐링콘서트

2013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6회 예당호 해맞이	일시 : 1월 1일 장소 : 예산군 예당호 인원 : 2,000명	예산군 예당호에서 새해 해맞이를 통해 예산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2	예산군 신년교례회	일시 : 1월 5일(화) 장소 : 예산읍소재 한일플라자 인원 : 350명	예산군 각급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들의 신년 인사회 개최
3	해외 문화답사	일시 : 연중 1회 장소 : 예산6천 명암최익현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 인원 : 200여명	예산6천 면암 최익현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 2박 3일 간의 일본 대마도 문화답사
4	전통 마을 동제	일시 : 연중 장소 : 예산군내 7마을 인원 : 700명	예산군내 마을동제의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7곳마을의 동제 지원
5	문화학교 사업	일시 : 연중 장소 : 예산문화원 인원 : 500여명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119개 프로그램 운영
6	문화유적 문화탐방	일시 : 연중 2회 장소 : 경남 남해군일원, 서울 국립박물관	년 2회 계획된 문화유적 문화답사
7	어르신 문화학교	일시 : 연중 장소 : 예산문화원 인원 : 90여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종합예술단 활동으로 아코디언, 하모니카, 합창단 운영
8	우리문화한발 더다가기 (내포역사문화강좌)	일시 : 6월~8월까지 매주1회 장소 : 예산문화원 인원 : 30여명	예산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지역의 숨겨진 문화유적을 돌아보고 지역의 문화 유적을 재발견하는 프로그램
9	충청남도 예산말 사전2권 발간	일시 : 연중 발행부수 : 1,500권 저자 : 이명재	충청남도 예산지역의 방언을 모아 사전형식으로 발간한 서적으로 전국의 방언연구를 위한 2번째 향토 방언사전 편찬
10	예산문화 47호 발간	일시 : 연1회 발행부수 : 각 800권	연중발간되는 원보로 예산지역의 문화활동상황을 종합한 종합 문예지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1	조선4대명필 자암김구 전국서예대전	일시 : 8월~12월	예산출신 조선4대명필중의 한분이신 자암 김구선생의 선양을 위한 전국 서예대전 개최
12	예산 문화산수화 2권 발간	일시 : 연중	충남문인협회 신익선 선생님의 예산의 문화재를 서사시로 엮은 두 번째 시집 발간
13	자암김구 학술세미나 및 유품전시회	일시 : 12월 12일 장소 : 예산문화원	조선4대명필 자암김구선생의 업적을 되짚어 보는 학술 세미나 및 유품전시회 개최
14	제15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청소년 회화대회	일시 : 10월 12일 장소 : 예산군 추사고택 상격 :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의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예 회화대회 개최
15	제24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일시 : 10월 13일 장소 : 예산군 추사고택 상격 : 장원(국무총리상) 특별상(국회의장상)	전국의 서예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서예 회화대회 개최
16	2013 전국 공예트랜드 페어 참가	일시 : 12월 19일~22일 장소 : 서울 코엑스	예산군 관내 전통 공예품을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 홍보 판매
17	사이버 향토자료관 구축사업	사업기간 : 연중	예산문화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여 발간서적등의 e-book자료화, 전국 어디서나 관람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온라인 향토장터를 개설하는 홈페이지 재단장 사업
18	제16회 문화학교 종강식 및 작품 발표회	일시 : 11월 29일 장소 : 예산문화원	총 22개 문화운영 문화학교의 종강식 및 작품 발표회
19	어르신 문화축제	일시 : 11월 7일 장소 : 홍성문화원	충청남도 어르신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전시 발표 한마당 참가
20	예산군 옛사진 공모전	일시 : 10월 31일 장소 : 예산문화원	예산군에 관련된 옛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도록 편찬 사업
21	예산 대흥 임존성 제단 설치 사업	일시 : 9월 26일 장소 : 대흥 임존성	백제 복국 운동의 마지막 항전지인 대흥 임존성에 부흥군 위령 제단 건립



대표사업추사회화개회



대표사업추사회화대회

2013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신년교례회	일시 : 1월 2일 인원 : 200명 장소 : 온양관광호텔 대상 : 관내 기관장 및 대표	새해를 맞아 건강을 기원하고 업무협조 체제 구축 신년교례회 수첩배포
2	정월대보름 민속경연대회	일시 : 2월 22일 인원 : 1,000여명 장소 :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종목 :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조상의 얼과 민족의 흥을 찾을 수 있는 계기 마련
3	4.4 아산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일시 : 4월 4일 인원 : 800명 장소 : 선도중학교 및 기미 독립무인, 열매기념탑 대상 : 각 기관단체장 및 초·중학생	학생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및 전문극단의 현장감 있는 독립만세운동 퍼포먼스를 통하여 아산지역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4	6.25사진전	일시 : 6월 13일~25일 장소 : 관내 학교 및 신정호수 공원	6.25전쟁 당시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100여점을 순회하며 전시 사전에 전시회 신청을 받아 9개 초·중학교를 순회하며 전시를 하였고 주말을 이용하여 신정호국민관광단지에 전시 6.25전쟁사진 전시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당시의 사진을 통하여 6.25 전쟁의 참상을 바로 알리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아리랑스카프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전쟁의 슬픔을 생각해 보는 기회 마련
5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	기간 : 1차-8월 24일~25일 2차-8월 31일~9월1일 활용유적 : 현충사,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봉곡사 인원 : 회당 40명내외 (1차 10가족, 2차 10가족) 자격 : 초등학교 1~4학년 아동 및 부모	가족단위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우리 고유문화계승 및 발전과 주말 놀이동산 중심의 여가생활에서 문화유산으로 다변화 유도. 부모입장에서 아이에게 들려주는 형식의 진행방식으로 아이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 고취. 충무공 유물찾기, 다도예절교육, 떡메치기체험, 땅콩캐기, 구연동화,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6	제7회 맹정승골든벨을 올려라	일시 : 9월 17일 인원 : 180명 장소 : 인주중학교 강당 대상 : 인주중학교 학생	지역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맹사성 관련문제와 내고장 관련 상식문제 풀이를 실시하여 지역문화 바로알기에 기여함
7	제14회 아산청백리상 및 제15회 어린이맹사성상	일시 : 10월 2일 인원 : 200명 장소 : 온양문화원 3층 대강당 대상 : 수상자 및 아산시민	고불 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고자 아산청백리상(선비상, 스승상, 지킴이상 부문) 및 어린이 맹사성상(忠·孝·禮·義·文 부문)을 선발하여 시상함.
8	문화탐방	기간 : 3월~11월 인원 : 연인원 500여명 장소 : 서천군, 경주시, 순천시, 고양시, 파주시, 음성군, 천안시, 영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대상 : 아산시민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지역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배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의식 고취에 기여
9	환경체험프로그램	기간 : 5월~11월 인원 : 연인원 140명 장소 : 문화원 및 관내 숲 대상 : 관내청소년	재활용 목재를 활용하여 새집을 만들어 직접 달아주는 체험을 함으로서 청소년의 자연보호 정신을 고취시킴.
1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생활양식 속의 모더니즘)	□ 전통매듭 -기간 : 7/10~7/31 -인원 : 20명 -대상 : 아산시민 □ 우리전통놀이 -기간 : 8/5~8/14(월,수요일) -인원 : 20명 -대상 : 아산시민 □ 천연염색 -기간 : 8/7~8/28 -인원 : 20명 -대상 : 아산시민 □ POP 예쁜글씨 -기간 : 9/2~9/23 -인원 : 20명 -대상 : 아산시민 □ 도자기핸드페인팅 -기간 : 10/10~10/31 -인원 : 20명 -대상 : 아산시민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하여 폭넓은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산실로 육성 발전시켜 나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개발 및 시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1	청소년 숲 힐링 문학캠프	기간 : 4월~12월 장소 : 경기도 포천시 국립광릉수목원,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신정호국민관광단지 대상 : 중·고등학생 참여인원 : 120명	2013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청소년들의 건강, 학습 스트레스, 우울감 학교내 왕따, 스마트폰과 게임 과몰입 증상으로 몸과 마음에 힐링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유익한 시간활용을 위하여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정서를 치유하고, 건강한 학습 능력함양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및 문학을 통하여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12	문화학교	과목 : 짚풀공예 일시 : 1월~12월 장소 : 온양문화원 대상 : 아산시민 인원 : 120여명	농사를 짓고 나서 얻은 부산물인 벼짚과 보리 짚 등을 이용하여 짚신, 삼태기, 망태 등 생활용품 제작
13	문화강좌	기간 : 6월~12월 장소 : 온양문화원내 참여인원 : 700여명 대상 : 아산시민	다도, 생활영어, 전통매듭, 서양화, 서예 운영
14	어르신 문화학교	일시 : 5월~12월 인원 : 160명 장소 : 온양문화원&요양원 및 복지시설 강좌 : 아코디언	음악공연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활동 증진 및 취미생활과 문화활동에 기여 음악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외된 복지시설 방문으로 무료 공연 실시
15	온정수신제	일시 : 10월 16일 장소 : 온양온천역 광장 인원 : 200여명	대한민국온천대축제 개막행사로 옛 궁중에서 거행된 정제와 촌락에서 거행되던 정신제의 제반의식 절차를 가미, 현대화하여 진행되는 제례 의식
16	온양문화	일시 : 상·하반기 발행부수 : 상·하반기 각 1,000부	문화원에서 실시한 사업을 수록하여 회원 및 각 기관단체와 전국문화원에 배포
17	토정 이지함의 삶	기간 : 6월~12월 장소 : 온양문화원 발행부수 : 2,000부 발행예정	아산지역의 백성 구제와 구국의 방략을 실천했던 토정 이지함 선생의 발자취 및 위대한 업적과 흔적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그 분의 일대기에 관한 토정 이지함의 삶을 발간 교육 자료 및 문화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함
18	곡교천의 역사와 문화	기간 : 6월~12월 장소 : 온양문화원 발행부수 : 500부 발행예정	아산시 젓줄 곡교천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정리하여 내 고장 알기와 문화콘텐츠 개발 자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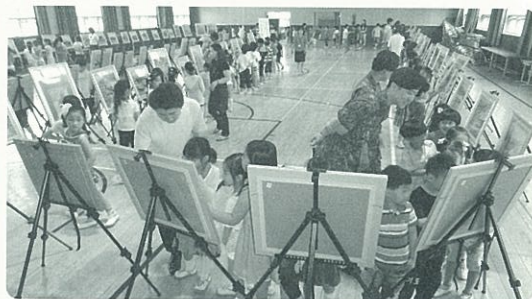
신년교례회



정월대보름 민속경연대회



4.4 아산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6.25 사진전



청소년 숲힐링 문학캠프



2013 우리문화 즐기기사연



제178차 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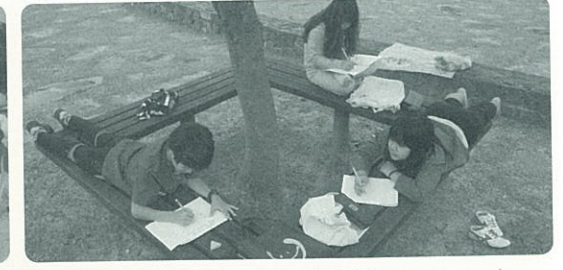
온정수진제

2013년 천안시동남구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29회 아우내 단오축제	일시 : 6월 11일 장소 : 병천면 공영주차장 인원 : 2000여명	전통민속행사로 매년 행해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전통축제로 단오의 의미를 되새김
2	제39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일시 : 9월 28일 장소 : 유관순열사기념관 인원 : 400여명	유관순열사추모제를 맞이하여 참가한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순국선열들의 혼을 기림
3	지역특성화사업	일시 : 3월~12월 발간인물 : 담헌 홍대용 발간부수 : 1,000여 권	천안시 동남구 지역의 역사인물을 만화책으로 만들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함
4	향토민속발굴사업	일시 : 3월~12월 발간도서 : 천안동남문화 제2호 발간부수 : 1,000여 권	동남구 지역의 문화발굴을 통해 지역민들의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인식을 새롭게 함
5	문화강좌	일시 : 3월~12월 장소 : 문화원 강의실 인원 : 100여명(8개 강좌)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를 통해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을 통한 문화공유
6	제69회 백전민속씨름대회	일시 : 9월 14일 장소 : 돌모루씨름장 인원 : 1000여명	가전리 지역에서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씨름대회 및 줄다리기로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냄
7	문화유적답사	일시 : 3월~12월 횟수 : 4~5회 장소 : 전국유적지 인원 : 1회 45명	유적지를 답사하여 이론적 역사를 활동적 역사로 끌어내 체험할 수 있도록 함
8	이달의 도서	일시 : 3월~12월 장소 : 문화원도서실 대상 : 회원, 문화교실수강생	매월 새로운 신규도서(고전, 역사, 문학, 인기도서) 등을 구입하여 대출



아우내 단오축제



백일장 및 사생대회

2013년 천안시서북구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청소년문화강연	일시 : 12월 17일, 18일, 23일, 24일, 26일 장소 : 관내 중·고교 횟수 : 5회 인원 : 1,500명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개성과 다양성의 청소년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강연
2	주민문화강좌	일시 : 11월 22일, 12월 13일 장소 : 관내 횟수 : 2회 인원 : 150명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강좌
3	『문화사랑 천안』 발간	일시 : 11월 20일 발간 : 500부	우리고장 천안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여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배포
4	제12회 향토작가초대전	일시 : 12월 9일~16일 장소 : 성환역 구내 기간 : 8일 관람 : 15,000명	천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성환역 구내에 특별전시장을 마련하여 8일간 전시하여 성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 제공
5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일시 : 12월 16일, 17일, 19일 장소 : 관내 중고교 횟수 : 3회 인원 : 1,500명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정서 함양 기회 제공
6	노인교양강좌	일시 : 11월 27일, 12월 4일, 11일, 18일 장소 : 성환노인대학 횟수 : 7회 인원 : 420명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레크레이션 등을 주제로 강좌 개최



제12회 향토작가 초대전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2013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신년교례회	일시 : 1. 3 장소 : 문화체육센터 인원 : 250명	신년사, 축사, 상호교례, 오찬 새해를 맞아 출향인 및 군내 각 기관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을 모시고 새해인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하례식
2	문화학교	일시 : 동계, 하계, 하반기 장소 : 청양문화원 인원 : 150명	방학기간 및 하반기 중 10개 강좌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3	칠갑문화 축제	일시 : 4. 19(금) ~ 21(일) 장소 : 지천백세공원, 칠갑산장승공원 참석인원 : 50,000여명	청양의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군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칠갑문화제, 칠갑산장승문화축제, 칠갑산 벚꽃길 건강걷기대회, 제기차기대회를 통합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칠갑산을 연계한 관광문화 축제로 육성
4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일시 : 6월, 11월(총 2회) 참여인원 : 70명	• 순례장소 남원 최명희 혼불문학관, 광한루 전주한옥마을, 대마도(해외문화탐방)
5	지역사회 교육	일시 : 10. 5 장소 : 임실치즈테마파크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6	청소년 역사체험 순례	총 4회 인원 : 150명 장소 : 혼불문학관, 전주한옥마을	옛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애郷심을 고취시키며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줌으로써 민족정기를 선양
7	문화가족동아리운영	기간 : 연중 장소 : 청양문화원	문화원 23개 동아리단체 운영 (문화나눔봉사단 봉사활동)
8	애郷운동	일시 : 10. 19 장소 : 고운식물원 인원 : 200명	고운 꽃향기 속 행복한 시낭송콘서트 -시낭송 및 공연(출향, 문화예술인 초청)
9	문화나눔의밤	일시 : 11. 19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화나눔봉사단 발족기념 『문화나눔의 밤』 음악회 초청가수공연 및 동아리 공연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0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기간 : 4월~11월 장소 : 청양문화원 3층	무용교육, 문화나눔봉사 지역문화축제 참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동(당진)
11	발간사업	발행부수 : 1,000부 발행일 : 12월	향토민속발굴, 내고장문화유산 교육자료 발간
12	문화코너 운영	기간 : 연중	자료열람실(전국향토사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영화감상교실 운영
13	향토사료관 운영	기간 : 연중	향토사료전시관, 역사인물관, 문화재관, 영상실 생활문화관, 민속 및 종교관 운영



대마도 해외문화탐방



신년교례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 활성화사업



청소년역사체험순례



칠갑문화축제 개막식



행복한 시낭송콘서트

2013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당제전승·보전	일시 : 2월 23일 (음 1월 14일) 장소 : 남면 당암리, 남면 신장2리, 소원면 파도리, 근흥면 신진도리, 근흥면 가의도리, 고남면 누동리 대상 : 각 마을주민	태안지역의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당제행사를 계승하여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
2	이원면벚가릿대놀이시연	일시 : 3월 12일 (음 2월 1일) 장소 : 이원면 관리 1구 벚가릿대놀이 전수회관 대상 : 기관장 및 마을주민 참여인원 100여 명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날 긴 장대를 마당 한가운데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 갈래로 지지해 두었다가 머슴의 날인 음 2월 1일 벚가릿대를 뉘이는 행사로 이때 장대 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의 상태를 보고 한해의 풍·흉을 점치며 풍물을 치며 한해의 풍년을 기원함
3	가족문화체험	일시 : 9월 7일 장소 : 이천 도자기체험 일시 : 10월 25일 장소 : 전주 한옥마을 대상 : 가족단위 참여인원 : 110명	문화공간과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주말 문화체험의 경험을 제공함
4	사이버문화원운영	일시 : 연중실시 장소 : 태안문화원 홈페이지	충청남도에서 구축된 사이버 향토지방문화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태안문화원의 문화정보를 365일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하며, 각종 자료, 동영상, 이미지 등을 바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함 향토유물수집병행
5	초·중 미술실기대회	일시 : 10월 13일 장소 : 태안국민체육센터 앞 공원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생 참여인원 : 250명	미술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발굴 및 풍경, 구성, 한국화, 경험화 등 다양한 장르로 구분하여 당일 주제에 따라 그림을 그리도록 함
6	소성의향기 19집 발간	일시 : 원고모집 9월 30일 마감 대상 : 태안군민 누구나 참여인원 : 7여 명	지역의 향토문화자료로서,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동정, 향토문화관련자료 등 지역문화를 발굴·소개함.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7	태안군 문화예술인 토론회	일시 : 12월 13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상 : 태안 예술인 참여인원 : 300여 명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사례발표,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관람,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토론회, 지역문화예술정책과 방향에 대한 강연, 친교의 시간을 실시함
8	움직이는 문화공연	일시 : 12월 11일 장소 : 태안여자중, 백석요양병원 대상 : 태안군내 소외계층 인원 : 600여 명	지역적, 사회적 여건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청 또는 방문을 통한 무료 문화공연을 실시함
9	태안섬기행	일시 : 8월 15일 장소 : 원북면 방이칠도, 외도 등 대상 : 문화가족, 문화원 임원 등 인원 : 80명	태안의 유람선을 이용해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섬의 자연과 문화자원에 대한 탐방의 기회를 제공함
10	원청리 별주부옹왕제	일시 : 2월 5일 장소 : 남면 원청리 별주부 마을 자라바위 앞 대상 : 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인원 : 80명	별주부전의 배경이 되는 남면 원청리 고유의 민속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관광이미지를 확대함
11	제11회 태안문화제	일시 : 10월 12일~13일 장소 :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인근 대상 : 태안군민 및 관광객	• 주요행사 : 전통자염재현, 천일염전체험, 전통혼례, 벚가릿대놀이재현, 설위설경재현, 수차체험, 국악(시조, 민요)경연대회, 태안음식문화체험, 태안군 어린이 동요대회, 미술실기대회, 태안 옛사진전, 시화전, 지역예술인공연, 연합전시회, 문화체험 프로그램부스 운영, 불꽃놀이 등
12	태안문화원 초대전	일시 : 10월 12일~17일 장소 :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전시장 대상 : 지역예술단체 작품수 : 84점 (제11회 태안문화제초대전으로 전환)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와 지역주민들의 전시회에 대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전시회
13	김연석고택 민속자료발굴	일시 : 3월~12월 장소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582-1	용역조사를 통해서 건축의 구조와 형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된 지역자료와 이야기를 발굴하여 학술자료지로 발간함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4	제22회 소성백일장	일시 : 9월 14일~9월 25일 장소 : 태안문화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인원 : 317명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활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와 문학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문화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로 접수하여 심사함
15	지역문화학교	일시 : 3월~12월 (10개월) 장소 : 태안문화원 대상 : 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강좌수 : 9개 수강인원 : 250여 명	주 1회 강좌를 기본으로 하고 문화예술을 중심의 주·야간 강좌개설 (서각, 유화, P.O.P, 캘리그라피, 가죽공예, coffee story, 사진교실, 풍수지리, 판소리)
16	범군민 중앙대제	일시 : 2월 6일 장소 : 경이정 인근 대상 : 태안군민	중앙대제, 읍면대항 율놀이, 소원소지걸기, 음식나누기, 지신밟기, 민속놀이재현
17	태안향토 문화지 발간	일시 : 연중실시 장소 : 태안문화원 대상 : 태안향토문화연구소 회원	태안의 각종 유형·무형 문화재를 조사발굴하고 연구하여 이를 활용한 향토자료집을 제작 보급함
18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전	일시 : 6월 21일 장소 : 보령머드축제장 인원 : 6개 종목 40여 명 (인솔자, 관계자 포함)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우리의 전통문화 민속놀이 6개 종목에 참여해 경합을 벌여 우리의 민속 문화 민속놀이를 더욱 발전 계승시키고, 시·군간 화합과 정제된 민속 문화를 활성화시킴
19	도서관 및 향토자료관 운영	일시 : 1월~12월 장소 : 문화원 도서관	수집된 도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서관을 조성하여 향토유물전시관과 함께 전국의 지역문화자료를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전문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 담당자 확보
20	태안군 어린이 동요대회	일시 : 10월 12일 장소 : 태안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대상 : 태안군 초등학교 재학생 인원 : 16개팀 50명	태안군내의 어린이들의 건전한 동요문화를 정착함을 물론 본 대회를 통해서 연중 아름다운 동요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1	새충남문화 대축전	일시 : 5월 31일~6월 2일 장소 : 충남 내포신도시	수차돌리기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 내뿜으며 힘찬 새출발을 표현하는 퍼포먼스와 체험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신도시 출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태안의 향토문화를 전국에 알림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2	제6회 역사문화 학술발표회	일시 : 11월 8일 장소 :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소강당 대상 : 향토사가, 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인원 : 200여 명	매년 태안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통해 여러 전문가와 토론자들이 함께 태안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
23	가족나들이 바우처	일시 : 5월~12월 (10회) 장소 : 한강크루즈, 63city, 창덕궁, 인사동 대상 : 태안지역주민등록거주자 인원 : 800여 명	가족과 자연, 문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문화체험을 통해서 소중한 가족의 추억거리를 제공함
34	어르신 문화학교	일시 : 5월~12월 (8개월) 장소 : 태안문화원 강당 대상 : 지역 내 어르신들 인원 : 30여 명	민요부르기와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민요를 체계적으로 배워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 공연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며, 민요를 통해서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25	2013 백화산 해맞이행사	일시 : 1월 1일 장소 : 백화산 정상, 태을암 대상 : 태안군민	2013년 새해 아침에 백화산에서 꽃씨나누기, 떡국 나누기, 시낭송, 희망풍선날리기 등을 통해 군민 화합을 다지고 휴양관광도시 태안을 대외에 알림
26	문양목선생 추모제	일시 : 6월 9일 장소 : 남면 몽산리 모선재	우운 문양목선생의 독립운동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널리 알림
27	안양사 제례행사 전승	일시 : 4월 12일 장소 : 근흥면 안기리 안양사 인원 : 100여 명	간재 전우선생과 최노백을 모신 사당의 제례를 전승하여 전통민속을 보존함
28	웃점 조개부르기제	일시 : 2월 23일~24일 장소 : 고남면 웃점마을 공동 복지관, 고남면 마을 포구 인원 : 200여 명	웃점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널리 홍보하고 전승하기 위함
29	군민을 위한 음악회	일시 : 10월 10일 장소 : 고남면 농민의 집 광장 대상 : 지역주민	지역축제를 통한 예술인의 참여와 주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으로 승화함
30	동학농민혁명 추모제	일시 : 10월 29일 장소 : 백화산 동학농민혁명 추모탑	동학농민혁명 복점의 진원지이자 최후의 항전지에서 희생된 넋을 위로하고 동학정신을 선양함
31	2013 자염재현축제	일시 : 8월 3일~4일 장소 : 근흥면 마금리 남금갯벌 대상 : 지역주민 및 관광객	우리나라 전통소금인 자염을 재현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태안지역의 소금 향토 산업을 육성하고 특화하기 위함



가족나들이 바우처



새충남문화대축전



어린이동요대회



이원면벚가릿대놀이



충남도지사배민속대제전



태안문화제 전통혼례

2013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2013년도 신년교례회	일시 : 1.3(목) 14시 장소 : 홍성군청 대강당 대상 : 홍성군내 기관단체장 참석인원 : 200여명	홍성의 문화발전과 화합을 위한 관내 각급 기관·사회·문화단체장들 상호인사의 자리
2	제17·18대 홍성문화원장 이취임식 및 신년음악회	일시 : 1.16(수) 14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2층 전시실 대상 : 홍성군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참석인원 : 400여명	제17·18대 홍성문화원장 이취임 격려 및 축하의 자리와 함께 신년음악회 공연 실시
3	제10회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	일시 : 2.23(토) 14시 장소 : 홍성읍 일원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1,000여명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문화유산인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함으로써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민속을 알리기 위한 민속행사
4	2013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결성 성호리 동제 기록화 사업"	일자 : 3월~11월(9개월) 장소 :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마을 참여대상 : 결성면 마을주민	잊혀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인 결성 성호리 동제(오방제)를 널리 알리고, 원형보존과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집과 영상물(DVD)을 기록화 및 재현하여 향후 마을 관광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5	홍성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일자 : 3월~12월(12회)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지역주민 공연단체 : 12팀 선정 참석인원 : 2,000여명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장(전시실)을 무료 개방하여 가요, 국악, 사물놀이, 밴드연주, 미술작품 전시 등의 공연(전시회)을 통해 지역공연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열린 문화원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자 함
6	2013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 "아코디언 앙상블"	일자 : 4월~10월 (14회 교육, 5회 공연) 장소 : 홍성문화원, 유일원, 장수원, 라온의 집, 홍주요양병원 등 대상 : 지역주민 및 시설 어르신 동아리인원 : 9명 참석인원 : 1,500여명	어르신 아코디언 동아리의 지속적 관리와 보수교육, 공연관람을 통하여 문화나눔봉사단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며 문화소외계층에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나눔 실현 기대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7	제4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공모기간 : 4.8(월)~10.31(토)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일시 : 1) 11.11(월) 16시 2) 12.19(목) 15시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참석인원 : 20여명	옛 홍성의 자연경관, 문화유적, 생활상, 발전상, 건조물, 골목 등 홍성과 관련된 모든 개인 소장사진 공모 실시 1) 공모전 심사 접수된 100여점의 사진에 대해서 6명의 심사위원이 역사성, 가치성 등에 의하여 심사 및 발표 2) 공모전 시상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입선 10명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8	2013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홍성문화나눔봉사단 행복 콘서트"	일자 : 5월~11월 (6회 교육, 9회 공연) 장소 : 유일원, 홍성문화원, 서부면 속동마을, 홍성내포 문화축제장, 용봉산, 장곡초등학교, 한누리 등 대상 : 지역주민 및 축제관람객 봉사단원 : 50명 참석인원 : 10,000여명	홍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소외시설 및 관내 축제장으로 찾아가는 공연 실시, 국악, 민요, 가요 등 문화나눔공연을 함으로써 생생한 감동과 문화적 봉사의 의미, 좋은 문화를 함께 만들고 보급시키는 문화운동의 기반마련
9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전통성년식)	일시 : 5.20(월) 11시 장소 : 해전대학교 학술정보관 강당 대상 : 해전대학교 학생 참여학생 : 22명 참석인원 : 500여명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로써 전통복식과 방법으로 성년식 재현,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적 책임감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
10	우리문화 알아보기	일시 : 1차) 5.24(금) 8시 30분 2차) 6.29(토) 7시 3차) 10.4(금) 8시 30분 4차) 12.20(금) 8시 30분 장소 : 1차) 전북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고인돌 군락지, 청보리밭 학원농장, 새만금방조제 2차) 서울시 선학원, 심우장, 망우리공원묘지(만해 한용운 묘) 3차) 전북 남원 공한루원 민인의 총 보절 관음사, 남원훈불문화관 4차) 공주 국립공주박물관, 부여 능산리 고분군,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역사문화관, 백제원 대상 : 지역주민 및 문화원 회원, 문화학교 수강생 참석인원 : 150여명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1차) 고창문화탐방 2차) 만해문학기행 3차) 남원문화탐방 4차) 공주문화탐방
11	제23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일시 : 6.21(금) 10시 장소 :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대상 : 충남도민 주최 : 중도일보 주관 : 홍성문화원 참가대상 : 홍성군민 참가인원 : 50여명	다양한 민속경기 및 노래자랑 등 충남도민의 민속 축제 한마당에 참가 • 민속씨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힘자랑 • 제기차기, 널뛰기, 노래자랑, 윷놀이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2	제8회 여름전통문화학교	일자 : 7.29(월)~8.2(금) 장소 : 홍성문화원, 김좌진 생가지, 한웅운 생가지, 만해체 험관 대상 : 홍성군내 초등학생 참석인원 : 40여명	인성, 예절, 역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 하게 하여 우리문화를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교육 및 대화의 자리 마련 • 우리고장 문화알기, 전통예절교실, 다도교실 • 단청교실, 짚풀공예교실, 야생화교실 • 영화감상, 문화탐방
13	2013 만해체험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만해 한웅운 선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체험여행"	일자 : 8월~11월(3개월) 장소 : 만해체험관, 생가일원, 만해기념관, 심우장, 설악산 백담사, 만해마을 등 대상 : 청소년(초, 중) 및 지역주민 참석인원 : 1,300여명	만해체험관을 문화교육시설로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 청소년, 문학인 등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해체험관의 활성화를 통해 만해 한웅운 선상의 사상과 업적을 널리 알리 고자 함 • 만해문학강연 및 도전 골든벨 • 만해문학체험(만해흔적찾기, 시화작자만들기, 시화부채만들기, 만해시탁본체험, 불교식전통문 화체험) • 만해문학체험의 밤 및 만해시낭송회 • 만해문학기행
14	201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여름농촌민속공예학교"	일자 : 8.5(월)~8.8(목) 장소 : 홍성문화원, 아산시 현충사, 온양 외암민속마을 대상 : 홍성군내 초등학생 참석인원 : 40명	조롱박과 짚풀을 이용한 민속공예품 만들기 체험 과 야생화 가꾸기를 통한 자연체험학습으로 선조 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
15	제18회 만해추모제 및 추모 음악회	일시 : 8.31(토) 14시 장소 : 만해생가지 대상 : 홍성군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참석인원 : 800여명	만해추모제를 통하여 만해 한웅운 선사의 높은 뜻 을 이어받고, 청소년들에게는 자긍심 고취 및 주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함 • 만해 문학강연, 만해 백일장 및 사생회화대회 • 만해 추모다례, 만해 추모음악회, 만해 문학의 밤 • 만해 한웅운 자료 사진전, 만해문학체험, 만해포토존
16	제14회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일시 : 9.12(목) 19시 30분 장소 : 홍성군청 여하정 대상 : 지역주민 상영영화 : 7번방의 선물 참석인원 : 300여명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영화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고 감상할 수 있 는 여가문화 조성
17	제9회 홍성내포문화축제	일자 : 9.26(목)~9.29(일) 장소 : 홍주성 일원 대상 : 지역주민 및 축제관람객 주관 : 홍성내포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인원 : 15만여명	"충 무민공 최영! 절 매죽헌 성삼문"이라는 주제로 한 홍성의 역사인물 축제 개최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8	2013 권역별 어르신문화축제 "충남 문화홍보단들의 한마당"	일시 : 11.7(목) 13시 30분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충남도내 문화원 어르 신문화프로그램 참여어르신 주관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지방문화원 참여문화원 : 충남도내 11개 문화원(12개 프로그램) 참여어르신 : 10여명 총 320여명 참석인원 : 350여명	도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해당문화원 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축제를 통한 어울 림 한마당 마련, 공연 및 전시를 통한 성과발표 및 실력향상과 자아실현의 계기 마련 • 홍성문화원 아코디언 앙상블(아코디언 연주) 공연 실시
19	2013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 "음악을 통한 마음교류 아름다운 청춘콘 서트"	일시 : 11.14(목) 11시 장소 : 충남도청, 수덕사 대상 : 지역주민 참여문화원 : 온양문화원, 예산문화원, 홍성문화원 참여어르신 : 10여명 총 50여명 참석인원 : 300여명	문화공연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 창조 문화 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어르신세대 문화융성의 기반 마련 • 아코디언(온양, 예산, 홍성), 색소폰(홍성), 통기타 (홍성), 하모니카(예산) 음악공연 실시
20	제6회 홍성 옛사진 전시회	일자 : 12.19(목)~12.21(토)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500여명	제4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및 출품작 30여 점 전시, 추억의 옛사진 전시회를 통해 홍성군민들 에게 애향심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21	문화학교 전시발표회 "문화한마당 큰잔치"	일시 : 1부) 11. 29(금) 17시 30분 2부) 11. 29(금) 18시 20분 장소 : 1부)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2부)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문화학교 수강생 및 지역주민 참석인원 : 400여명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와 시연 및 축하 공연 실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자리 제공 1부) 작품전시회 문인화, 서양화, 한문서예전각교실 작품전시 2부) 시연 및 축하공연 국선도, 요가전통요가 / 필라테스, 노래, 난타, 댄스 스포츠, 아코디언, 색소폰교실 시연
22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일영화	일시 : 매주 목요일 19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평균 100여명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영화를 매주 선정하여 무료로 상영
23	문화학교 강좌	일자 : 연중 운영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지역주민 강좌수 : 15개 참석인원 : 매회 각 20여명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교육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회 제공 - 한글서예교실, 국선도교실, 명리학교실 - 요가교실(전통요가 / 필라테스), 노래교실 - 중국어교실, 댄스스포츠교실, 난타교실 - 아코디언교실, 문인화교실, 풍수지리교실 - 색소폰교실, 서양화교실, 한문서예전각교실

순서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4	음악감상실 및 향토도서관 운영	일자 : 연중 운영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음악 감상실, 향토도서관 대상 : 지역주민 및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을 위한 공간 제공 문화원 회원들에게는 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 (DVD, CD) 열람과 대출 제공
25	『홍성문화』 173호, 174호 발간	발행일 : 연중 2회 (6월, 12월) 발행부수 : 각 1,000부 비고 : 책자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배포하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정보와 소식을 제공
26	『삼준산 주변의 솔바람길 이야기』 발간	발행일 : 12월 발행부수 : 1,000부 비고 : 책자	홍성의 삼준산의 역사이야기와 전설 및 문화재 소개를 주변경관과 더불어 소개하고 있음



2013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 "아코디언 앙상블"



2013 만해체험관 교육체험프로그램 - 만해문학강연



2013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홍성문화나눔봉사단 행복콘서트"



제10회 정월대보름 한마당축제



우리문화알아보기 - 남원문화탐방



2013 홍성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충청남도문화원홈페이지안내

충남사이버문화원 <http://cult21.or.kr>
 공 주 문 화 원 <http://culturegj.or.kr>
 금 산 문 화 원 <http://geumsan.cult21.or.kr>
 논 산 문 화 원 <http://nonsan.cult21.or.kr>
 당 진 문 화 원 <http://dangjin.cult21.or.kr>
 대 천 문 화 원 <http://daecheon.cult21.or.kr>
 부 여 문 화 원 <http://buyeo.cult21.or.kr>
 서 산 문 화 원 <http://seosan.cult21.or.kr>
 서 천 문 화 원 <http://seocheon.cult21.or.kr>
 예 산 문 화 원 <http://yesan.cult21.or.kr>
 온 양 문 화 원 <http://onyang.cult21.or.kr>
 천안시동남구문화원 <http://aunae.cult21.or.kr>
 천안시서북구문화원 <http://sunghwan.cult21.or.kr>
 청 양 문 화 원 <http://cheongyang.cult21.or.kr>
 태 안 문 화 원 <http://taean.cult21.or.kr>
 홍 성 문 화 원 <http://hscult.or.kr>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E-book 자료관 구축

문화원 발간도서, 홍보책자, 업무책자, 행사사진, 동영상 등
 E-book 자료관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사이버문화원 및 도내문화원 홈페이지 하단 배너 링크"

2013 충남지방문화원 현황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총면적(평)	원장	사무국장	직원	전화/팩스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87. 2		회장 이준호	김영철	최윤경 강현숙 이용배	T.669-5050 F.669-4567
공주문화원	공주시 대통1길 66 (반죽동)	54. 12. 14	650	나태주	현대수	김민영 양문숙	T.852-9005 F.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67. 11. 18	364	이철주	안용산	전병만 석현숙	T.754-2724 F.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시민로 270	64. 12. 30	20	류제협	이준창	전현희 박슬기	T.732-2395 F.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	58. 4. 5	341	정정희	정제상	오미형 오유정 박종현	T.354-2367 357-2367 F.356-3850
대천문화원	보령시 대흥로 63	62. 2. 4	287	임기석	임성빈	김명희	T.934-3061 F.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	54. 3. 1	125	정찬국	김인권	이미영 윤명덕	T.835-3318 F.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65. 2. 11	570	이준호	김영철	최윤경 강현숙 이용배	T.669-5050 F.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8	65. 1. 26	301	조순희	이광재	박은희 백정열	T.953-0123 F.953-0133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55. 10. 15	344	김시운	박세진	김상희 윤선은	T.333-2331 335-2441 F.334-4330
온양문화원	아산시 남산로 28	57. 5. 10	249	이만우	김형기	허미화 이명숙 박현미	T.545-2222 F.542-4444
천안시동남구 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29	58. 4. 20	74	김준기	곽승일	김회영	T.564-1022 553-1032 F.563-1021
천안시서북구 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63. 5. 10	84	이종석	신광식	김정선	T.581-2101 F.582-1725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65. 2. 11	286	이진우	이병운	복은주 차승원 송미애	T.943-4774 F.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남산1길 85	90. 10. 10	241	김한국	정지수	김유미 박경미 권현아	T.674-2192 F.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54. 3. 31	605	유환동	김병제	강청식 이은주 정선영	T.632-3613 F.633-1199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9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 No.17

발행일 | 2013. 12

발행인 | 이준호

편집인 | 김영철, 강현숙

발행처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Tel. 041)669-5050 Fax. 041)669-4567

*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충청남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받아 발간되었습니다.

